현대불교

제 801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9월 15일 수요일 (음력 8월 8일 · 불기 2554년 ·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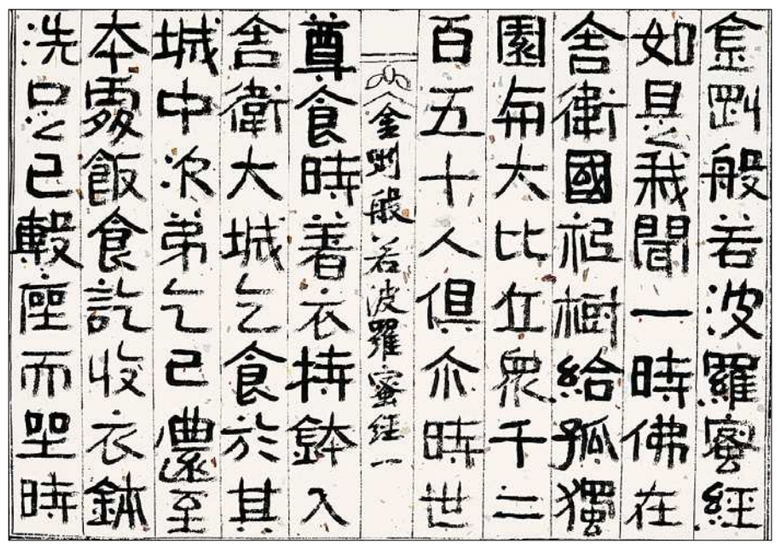
선묵일여 화두 삼아 한획 두획

투병하며 써내려간 사경 '영적전' 여는 기현 스님

<影迹展>



기현 스님(위)



<금강반야바라밀다심경> (오른쪽) 기현 스님이 사경한 작품 속에는 자연스러움이 배어 있다.

"서툴지언정 아름답게 꾸미지 말라 하였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진통과 인고로 써 내려간 애환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포병반생(抱病半生). 기현 스님(사진)은 병을 안고 반생을 살았다. 질긴 고통이 끊이지 않았던 수행자는 사경을 하며 인내의 시간을 보냈다. 이제 스님은 "밥을 많이 먹어서 위장이 터졌었다"며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할 정도로 회복돼 있었다. 길고 질긴 병을 이겨낸 승자만의 여유였다.

"우리네 삶은 남 흉내내는 것 뿐입니다. 흉내나 내며 살다가 떨어진 곳이 다행이도 절집이었죠. 이제는 꼭두각시놀음을 그만하고 소요(逍遙)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영적전(影迹展)' 전시를 앞두고 있는 기현 스님이 관람객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스님은 꾸밈없이 정갈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기를, 그리고 관람객들과 사경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 했다.

26세 때인 1968년 범어사에서 출가한 스님은 1976년 쌍계사에서 공부를 하던 중 병을 얻었다. 병과 싸우며 소일거리로 시작한 서예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1978년 동방연서회에서 여초 김응현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부터다.

"병은 저를 지혜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마치 쇠를 용광로에 녹여 단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죠. 위장을 회복하는 동안 어떤 수행도 할 수 없었지요. 그때 붓을 들고 시작한 사경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길고 질긴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사경을 하면서 선묵일여를 화두삼아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사경은 900여 점의 작품으로 탄생됐다. 전시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불경을 써가면서 그의 신심은 더 깊어졌다. 그 결과물은 1.2㎞에 달하는 <화엄경>사경 병풍, 5200여 자의 <금강경> 병풍으로 태어났다.

"또박 또박 해서체로 정성을 다해서 하는 사경이 아니라 다양한 서체를 이용해 붓을 휘둘렀죠. 여초 선생은 제 글씨를 보고 "정도(精道)로 된 것은 없지만 야생은 있다"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꾸미지 않는 것, 그것이 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소요를 추구하는 스님의 사경 속에는 독창적인 글씨체가 담겨있다. 다양한 경서(經書)를 15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사경 해온 작품 세계에는 불교와 신심, 예술이 함께 담겼다.

"병이 없었다면 사경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경전을 보고, 선방에 앉아 수행정진 했겠지요. 참선은 불교에서 가장 수승한 수행법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참선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겠지요. 사경의 경지에서 삼매는 깨달음과 똑같습니다."

서예와 불법의 매력에 빠져 방대한 작품을 만들어낸 스님은 지금도 양평 보타암에서 사경삼매 정진을 이어가고 있다.

기현 스님의 사경 전시회 '사문기현영적전(沙門奇玄影迹展)'은 9월 29일~10월 5일 서울 인사동 한국박물관에서 개최된다.

<화엄경>과 <법화경> 등 300점이 공개된다. 2004년부터 3년간 써내려간 <화엄경> 사경은 감지(紺紙)에 금니를 사용해 금문, 백서, 예서, 해서, 행서 등 오체로 쓰여졌다. 글자수만 해도 약 70만 자에 달하는 작품은 스님의 오랜 산고의 흔적이다.

<법화경> 사경은 감지에 경면주사(鏡面朱砂)로 쓴 것으로 사경 기간만 2002~2008년으로 30×135㎝ 병풍이 120폭이나 된다. <금강경>사경도 전서나 금문 등 다양한 서체로 5200여 자에 이른다.

작품들 중에는 다양한 갑골문이나 주 · 은 시대 병기나 제기 등에 썼던 백서(帛書)도 눈에 띈다. 그밖에도 가로 11m의 <화엄경> 약찬게, <반야심경>을 수막새의 와당문향화한 것 등 고정된 틀에서 벗어난 작품들이 가득하다. (02)732-7096

이상언 기자

"조계종이 사회통합에 나서야"

법전 스님, 자승 스님에 주문… 화쟁위 출범도 격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사진)이 화쟁위원회 출범을 격려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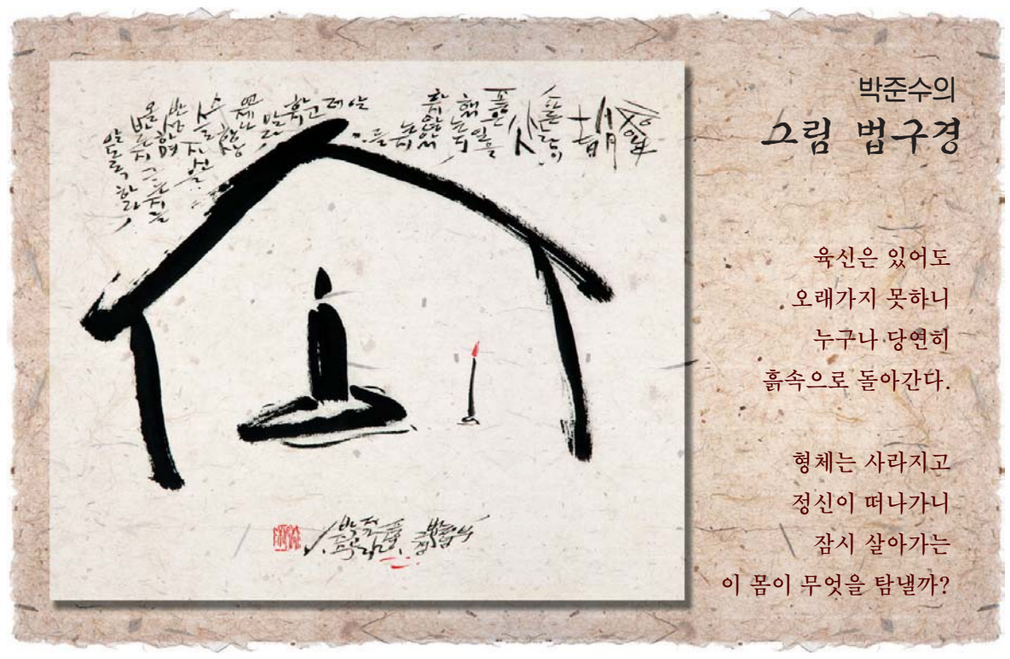
법전 스님은 9월 7일 추석 하례차 해인사 퇴설당을 찾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화쟁위원회 발족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현안들을 잘 다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라. 앞으로 종단이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전 스님은 "우리 사회가 매우 어렵다. 남북갈등과 정치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화쟁위원회 출범의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총무원장스님을 중심으로 종단이 4대강 문제 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스님은 "16일 화쟁위가 여야와 정부, 시민단체 대표자들을 초청해 4대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준비 중"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종정예하의 말씀을 잘 받들어 종단의 소통과 화합에도 매진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 스님은 추석 하례차 청주 보살사를 찾은 총무원장스님에게 "국민통합을 통한 국태민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추석 제수용품 · 선물 특판

연우와함께 · 인드라망 · 사찰 생협 등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고민스러운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가까운 분들에게 감사를 표할 추석 선물이다. 보통 선물은 정성이라고 말한다. 먼저 받는 사람이 부담없어야 하며, 주는 사람의 마음이 전달돼야 한다.

연우와함께(대표이사 이상근)는 불자들이 생산한 친환경 · 유기농산물, 공정무역 제품, 사회적 기업이 만든 제품, 각 사찰 특산품 등을 주로 판다.

인드라망 생협은 단순한 생산 · 소비 연결 뿐만 아니라 귀농민들의 생산물을 도시 소비자와 직접 연결해 귀농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인드라망 생협은 '제철 꾸러미' 프로그램을 통해 각 귀농 조직들의 생산물과 생활재를 매주 각 가정으로 배송하고 이 과정을 공개해 도시 유기농식품 창업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각 명절을 맞아서는 금산 홍삼과 한과, 무농약 쌀, 지리산 산머루 와인 등을 상품화해 판매한다.

이밖에 서울 조계사는 경내 입구 불교용품점에서 강원도 정선과 경기도 영천의 햇콩만을 사용해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은 '메주와 첼리스트'의 된장과 간장, 쌈장 등 20여 가지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서울 봉은사는 입구 '솔향기'에서 오리쌀 식혜, 기름에 튀기지 않은 즉석국수 등 700여 가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 능인선원 · 수원 수원사 · 광명 금강정사 · 부천 석왕사 등도 생협을 통해 친환경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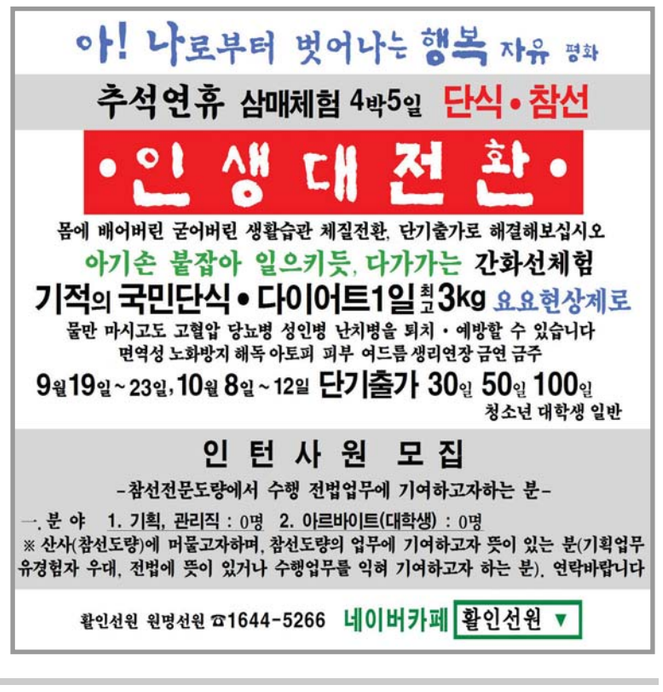
14 15 간화선 진제 스님
화두일념만 지속이 되면 그 깨닫는 과정은 찰나인 것이니, 세상사에 정신없이 세월만 낭비하지 말고 일거수일투족 '참나'를 찾는 화두와 씨름해서…

7 학술 조선불교통사 완역 출간

9 현장 병불련 孝 의료봉사

11 선원총림 전통 선당의 내부

16 강의실 재가불자 2인 조명





하루 만에 끝난 14대 마지막 종회

조계종 중앙종회, 선거법 등 주요법안만 처리하고 폐회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는 9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84회 임시중앙종회를 개회했다. 개회식에는 중앙종회의원 80명 가운데 51명이 참석했다. 종회에는 △승려법 개정안 △종무원법 개정안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개정안 △호계원법 개정안 △불교사회활동진흥법 개정안 등 27개 개정법안과 종무보고, 종책질의의 건 등이 상정됐다.

종회에서는 첫 안건으로 상정된 '승려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사유재산 종단 '귀속'은 '출연'으로 명칭 변경되고, 재산출연은 예비승까지로 확대됐다. 유언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계와 법계 품수 등이 제한되도록 명시했다. 또, 유지재단에 유증된 재산은 승가복지 및 승려교육기금으로 사용하며 목적 불사를 위한 별도 회계관리를 하도록 했다.

종회의원 스님들은 호계위원 자격과 심판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호계원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된 호계원법에서는 민사심판과 재정신청, 특별심 제도를 신설해 호계원의 권한을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라 호계원은 승려 개인 징계 뿐만 아니라 사찰과 사찰, 사찰과 승려, 승려와 승려 사이의 분쟁에 대한 심판 권한도 갖게 됐다. 또, 재정신청 권한이 생겨 호법부장의 제소와 무관하게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게 됐다. 특별심을 통해서는 호계원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호계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호계위원의 자격도 강화했다. 호계원장과 호계위원이 △율원 교직자 △율원 졸업 △호계위원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중앙종회의원 △교구본사 호법국장 중 하나 이상의 경력을 갖추도록 했다. 재심호계위원은 승낙 30년 이상, 세납 50세 이상으로 5년씩 상향 조정했다.

또, 징계 회부자의 인권보호와 명확한 판결을 위해 20일이었던 초심호계원의 심리기일을 50일로 늘리고, 사건을 병합·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종회에서는 사의를 표명한 前 호법부장 덕문 스님 후임으로 상운 스님의 임명동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직능직 종회의원 보궐로 월공 스님이 의원선서를 진행했고, 임기만료된 소청심사위원에 주혜·동산·원일·범산·청우·혜자·성무·덕조 스님이 선출됐다.

종회에서는 신도의 신행경력·교육정도에 따라 품계를 나누는 '신도법 개정안', 신도교무금 조성위원회를 구성해 신도교무금을 책정시행토록 하는 '종단교무금납부에관한법 개정안', 문화재구역입장료 총액의 5%를 교육특별분담금으로 징수하는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개정안', 종단 기금령 설치 근거를 마련한 '예산회계법 개정안' 등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종단 차원의 사회활동과 불교NGO 지원의 근거가 되는 '불교사회활동진흥법'과 '중앙종회선거법 개정안', '교구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하지만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한 달 여 앞둔 상황에서 거주승 선거권에 대한 판단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들은 제15대 중앙종회로 넘겼다.

노덕현 기자



9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184회 조계종 임시중앙종회 개회식에서 스님들이 삼귀의를 하고 있다.

법규위, 성희롱 사건 "유감"

대변인이 당사자 직접 면담키로

증인으로 출석한 50대 여인의 문제제기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피소된 조계종 법규위원회가 사건 발생 1주일 만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성천)는 9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66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법규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해 '법규위원회 현안 문제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인권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피소된 건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성희롱 발언 당사자로 알려진 A스님은 "사건에 대한 심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대외적으로 알려져 유감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회의는 A스님의 주장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법선 스님을 법규위 대변인으로 임명하고 이번 사태과 관련해 법선 스님이 사건당사자인 50대 여인(박모 씨)을 만나 최대한 설득키로 했다.

대변인 법선 스님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법규위원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증인 심문 과정에서 능숙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특히 박모 씨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민망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법규위원들의 뜻을 박씨가 인지하고 넓은 마음으로 혜량해 국가기관에 제소된 부분을 마무리해 준다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법선 스님은 "법규위원회가 '사과'가 아닌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박모 씨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수치심을 준 데 대한 것일 뿐이다. '사과'하면 법규위원회가 박모 씨와 관련한 사건을 다룬 것부터 잘못됐다는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종단 안팎에서는 이날 회의를 통해 법규위원회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기대했으나 '유감' 표명만으로는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위원스님이 법규위원 전원의 사퇴를 주장했지만 다수의 의원 반대로 무산됐다.

또, 호계원의 판결 내용을 두고 법규위가 사실관계를 새로 밝히겠다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지적도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는 6일 "호계원의 심판결정을 법규위원회가 심리한 데 이어 사실관계까지 확인하려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공문을 법규위에 발송했다.

법선 스님은 "8일 직접 제주도로 내려가 법규위원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박모 씨의 입장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10일 현재, 법선 스님은 A스님이 뜻을 굽히지 않아 박모 씨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선 8일,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의장 진오, 이하 대중결사)는 성명서를 통해 참회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대중결사는 성명서에서 "사회적으로는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와 발언이 용납되지 않지만 종단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법규위원회의 이번 사태는 개인적 차원의 단순 실수가 아닌 종단 내 인권 의식과 인권 보호 제도의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이다"라고 말했다.

대중결사는 △사태를 야기한 해당 법규위원의 참회와 사퇴 △법규위원회의 책임있는 사과 △총무원 차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중앙종회의 법규위원 자격심사 강화 등을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태고종, 총무원장 탄핵 두고 내홍

인공 스님, 담화문을 통해 해명 시도
16일 임시중앙종회서 판가름

태고종이 총무원장 탄핵을 두고 내홍에 휩싸였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원봉)는 최근 "9월 16일 대전 스파피아에서 제103회 임시중앙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종회에서 총무원장 인공 스님의 탄핵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자 인공 스님은 8일 '안정 화합으로 종단 발전을 이룩하자'는 제하의 담화문을 통해 종단 부채 등 현안에 대한 해명을 시도했다. 이어 9일 중앙종회가 반박 성명을 내고 16일 종회 개최의 뜻을 분명히 함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총무원장 인공 스님의 탄핵은 8월 6일 지방교구 종무원장 회의에서 가시화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종무원장들은 인공 스님의 행정력 부재 등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결의해 총무원에 전달했다. 종무원장스님들은 성명서를 통해 △혜초 종정 스님에게 불경 행위를 저지른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의 옹호 건. △봉원사 납골당과 관련해 발생한 종단 명의의 부채 해결을 방치한 점 △G20성공기원 영산재와 관련해 구속된 신도회장에 대한 도의적 책임 △ 종단제도 개혁을 반대한 점 △행정능력 미흡과 건강 문제로 의욕적 활동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인공 스님의 총무원장직사퇴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인공 스님은 담화문에서 △봉원사 부채는 봉원사가 해결할 것이고 △영산재 행사비에 종단은 법적 책임이 없으며 △종단 제도개혁은 반대가 아닌 신중한 시행을 △종무행정과 관련해 지탄 받은 일 한 적 없고 건강상에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인공 스님의 담화문에대해 중앙종회 측은 "인공 스님의 해명은 사태위기를 모면하여 자리(총무원장)를 보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중앙종회 측은 "총무원장은 종단 대표자로서 종단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총무원장은 지금이라도 종정예하의 뜻과 종도의 여망을 받들어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대중화합을 위해 합의했다"

성타 스님 단독 출마 불국사 새 주지 후보로 선출
차기는 종광 스님으로 합의



경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됐던 불국사 주지 후보 선출이 막판 합의에 따라 성타 스님(사진)으로 확정됐다.

불국사 주지후보 선거는 유력 후보였던 종광 스님이 문중화합을 이유로 후보를 사퇴하자 종문·장주 스님도 사퇴해 성타 스님이 단독 출마했다.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는 9월 9일 산중총회를 열고 성타 스님을 제25대 주지 후보로 확정했다. 성타 스님은 산중총회에서 후보 확정 후 "불국사와 지역사회, 불교계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종광 스님은 산중총회에서 공개한 '문도화합의 글'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문도들에게 부담을 준 것에 참회한다. 대중화합을 위해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문도화합의 글'에 따르면 성타·종광 두 스님 측은 이번 주지는 성타 스님이, 차기는 종광 스님이 맡기로 합의했다.

조동섭 기자

봉 (사)한국불교 연화조계종 입종 및 금강계단 안내 축

입 종 안 내

(사)한국불교연화조계종은 2010년 7월 23일 관련 부서로 부터
법인허가를 득하였으며 (2010-17호) 등기 (234121-0001430호)를
필한 종단으로 제방의 참신한 스님들의 입종을 기다립니다.

- 본 종단은 종도를 먼저 생각합니다.
- 본 종단의 예결산은 투명합니다.
- 본 종단은 법인 이사장 및 이사들의 출연으로 승려 노후 복지원을 설치, 스님들의 안식처를 제공할 것입니다.
- 본 종단은 비구니 별정원을 두어 자주권을 인정할 것입니다.
- 본 종단은 금년 말까지 입종하시는 스님, 사암은 등록비 일체를 면제합니다. (등록비, 금년도 분담금 및 공과금 일체)

금강계단 안내

- 본 종단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수계(득도, 사미, 사미니, 비구, 비구니)를 미루어 오신 스님들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수시 금강계단을 설단합니다.
- 종단, 종파를 불문합니다.

행자교육 안내

- 승려(재가승 포함)가 되고자 하시는 분이나 사암(포교원)을 운영하시려는 분의 교육을 위하여 본산 및 총무원에서 행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 입종문의 : 전화 054)231-3101(총무원) / 팩스 054)242-9301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474번지

불기 2554년 9월

(사)한국불교 연화조계종 총무원장 보월 합장

7. 계율

만해 스님의 주장 그 이유 곱씹어야

<조선불교유신론>은 계율과 관련해 두 가지 항목에 걸쳐서 논한다. 하나는 승려의 인권회복은 생산에서 비롯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교의 장래를 위해서 승니의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제안은 만해 스님 당대는 물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혀 다른 대접을 받는다. 두 가지 문제 모두 오늘 우리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고개를 갸웃거릴 만하다.



만해 스님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천시 받았던 승려의 인권을 개선하고 불교를 새롭게 건설하는 방법으로 노동을 제시했으며, 불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결혼 허용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동 않는 승려 비판… 인권회복은 생산에서 비롯
승니 결혼 허용… 불교 미래 가꿔갈 방책으로 제안

우선 승려의 노동. 그것은 선종의 전통이고 오히려 당연시되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만해 스님은 생산노동을 강조하는 것일까. 그 시절 승려는 생산노동을 전혀 하지 않았단 말인가? 답은 "그렇다"이다. 만해 스님은 당시 승려의 생활방식으로 기취(欺取, 상대를 교묘하게 속여서 생활방도를 취함)와 개걸(丐乞, 구걸)을 들고 있다. 대부분이 생산노동과는 전혀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만해 스님은 조선조 500년 동안 천시 받았던 승려의 인권을 개선하고 불교를 새롭게 건설하는 방법으로 노동을 제시했다. 다만 만해 스님의 이 지적에서 당시 조선불교는 승려의 생산노동을 당연시하던 선종전통에서 좀 벗어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둘째, 승니(僧尼)의 결혼 허용, 우리는 그것을 간단히 대처(帶妻)라고 부른다. 만해 스님은 이 부분에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중추원과 통감부에 건의서를 내기까지 하고 있으니 그 열의를 짐작할 만하다. 스스로도 승려의 결혼 허용을 불교를 부흥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대책이라고 할 정도이다.

이 두 가지는 오늘날 우리 시각에서 보면 전혀 다른 대접을 받는다. 승려가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作 一日不食)"이라는 말이 대중화돼 사회에서 통용될 정도이니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승려의 결혼 허용, 곧 대처(帶妻)에 관해서는 정반대의 시선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자 애국지사로 알려진 만해 스님이지만 승가 내에서는 "결혼했잖아"라는 한 마디로 평가될 정도이다. 국권상실기에는 결혼 허용을 주장하는 승려도 많았고, 또 실제 결혼한 승려가 다수를 형성했던 것 같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정말 이상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 "승려가 무슨 결혼을 해?" "승려가 결혼하는 것은 일본불교에서나 하는 것이잖아." 이게 우리의 시각이다. 승려의 결혼은 불교전통에도 어긋나고 또 일본화된 불교의 전형인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데 한 세기 전 만해 스님은 승려의 결혼 허용을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스스로 들고 있는 주된 이유는 포교와 교화에 해롭다는 것이다. 그런데 왠지 우리의 시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만 비추어진다. 이에 대해 심재관 선생은 "이미 100여 년 과정 속에서 형성된 '주체화'된 전통의 목소리('청정비구는 한국불교의 특징이다')"와 "소수의 근대적 타자(일본불교)로 간주되어 거세된 대처식육(帶妻食肉)"으로 대비시키고 있다.

곧 우리가 선택한 전통에 의해 배제되었던 또 다른 선택을 혐오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것이 <유신론> 이후 100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 왔던 전통적이고 습관화된 인식이라면, 이제는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때도 되지 않았을까?

필자가 볼 때 적어도 '대처(帶妻)'를 둘러싼 만해 스님의 주장은 '대처'라는 그 한마디에 매몰돼 버렸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대처'가 나쁜 것으로 이미지가 고정된 상태에서는 그것을 주장하는 의도가 어떤 것이든 용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신론>에서의 '대처' 곧 '결혼허용 주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것이 '유신(維新)'이라는 대전제 아래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신은 깨뜨려야 할 구습(舊習)과 새롭게 만드는 미래를 전제로 주장된다.

만해 스님에게 있어 승려의 생산노동 장려는 개걸(丐乞)하고 기취(欺取)하는 구습의 타파를 통해서 새롭게 만드는 미래였다. 동시에 만해 스님에게 있어서 '승니의 결혼허용'은 교세를 보존하고 불교를 흥성하게 하는 것으로, 시대에 뒤쳐진 조선불교라는 깨뜨려야 할 구습을 대신할 새로운 미래를 위한 방책이었을 것이다. 그에게는 결혼의 허용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결혼의 허용을 통해서 얻어지는 불교 교세의 보존과 흥성이라는 미래가 더 중요했던 것이다.

만해 스님은 승려의 결혼 허용 문제를 거론하면서 서두에 "불교를 계율에서 구하는 것은 참으로 용을 한 잔의 물에서 낚고, 호랑이를 개미집에서 찾는 태도"라고 전제하고 있다. 만해 스님에게는, 계율의 열고 닫음은 불도(佛道)를 성취하는 징검다리이고, 그 징검다리가 성취해야 할 불도 그것은 아니라는 명료한 의식이 전제돼 있다.

오늘 우리가 <유신론>을 돌이켜 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 역시 마찬가지이다. 만해 스님이 '무엇'을 주장했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왜' 주장했나 하는 것도 차근차근 곱씹어 보아야 할 때이다. 역사는 온고지신 아니겠는가.



석길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논설로 보는 만해 사상

펜으로 개혁 앞장 선 선구자

불교사상가이자 독립운동가로서의 모습 담겨

만해 스님은 전방위적 · 전인적 삶을 산 인물이다.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3 · 1 독립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이자, 한국 현대 시문학의 큰 자랑인 <님의 침묵>을 쓴 시인이며, 불교의 유신을 주창한 불교사상가이고, 자유와 평등을 높이 외치고 실천한 사회사상가이다. 이러한 스님의 사상과 정신은 스님의 각종 논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조선불교유신론>을 비롯한 불교관련 논설과 <조선독립의 서> 등 우국(憂國)논설 등이 그것이다.

당시 스님의 주장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점이 많다. 이는 스님의 선각적 안목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스님의 논설은 시인으로서의 만해만이 아니라 불교사상가 만해, 독립운동가 만해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정 · 교를 분립하라

만해 스님은 1931년 <불교(佛敎)> 87호의 '정 · 교를 분립하라'는 논설에서 조선 불교가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사찰령(寺刹令)으로 특수한 간섭을 받게 되며 정책의 희생양이 됨을 개탄했다.

만해 스님은 사찰령과 사찰령 시행규칙의 전문을 기제하며 조선 불교도의 맹성을 촉구했다.

만해 스님은 "사찰령은 정 · 교 분립의 원리에 위반됨은 물론 각국의 기정한 헌법 정신에 배치되는 것이며, 조선 내에서도 조선 불교에만 한해 있는 특수한 현상"이라며 "그리하여 조선 불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의혹을 받게 되고 치욕을 느끼게 된다"고 주장했다.

#불교청년운동을 부활하라

만해 스님은 "청년 없는 사회와 국가가 진보하고 발흥 할 수 없다"며 일대 전환기에 접어든 조선 불교에서 청년의 역할을 중요시 여겼다. 스님은 1938년 <불교> 新 제10집 '불교청년운동을 부활하라'의 논설에서 "지금부터 조선 불교는 일대 전환기에 들어 있다. 무통제에서 통제로, 비규율에서 규율로, 그보다도 자립이냐 예속이냐 하는 중대한 분기점에 방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이런 중대한 비상시기에 불자는 누구든지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런 때에 당당한 불교청년으로 어찌 그 책임을 느끼지 아니 하리오"라고 역설했다.

해외포교와 역경(譯經)

만해 스님은 '조선 불교의 해외 발전을 전망함(<불교> 98호 1931.8.1)'과 '역경(譯經)의 급무(<불교> 新 제3집 1937. 5. 1.)'의 논설에서 해외포교와 역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스님은 "현재에 있어 세계 각국의 종교는 물론 불교에 있어서도 조선 불교를 제한 외에는 모두 해외의 전포를 위해 막대한 심력과 금전을 들인다"며 "조선 불교는 금전과 인물의 문제로 해외 진전은 돈진(頓進)할 수 없고 점진의 도(道)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만해 스님은 만주 · 중국 본부 · 하와이 · 미주 · 인도 기타 열국의 순서로 포교활동을 제안하면서 "조선 불교의 현상에 있어 해외포교가 일종의 공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님은 역경 사업에 대해 "조선 불교의 유신 이래 교육, 포교, 기타 모든 방면으로 다소의 진보가 있는데, 역경에 있어서는 요요무문(寥寥無聞)"이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역경 사업은 조선의 전 불교가 일치 협력해 대규모로 하지 않으면 원만히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해 스님의 사상과 정신은 스님의 문학 외적인 자료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만해 기념관에는 만해 스님의 <조선불교유신론>의 초간본과 <불교대전> <불교(佛敎)> 등이 전시돼있다.

조선독립의 서(1919)

'자유는 만물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다…' 로 시작되는 '조선독립의 서'는 만해 스님이 3 · 1독립만세운동의 주동적 인물로 피체 · 투옥됐던 1919년 당시 일본인 검사의 심문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기 위해서 옥중에서 기초한 것이다.

'조선독립의 서'는 만해 스님의 정연한 논리와 조리 있고 해박한 이론, 시대와 민족을 초월한 스님의 탁월한 사상과 고결한 식견을 담고 있다. '조선독립의 서'는 스님의 담당 일본인 검사로 하여금 예우(禮遇)와 경의를 불러 일으키게 해 당시 일본인 검사 "이론은 정당하나 본국 정부의 방침이 변치 않으므로 어쩔 수 없다"라고 언명해 유명해지기도 했다.

이나은 기자

글 싣는 순서……

1. 만해와 '조선불교유신론'
2. 수행
3. 포교
4. 종단 및 사찰운영
5. 신행
6. 교육
7. 계율
8. 만해와 오늘의 불교
9. 소설-만해 스님

제4회 文武大王해상용왕대제
(태평양전쟁 희생자 합동 위령제)

일자	지역	교통편	일 정	일자	지역	교통편	일 정
1일째	부 산	부관훼리	제4회 해상 문무대왕 용왕대제 (태평양전쟁 희생자 합동위령제)	3일째	벳 부 우사신궁 시모노세키	전용버스	- 가마토 지옥. 유노하나. 우사신궁. 관문대교 관광 - 시모노세키 항 이동 및 승선(석식 공양 후) - 선내 레크레이션 및 자유시간
2일째	시모노세키 후쿠오카 유후인 벳 부	전용버스	- 후쿠오카 태재부 천만궁 관광 - 난조인(41M 세계최대의 청동 와불상) 남장원 참배 및 관광 - 3대 온천수 및 긴린코 관광, 호텔휴식	4일째	부 산	부관훼리	- 선내 조식후 하선 및 입국수속 (부산항 아침 8시 도착)

◆ 일 자 : 2010. 10. 11 ~ 2010. 10. 14 (3박 4일)
◆ 코 스 : 〈부관훼리〉 후쿠오카, 유후인, 벳부 관광 ◆ 출 발 :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2층 17시 30분 집결
◆ 주 최 : 사)대일항쟁기 희생자 전국연합회 ◆ 주 관 : 종)한국불교재단 대제봉행 추진위원회 ☎ 011-801-8197 (사무국)
◆ 전 화 : 055)338-0050, 여권사본 팩스 055)328-2762, 02)722-4622
◆ 협 찬 : 재) 세계불교 법왕청 평화재단. 불교 통합종단 협의회. 종) 대한불교 삼보조계종 전종도. 사) 한국청소년 보호육성회.

출발예정일	2010년 10월 11일 ~ 2010년 10월 14일	출발예정일	150 ~ 200여명 이상
단 체 명	大韓佛敎三寶曹界宗	상 품 원 가	₩ 499,000
포 함 사 항	크루즈, 항만세, 유류할증료, 여행자보험, 관광지입장료, 식사, 차량, 기사 & 가이드 팁 387		
주 최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101번지 서울재향군인회 빌딩 602호 02)766-9990 / FAX 02)722-4622		



깨침의 교당
국제승가대학 제3기 수강생모집
(교육과학부 김해대학 평생교육원)

◆ 학 과 : 불교철학
◆ 학 부 : 3부
일반부 - 1.2학기(주 · 야) 교육기간 : 1년
전문부 - 1.2학기(주 · 야) 자격반 교육기간 : 1년
승가부 - 1.2학기(주 · 야) 자격반 교육기간 : 1년
◆ 강 의 : 제 10 강 - 200 교시
◆ 학 비 : 전화문의
◆ 입학식 : 제 3기생 [2010년 9월 30일 (목) 주간 14시. 야간 19시]

- 목 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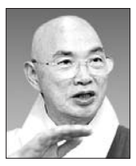
1학기 ..... 불교학. 의식학. 심리학 특강
2학기 ..... 법회학. 경전학. 심리학 특강

※ 불교철학 교육 졸업증 수료 및 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

승가 불자여 !
승가대학 입학을 환영합니다.
수행 보리자여 우리함께 정진하여 풍요한 불교의 황금 알을 찾읍시다.

국제불교승가대학
한국불교문화대학원
농 협 301-0026-704771 (예금주 불교문화 대학원)
학무처 ☎ 055) 338-0050 (학무담당 011-801-8197)

일 주 문



도영 스님 행복강좌
완주 송광사 주지 도영 스님은 9월 19일 서울 봉은사에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특별 강연한다. (02)511-6070



미륵대불전 삼천불 봉안불사 봉안식
보은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은 10월 23일 미륵대불전 삼천불 봉안불사 봉안식을 봉행한다. (043)543-4755



불광사 중창불사 1080배 정진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은 8월 28일 서울 불광사 보광당에서 중창불사 원만성취 1,080배 정진을 봉행했다.



민추본 대북정책포럼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이사장 명진 스님은 9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현 정부 대북정책 전망' 포럼을 개최한다.



오심 스님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울산시립노인요양원장 오심 스님(월봉사 주지)은 9월 7일 제1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복지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월례법회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은 9월 29일 신도회관 교육관에서 10월 월례법회를 봉행한다. (02)733-7277



평화재단 평화리더십 강좌
윤여준 평화재단 평화교육원 원장은 9월 16일 서초 이오빌에서 정치 리더십과 덕목을 주제로 평화리더십 강좌를 개최한다.



불교여성개발원 다문화코디 교육
이은영 불교여성개발원 원장은 9월 27일~10월 25일 주 1회 총 5회에 걸쳐 다문화생활코디네이터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02)722-2102

■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김영록 주임 결혼

김명기 · 김홍자의 차남 김영록 주임은 박종달 · 서병임의 장녀 박정선 씨와 9월 11일 오후 1시 부산 센텀컨벤션 웨딩홀 4층 아도니스홀에서 화촉을 밝힌다.

■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신채희 주임 결혼

신석재 · 강혜자의 장녀 신채희 주임은 한동준 · 김혜순의 장남 한상훈 씨와 9월 12일 오후 1시 공항터미널예식장 3층에서 화촉을 밝힌다.

삼보정재 관리 · 공정한 법 집행에 최선

조계종 재무부장에 성월 스님, 호법부장에 상운 스님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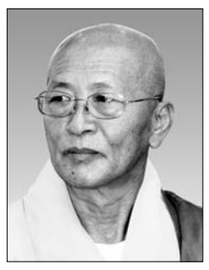
지난 6월 교통사고로 전 호법부장 덕문 스님이 사임한 이후 공석이 된 호법부장에 재무부장 상운 스님이, 상운 스님의 호법부장 임명으로 공석이 된 재무부장에 성월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9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신임 재무부장과 호법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삼보 정재 관리에 만전을"

신임 재무부장 성월 스님은 종단 삼보정재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재무부는 종단의 전체 살림을 맡아보는 부서로 △수입과 지출을 살피는 회계관리 △사찰재무관리 행정지원 △재산변동 승인 및 관리 △망실재산의 환수 △수익사업 개발 △문화재사찰관리 등을 맡고 있다.

성월 스님은 "분담금 관리와 예산 회계 관리 등 종단 삼보정재 관리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재무부장 성월 스님


호법부장 상운 스님

스님은 "업무 파악 등이 진행돼야 부처 업무에 대해 말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월 스님은 1977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9년 봉선사에서 월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은사는 정대 스님, 본사는 제2교구 용주사. 용주사 중앙선원, 범어사 금어선원 등에서 정진했다. 안양 삼막사 주지, 총무원 재무부장,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강화 보문사 주지다. 한편,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이날 진행된 임명식에서 성월 스님과 상운 스님에게 특별한 주문을 했다.

자승 스님은 신임 재무부장 성월 스님에게 "종단 수익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수익 사업 활성화와 종단 재무구조 개선을 당부했다. 이어 신임 호법부장 상운 스님에게는 "종단의 위계질서를 바로세우는 한편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소임을 보아 달라"고 요구했다.

#"엄정한 법적용으로 종도 신뢰를"

신임 호법부장 상운 스님은 임명 직후 공정한 법 집행을 약속했다. 호법부는 검찰과 같은 종단 내 기구로 △종단 내 사고 조사 △호계원 심판 회부 등 종단 법집행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다. 그 중요성에 호법부장 직은 다른 부장직과 달리 조계종 중앙종회의 임명동의안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날 임명식에 앞서 종회에서는 "그동안 호법부가 고위직 스님들에 대해 기소나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신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운 스님은 만장일치로 임명동의를 받은 후 이에 대해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다. 법 적용을 엄정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무엇보다 막중한 소임에 걱정과 책임감을 느낀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모든 종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낮은 자세로, 애종심으로 맡겨주신 소임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상운 스님은 고암 스님을 계사로 1973년과 1975년에 각각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은사는 능가 스님으로 본사는 제14교구 범어사다. 범어사 금어선원, 백양사 운문선원 등에서 정진했으며 제13대 중앙종회 사무처장,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재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진해 정암사 주지로 있다.

노덕현 기자

東大 경주병원장 김경호원장 임명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신임 동국대학교 경주한방병원장에 김경호 병원장(사진)이 9월 1일자로 임명됐다.

김 원장은 동국인천한방병원 교육연구부장,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진료연구부장, 교육연구부장, 동국대학교 보건소장,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병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한침구학회 수석부회장, 한의사 국가고시 출제위원, 한의사 전문의 고시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원장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1994년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2년 침구과 전문의를 취득했다.

노덕현 기자

■ 태고종 경남전문강원 개원한 지현 스님

"초발심으로 경학 발전에 정진"

태고종 경남교구종무원(종무원장 지현)은 9월 6일 경남 마산 양덕동 종무원사에 태고경남 전문강원을 설립 · 개원했다.

태고경남 전문강원은 <초발심자경문>, <선문촬요>, <치문>, <서장>, <도서>, <선요>, <절요> 등 교과목이 2년 과정으로 진행된다. 전문강사 초빙 특강도 마련될 예정이다.

지현 스님은 개원식 후 "범패 범음을 배울 수 있는 곳은 많아도, 강원교육장은 흔치 않아 고민해오다 종무원 직영 강원을 세울 것을 발원했다"고 밝혔다.

스님의 발원은 스님이 경남종무원장 취임한 직후 종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남종무원 5개 분원회의를 열어 각 사암의 불편한 점과 강원 개설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시작됐다.

지현 스님은 "분원회의에서 예상외로 많은 종도들이 관심과 지지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스님은 "경남전문강원 개원 소식이 알려지자 승랍이 오래된 노스님도 다시 초심부터 배우겠다며 나서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종도들의 성원으로 30여 명 입장을 목표로 개원했던 경남전문강원에는 50여 명이 넘게 신청을 했다.


경남종무원은 9월 6일 종무원사에서 태고경남 전문강원 개원식을 여법하게 봉행했다. 법문을 하는 종무원장 지현 스님.

지현 스님은 "중생의 고통, 번뇌, 망상을 제거할 도가 없어 늘 빚을 진 심정이었다. 진리에 굶주린 저들에게 내놓을 양식이 없었다"며 "다시 출가하는 마음가짐으로 부처님 빚을 갚는다는 '초발심시변정각'을 강원의 수행목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태고종 승정 철화 스님, 원로의원 원공 스님, 前 경남종무원장 태우 스님, 종회의장 옥산 스님, 안정사 주지 지홍 스님, 나누우리 상임이사 묵원 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조동섭 기자

"함께 꿈꾸겠습니다"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정우식 후보



"대한불교청년회는 제가 사회에 첫 발을 들인 곳, 가장 뜨거운 애정이 있는 곳입니다. 대불청년들의 열정과 헌신의 에너지를 알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원을 세우고 실현하는 보살행을 실현을 위한 '불청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제26대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 중앙회장에 정우식 후보(사진)가 9월 3일 단독 입후보 했다.

"저는 만해 스님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불청을 더 사랑하는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불청은 민족 의식각성, 조국광복 실현이라는 만해 스님의 창립 정신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지 못해 열매를 못 맺고 있습니다. 창립정신의 재해석을 통한 비전을 제시하고 정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우식 후보는 "원을 세우고 실현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는 주인정신으로, 서원을 성취하는 도전정신으로,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구국구세정신을 갖게 된다"며 가장 근원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공감을 통한 기도의 생활화 및 서원 세우기, 만해박일장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격상, 청소년문학예술센터를 설립을 통한 만해 정신을 선양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공시설 수탁 및 위탁운영 등 사회복지에 참여하고, 만해봉사단 창립, 연꽃 생협 생활화 등으로 청년불자간의 조직구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우식 후보는 1969년 전남보성 출생해 1991년 동국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했다. 1996~2001년 대불청 조직부장, 조직국장, 정책기획실장 2001~2004년 조계사청년회 회장, 으로 일했다. 2005년 대불청 통일추진위원장, 2006~2010년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으로 일해 왔다. 이상언 기자

시와 음악이 흐르는 선운사의 가을

제3회 선운문화제

2010년 9월 25일(토)~26일(일), 고창 선운사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후원 고창군, BBS광주불교방송
문의 선운사 ☎063-561-1422 www.seounsa.org

선운문화제 주요행사일정

- 학술대회(제3회 백파사상연구소 학술세미나)
  9월 25일(토) 오후 1시
- 보은염 이운식
  9월 25일(토) 오후 4시~6시, 선운사 일원
  1500년을 이어온 은혜갚는 소금이야기(사등마을 주민 참여)
- 양희은과 함께 하는 산사음악회
  9월 25일(토) 오후 7시, 선운사 특설무대
  가수 양희은, 백영규, 시인 도종환 외 출연
- 제2회 선운 청소년음악놀이 경연대회
  9월 26일(일) 오후 2시, 선운사 특설무대
- 선운명차 시음회
  9월 25일~26일, 선운사 만세루
- 고창주민 일일장터
  9월 25일~26일, 선운사 일원
- 박물관 특별전(백파스님전, 석전스님 독립운동 자료전)
  9월 25일~11월 21일
- 범주스님 달마도 초대전
  9월 25일~10월 29일까지
- 고현(조선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현대불교회화전
  10월 30일~11월 21일, 선운사 만세루



고우 스님 "금강경은 세탁기"

불교인재원 '육조혜능 구결 금강경' … 매월 둘째 주 수요일 강좌

"<금강경>은 세탁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나와 상대 모든 것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나'라는 울타리를 세탁하고, 생각을 세탁하는 것이 <금강경>입니다. 세탁을 하고나면 무한향상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우 스님(봉화 금봉암)은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원(원장 엄상호)가 주최하는 선지식 초청 <육조혜능 구결 금강경> 첫 강의가 9월 8일 시작됐다.

스님은 "<금강경>은 시공을 초월해 삼라만상의 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답을 주는 경전이다"며 "<금강경>을 통해 고민의 근원을 해결하고 생각을 바꾸어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우 스님은 이번 강의에서 생활 속에서 불교적 가치를 발현시키고, 적용할 수 있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 세상에 태어나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민을 떨치고 깨달음에 이른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공을 초월해 근원적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세상은 부정부패와 혼란, 고통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과 관계없는 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생활을 떠나 불교를 하는 것은 토끼풀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현재의 불교를 반성하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근본적인 데서부터 해결해 주는 '살아있는 불교' '생활 속 불교'를 전해야겠습니다."

<금강경>은 많은 불자들이 수지독송 하지만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여전히 많지 않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고우 스님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쉽고 이해하기 좋도록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스님은 무엇보다 앵무새처럼 외우는 경전이 아니길 바란다. "<금강경>에 대한 이해 없이 아무리 외워도 소용없다"며 이해하고 실천하는 강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강의에서는 야부 스님의 게송 번역 강의도 함께 진행된다. 스님은 "야부 스님의 게송은 깨달음을 얻는데 가장 필요한 게송이다. 게송을 모든 사람과 나누고 싶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의에서 야부 스님의 게송을 해석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주관과 객관을 초월해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을 표현한 것을 함부로 말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는 주관과 객관이라는 상호체계로 이해하고 교육받고 살아왔습니다. 주관과 객관은 우리의 깊은 마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요.



고우 스님은 9월 8일 불교인재원 선지식 초청 첫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는 <육조혜능 구결 금강경>을 교재로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주관과 객관을 두고 사고를 하게 되면 자신의 문제해결을 통해 행복지려는 마음과 조건을 밖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밖에 있는 것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순기능과 역기능이 항상 있기 때문에 완전한 행복은 아닙니다. 주관과 객관은 무의식에서부터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불교는 무의식에서부터 주관과 객관을 나누지 않아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착각과 오해로 세상을 살아왔는지 알게 된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안으로 찾았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안에 있는 가치를 알고 밖으로 추구하게 되면 그것을 얻는데도 더 쉽고, 얻은 후에도 역기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이 보이고 이웃에 대한 걱정도 하게 되죠. 그것이 보살입니다. 이 세계의 뿌리, 근본을 이해하는 자리가 돼 개인을 벗어나 이웃과 함께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공부를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문을 통해 늘 세상 소식을 접하는 스님의 법문은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문제나 현상들을 불교적으로 해석 접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우 스님의 법문을 이해하기 좋다고 말한다. 스님은 앞으로 '나'에 대한 것부터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모든 분야에 걸쳐 생동감 나는 강의를 펼쳐갈 예정이다. 강의는 <금강경> 강설과 야부 스님의 송을 듣는 강좌로 매달 둘째 주 수요일 저녁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공연장에서 2011년 6월 8일까지 진행된다.

고우 스님은 양산 묘관음사 선원에서 첫 안거 이래 일생을 수선납자의 길을 걸어왔다. 1970년 전후에 봉암사 주지를 맡아 선원을 재건해 오늘날 조계종 종립 특별선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를 지냈다. 지금은 경북 봉화 금봉암에 주석하고 있다. 이상언 기자

'4대강 화쟁 토론회' 열린다

조계종 화쟁위 16일… 정부 · 정치권 · NGO 한자리에

화쟁으로 4대강 관련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 NGO 단체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 이하 화쟁위)은 9월 16일 오후 2시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4대강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4대강 화쟁 토론회'를 개최한다.

화쟁위 총무위원 법안 스님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많은 자리가 있었지만 정부, 여야, NGO 등 논의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한 적은 없었다. 찬성 · 반대의 극단적 논리가 아닌 화쟁 논법을 통해 4대강 관련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화쟁토론회에는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원희룡 사무총장이, 민주당에서는 이미경 사무총장이, NGO에서는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박진섭 집행위원장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혹은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을 검토 중이다. 토론회 사회는 시사평론가 고성국 씨가 맡는다.

토론회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사회갈등 및 국론분열 현실인식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총론적 대안 마련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기술 · 환경 · 절차적 쟁점 대안 모색 등이 주요 내용으로 진행된다.

토론은 정부, 여야, NGO가 4대강 갈등 해결을 위한 입장을 발표하고, 사회자의 문답토론, 위원장 도법 스님의 마무리 토론 및 제안 순으로 열린다.

화쟁위는 이날 토론회 등을 거쳐 9월말에서 10월초 '4대강 사업'과 관련한 1차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동섭 기자

전통불교문화원 개원 1년만에 흑자

매월 수천만원의 종단 지원금으로 운영되던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이 개원 1년 여 만에 흑자를 기록하는 등 안정 운영 중이다.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원장 혜오, 이하 문화원)은 9월 8일 서울 인사동 모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0년 전통불교문화원 연수 현황' 등을 밝혔다.

문화원 박희승 부장은 "지난해 6월 개원 이후 올해 8월 처음 연수수입이 1억원을 달성해 월 결산으로 첫 흑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날 문화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통불교문화원에는 8000여 명이 다녀갔으며, 매출액 4억 여 원을 기록했다.

문화원 이용건수는 조계종 총무원 · 교육원 · 포교원과 종립학교, 복지재단 등 교계 단체 및 시설에서 77건(57%)이었으며, 일반 기업 · 단체의 이용도 58건(23%)에 달했다. 또, 참선프로그램 등 자체 연수프로그램은 18건(16%)였고, 개인 등의 이용도 2%였다.

박희승 부장은 "올해 여름기간 중 자체 프로그램인 참선입문과정(6박7일)과 선재 스님의 사찰 김치 만들기 과정(1박2일)을 개설해 3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다"면서 "문화원은 연수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041) 841-5050 조동섭 기자

기고

달력에도 문화주체성 있다

예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대왕 세종'에서는 조선만의 역법(曆法)을 만들기 위해 세종이 장영실 등과 더불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날짜를 비롯한 시간 단위의 정확한 측정과 그 공유는 국가의 경영에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경일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해진 달력을 통해 지방마다 제각각 경축한다고 가정해보자. 어떻게 되겠는가. 꼭 들어맞는 예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서양에서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동양에 비해 천문관측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했던 고대 로마에서는 4년에 한번을 무조건 윤년으로 정했던 카이사르력(曆)을 천년 넘게 사용한 결과 본래 동짓날이었던 크리스마스가 며칠 늦어져 오늘날과 같은 12월 25일이 된 것이다.

조선에서는 동지에 임금이 신하들에게 편력(編曆)을 나누어주었다. 오늘날 절에서 동짓날 달력을 배포하는 것도 이와 같은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양력이 전 세계의 공통된 책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전통에는 없던 항목 하나가 새로 추가되었다. 요일 내지는 주간이라는 단위가 그것이다. 본래 일주일이란 단위는 유태인들의 <구약>에서 출발한 것으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하루 쉬었다'는 대목을 바탕으로 유태인들은 전통적으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아 하루 쉬며 신앙을 점검하는 날로 삼았던 것이다.

안식일이라는 관념이 서구사회 전반의 풍습으로 발전했는데, 다만 그 날짜는 일요일이 되었다. 말하자면 예수가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은 뒤 3일만인 일요일에 부활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주일의 순서는 아직도 많은 이들의 머릿속에서 자연스레 되뇌어지듯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며, 주말이라고 하면 당연히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말한다. 그리고 지금도 유럽의 달력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의 순서에 의해 제작되고 있고,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1950~1960년대는 당연히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기본이었다.

요즘처럼 일요일이 앞에 나오는 달력은 추정컨대 미국의 월가를 장악했던 유태인들의 발상이 아닌가 싶다. 어쨌든 미국을 비롯해 일본과 한국 등에서는 마치 유행인 양 일요일을 앞세운 유대력을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는 꼴인데, 생태적으로 유대교에 시시콜콜 대립각을 세우는 기독교인들도 그네들의 주일을 앞세우고 있는 요즘의 달력에 대해선 오히려 선호하는 감정이 더 많은 듯하다.

하지만 일주일에 대한 세계적인 기준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고, 삼성 등 대기업에서 전 세계에 유포하기 위해 제작하는 카렌다는 모두 월요일로 시작한다. 그리고 주40시간 근무가 보편화되어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주말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도 토요일과 일요일이 몰려 있는 본래대로의 달력이 더 실용적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1년의 업무를 주간단위로 설계하여 실행하는 회사에서는 전체 53주 중에 몇 번째 주를 따지는데, 그때의 주초는 월요일로 시작되고 일요일은 주말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업무용 다이어리가 월요일로 시작되어 일요일로 끝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월요일로 시작하는 달력 제작해야

사찰에서 배포하는 달력은 앞서 밝힌 이유로 타종교인들에게도 대단히 선호되는 물건이다. 이제 불교계 달력은 우리 문화의 주체성을 함양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다는 측면에서 일주일이 월요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조계종출판사에서는 월요일로 시작되는 달력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이영근 미디어84000 대표

12절 1,000원 (1,000부 이상)

정성들여 만든 불교달력 ▶ 최저할인가격으로 보답합니다.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 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국6절 붓다의 메아리


국6절 천진미소



국6절 맑고 향기롭게


국6절 가람의 향기


국6절 맑은 마음


12절 반야동자


12절 복 많이 받으세요


12절 부처님의 꽃


12절 반야심경


12절 세계의 명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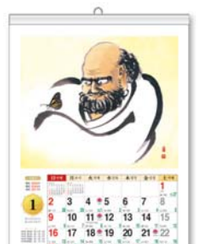

12절 들꽃의 향기가 머무는 산사


12절 관음도


12절 홀로있는 시간



12절 마음이 머무는 곳


38호 행복달마도 (한지)


30호 나를 다스리는 말 (다이어리)


29호 들에도 꽃이피네 (미니)



25호 동승일기 (미니)

달 력 할 인 가 격 표

국6절(大)	1,900원	1,400원(200부이상)
4*6 12절	1,600원	1,100원(200부이상)
차 걸 이	650원	450원(200부이상)
미 니	800원	450원(200부이상)
다이어리	1,000원	650원(200부이상)
한 지	2,200원	1,700원(100부이상)
탁 상	2,700원	2,200원(100부이상)

• 총 42 종의 달력이 있습니다.
• 대량주문시 사전 전화 문의 바랍니다.
• 달력 · 용품카다로그가 필요하신분은 (051) 515-8888로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동진기획 · 붓다쇼핑
검색창에 [붓다쇼핑]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대표번호 : (051)515-8888 H·P : 011-554-2988, 011-879-0889
Tel : (051)515-2988, 555-1087, 508-9377~8, 070-7425-0518
Fax : (051)508-0101 E-mail : dongjin8888@naver.com

대표전화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H·P 011-554-2988, 011-879-0889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비 서둘러야”

제1차 한·일 노인복지 국제세미나

저출산, 고령화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일본, 러시아 유럽 등에 이어 우리나라도 그 대열에 들어섰다. 국가차원에서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정책 집행을 위한 재정조달 방법을 비롯해 그 실효성은 여전히 의심스럽다.

연꽃마을(이사장 각현),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회장 각현)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를 주제로 제1차 한·일 노인복지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시행 2주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점검하고 우리보다 8년 앞서 시작한 일본의 개호보험과 비교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행사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일본의 개호보험의 전철을 밟고 있는 만큼 다양한 대안이 도출됐다.

각현 스님은 개회사에서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를 경험하고 있고, 개호보험(노인보험)도 10년 넘게 진행돼 왔다. 일본의 노인복지 정책과 복지 현장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운동 CD를 제작해 120개 경로당 약 1440명 어르신에게 시행해 노인 건강증진에 힘쓰고 있다.

한일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 동양대학 다카노 타츠아키

일본 개호(介護)보험제도시행 10년의 현황과 문제점

1970년 고령화율 7%, 1994년 14%에 이르면서 인구고령화(65세 인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은 2008년 기준으로 노년인구비율 약 22%, 합계특수출생률 1.37, 남성평균 수명 79. 59세, 여성 86.44세, 평균세대인원 2.62이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와 동시에 가족 규모의 축소, 고령자 부부만의 세대나 고령자 단독 세대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동시에 일본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제도 · 정책이 지방 분권화에 따른 기초자치체를 단위로 구성돼 복지 서비스에 대한 공적비용을 이용하면서 민간 사업자의 참가를 촉구하는 시장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개호제도는 고령화 개호에 대한 사회적 지원, 고령자 본인에 대한 선택, 재택간호 중시, 계호 예방 · 재활 치료 충실, 시민의 폭넓은 참가와 민간 활용 등이 기본이 됐다.

2000년부터 시행된 개호보험제도는 2006년 대폭적인 수정을 맞았다. 케어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후 예방 차원의 보살핌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개호보험 재원은 국가에서 50%, 본인이 50%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개호보험제도 시행 후 고령자 개호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일본의 고령자 개호 서비스는 행정기관과 사회복지법인만이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됐지만, 민간사업자에게도 개방되면서 지역 내 많은 서비스 사업자가 생겨났다. 그 가운데 영리법인의 비율은 2000년에 약 30%였던 것이 2009년 55%로 늘었다.

고령자의 존엄을 중시하는 의미에서 소규모 케어도 중시됐다. 치매그룹 홈에서는 개인실이 기준이 됐고, 9명 정도를 1단위로 삼아 개별성을 중시한 개호가 이뤄지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을 집단으로 한 케어가 아니라 개별성을 중시하는 개호가 중시됐다. 다만 이로인해 거주비 등 이용료가 늘어 저소득층에서는 이용이 어렵게 됐다. 또 전문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개호지원 전문가의 양성과정이나 역량이나 전문성에 대한 의문도 높아지고 있다.

개호보험제도는 시행 10년된 지금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개호보험으로 인한 급여비가 2000년 3조 6000엔에서 2008년 7조 2000엔으로 증가했다. 또 와상 및 식물인간, 치매 등 요개호자(要介護者)가 증가하면서 예방차원의 정책이 더욱 중요시 됐다. 제도적으로 재택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중증환자나 종말기를 보내는 이들을 위한 재택 지원체제가 불충분해 시설입소 희망자만 늘어났다. 종사자 확보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 다른 직업에 비해 수입이 적어 젊은 종사자들이 떠나고 있다. 또 봉사자들의 노인 학대 증가, 저소득자의 부담 증대, 치매 고령자에 대한 대책 불충분, 산간지역이나 낙도 등 인구가 적은 지역에 서비스 부족 등은 개선돼야할 점이다. 앞으로 일본개호제도는 재택서비스를 집약적 · 효율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고령자 주택을 늘려 고령자 집단 거주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고령자의 개별 · 소규모 케어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 루터대 복지재활대학원 이선영

한국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은 사회보장제도시행 역사가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짧다. 충분한 준비 기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5대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 지 2년이 됐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시설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22만 여 명(2009년 9월 집계)이 보험에 들어 방문 요양, 목욕, 간호, 주 · 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들 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90%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건강상태 호전은 물론 가족부양부담도 경감되고 있다.

또 개인 · 영리기업도 장기요양기관운영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공공주도형 서비스 공급시스템에서 다원적 공급시스템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인 평가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시민과 노동계는 급여 대상자를 중증으로 제한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 하고 있다. 보험비의 80%가 본인부담으로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 또 비영리 법인의 정체성 혼란, 운영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방적인 등급판정, 전문성 부족, 일반적 운영, 변별력 실패 등을 지적받고 있다.

또 2009년 45만 명의 요양보양사가 무차별적으로 양산되면서 열악한 처우, 허위 및 부당청구 등이 만연하고 있다. 주요 쟁점으로는 적용대상자에 장애인이 배제된 점, 요보호인정범위가 제한된 것이다. 절대적인 시설인프라 · 공적 인프라의 부족과 지역 간 시설 인프라의 불균형도 지적받고 있다.

중앙정부의 인프라 정책 실패로 적정수의 8배가 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난립해 기관간 과다 경쟁과 편법행위가 성행하는 문제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설치시 허가제 강화, 기존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강화, 지역별 장기요양수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설 수요의 5~10%를 공공부문에서 소유 · 운영하면서 공공부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설 인프라가 현저하게 부족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시설을 소유하고 민간에 운영위탁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요양보호사 인력양성 및 운영부실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허가제 전환의 엄격한 원칙적용과 감독, 교육과정 수료 후 국가자격시험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환경도 보완해야한다. 임금, 불안한 고용형태, 서비스 수요의 불안에 대응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장기요양보험제도안에서의 책임도 명확해야 한다.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이에서 공공분야에서 책임성에 대한 애매한 법률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시설 내 학대와 관련해 약물사용 등에 관한 조항은 아직 명문화 되지 않았다.

특히 재가서비스의 제공, 지역주민의 참여,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의료보건복지연계서비스 등 지역주민과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참여와 책임이 배제됐다. 행정관리, 행정적 효율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해야한다.

tip: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사회보험제도이며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질병을 가진 64세 이상이 대상이다. 소득과 상관없이 증등증(1~3급)의 요보호상태의 판정을 받아야 급여서비스가 제공되며 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부담으로 운영된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 간호, 주 · 야간 보호, 단기보호서비스가 있으며 시설 급여는 노인의 의료복지시설에 수급자가 입소해 신체활동지원, 기능회복훈련을 제공 받을 수 있다.

건강한 노년생활 만들기

 # 동양대 스즈키 테츠로

노화예방에 운동이 효과를 주는지 불분명

신체기능의 노화와 운동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 되고 있지만 그 기능이 수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는 지속적인 연구대상이다. 신체운동은 노화예방이 된다는 연구가 많다.

하지만 신체 운동 시 급사하거나 뇌졸중, 심근경색 등이 발병할 위험성이 높다. 또 신체운동은 활성산소의 발생을 일으켜 수명을 저하시킨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노화예방에 반드시 운동이 효과를 가져 온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적당하게 운동을 실시하면 노화예방에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다.

 # 동양대 요네다 이꾸오 등

고령자의 사회참가를 위한 인프라 정비

고령화사회에서는 사지의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라도 안전하고 편하게 외출할 수 있는 인프라 정비가 중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편안한 도로정비 등의 사업과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사람들을 위한 이동지원 기기의 정비 두 가지가 있다.

지팡이, 보행기, 휠체어 등이 대표적 기기다. 일본에서는 보행기능이 저하된 고령자를 위해 낙상위험이 적고 하지를 움직이면서 안전하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휠체어와 자전거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이동 지원기기를 개발 진행하고 있다. 또 휠체어나 유모차 등의 이동지원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도 ‘걷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생활주변 도로 정비 등 사회 인프라를 정비해야한다.

고령자의 외출 기회 증가는 신체 · 건강의 촉진은 물론 개호 예방효과, 의료비나 개호비용 절감, 고령자의 소비의욕 증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가능하다. 고령자가 사회에 참여하기 쉽도록 하는 인프라 정비는 사회의 여러 가지 면에서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 강남대 홍승연

고령자 기능별 맞춤형 건강운동관리사 파견사업

기존 노인운동사업은 기관 간 비효율적 중복운영, 노인운동전문강사 섭외의 한계, 장기요양보험 등급탈락자에 대한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노인운동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제3의 조직 요구, 2010 서비스 건강관리법 시행여부에 따른 사전 바우처(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전표)사업으로서의 성과평가로 이뤄졌다.

노인운동사업은 용인시 거주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2009년 기능별 맞춤형 건강기능관리 서비스를 강남대 강남실버건강청년사업단, 보건복지가족부 청년사업단 지원 사업, 경기도 용인시 등에서 함께 진행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인력 창출과 함께 노인의 건강으로 참여 어르신의 기능 및 심리, 생리지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정리=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The world Zen Buddhist Cultere Exchange Federation Incorporated association
社團法人 世界禪佛教文化交流聯盟

G20 성공개최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세계선불교 문화교류 대법회**

우리는 본래 부처입니다. 자기를 바로봅시다.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부처님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선불교문화교류를 통하여 인류평화를 지향합니다.
본 연맹에서는 세계 각국의 선지식을 갖추신 고승대덕 스님을 모시고 G20성공개최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세계선불교문화교류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무루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스님50여명, 국내스님500여명, 불자회원3500여명 참가예정)

○ 일시 : 2010년 09월 27일 월요일 13:00부터
○ 장소 : 부산광역시 KBS 문화홀 특별법석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63번지 KBS홀)
○ 주최 : (사)세계선불교 문화교류연맹
○ 주관 : (사)세계선불교문화교류연맹 봉행위원회
○ 후원 : 불교TV방송,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일붕신문사
(사)세계불교평화재단 황정사, (사)6.3동지회청년봉사단
(사)대한불교범종단원로지도자연합호국국사단

초 청 인

총 재: 영공 도성 (전)해인사 주지, 현 태종대 태종사 회주)
명예총재: 대 원 (중국 육조사 방장, 호국국사단 명예총재)
부 총 재: 혜 철 (사)한국불교원각종종정, 호국국사단 명예총재)
의 륜 (사)한국근본불교조계종 창종주, 전국일붕문도회중앙회장)
이 사 장: 해 공 (영천 충효사 회주, 호국국사단 명예총재)
이 사: 무진본, 동봉, 원덕, 능인, 혜산
대 회 장: 동 봉 (조령산 흥천사 조실, 호국국사단 내무부총재)
부대회장: 해룡 박지곤 (사)세계선불교용황종, 용황사 창종주)
봉행위원장: 황 정 (사)세계불교일화종 종정)
봉행부위원장: 혜련 (부산 천불암 주지), 원주 (울산 무상사 회주)
준비위원장 : 만 주 (한국불교대불종총무원장)
집행위원장 : 이붕 서병열 (일붕신문사 발행인 겸 대표)
사무총장 : 와룡 김대식 사무처장 : 금당 배성복

봉행위원: 해운(달마정사), 청운(촛불암), 청타(관음정사), 청정(원덕사), 청정심(대법사)
지견(비마사), 법정(법정사), 지원(현사장), 선행심(약천사), 수안(삼불정사)
연화심(미륵암), 청련행(천룡사), 자문(자문사), 보선(성불암), 혜덕(문수암)
혜성(보리암), 보성(보성사), 불두화(수월정사), 청정심(대법사), 수월(락서암)
불심행(영선암), 보성(무학사), 수인(무학사), 혜원(수덕사), 고담(불지사)
관연(광천사), 혜륜(혜륜정사), 혜민(수월사), 지광(무상사), 성담(용곡사) 외 2백사암

봉행위원회사무국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 730번지 전화 : (053)767-8551 핸드폰 : 010-3501-3005, 010-6780-9190 FAX : 053)765-4814 Email:koreakds@gmail.com

‘조선불교통사’ 93년만에 한글화

동국대 출판부 역주편찬위원장 법산 스님 “불교학 · 인문학 발전 일대 전기”

불교 종합사서(史書)로서 가장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가 93년 만에 한글로 완역됐다.

동국대 출판부는 9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역주 조선불교통사>(전 8권) 출간을 밝혔다.

<조선불교통사>는 상현거사 이능화가 편찬 저술하고 육당 최남선이 교열한 한국불교 최초의 종합역사서이자 불교백과전서이며, 선사들의 저작물을 담고 있는 불교전집이다.

<조선불교통사>는 372년 순도(順道 · ?~?)가 고구려에 불교를 전한 이래 <불교통사>의 원고가 마무리되는 1916년까지 1544년에 이르는 한국불교사를 집대성한 역사의 보고(寶庫)다.

역주편찬위원장이자 연구책임을 맡은 법산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은 “이 책이 한문으로 기술 돼 있어 한글세대가 자료를 활용해 연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인식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에서 2002년에 역주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역주 사업을 진행해 8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선불교통사>는 일본, 중국, 세계의 불교학자들이 한국불교 연구에 있어 필수적인 자료로 인식할 만큼 독보적인 자료다.

또한 문학 · 사학 · 철학 등 인문학 연구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인용되고 있다.

특히 <불교통사>에 실려 있는 고승들의 비문과 사적기(事蹟記)들은 일차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법산 스님은 “<조선불교통사>는 그 방대한 분량과 난이도 때문에 부분적인 번역서가 나오거나 연구논문에 일부 발췌 인용되긴 했으나 그 전체를 본격적으로 조망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에 완역된 전집의 출간으로 인해 불교학 발전의 일대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선불교통사>는 상편(불화시처) 2책, 중편(삼보원류) 1책, 하편(이백품제) 3책, 원문 교감본 개정판 1책, 색인집 1책 등 총 8권의 책으로 구성돼 있다.

‘불화시처’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락국, 고려, 조선, 조선총독부 시대까지의 한국불교사를 편년체 형식으로 기술했다. ‘삼보원류’에서는 인도와 중국 불교의 역사와 종파, 불조(佛祖)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백품제’는 불교에 관한 다양한 관심사를 망라하고 있다.

<조선불교통사>의 내용 중에는 이 책에만 수록돼 있는 유일한 자료가 있다. 바로 ‘미륵불광사 사적(彌勒佛光寺事蹟)’이다. 여기에는 겸익의 인도 구법과 범본 율장의 전래에 관한 내용을 싣고 있어 백제불교의 계율과 그 국제적 위상을 밝히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된다.

<조선불교통사>의 내용 중 3분의 1은 조선시대 불교를 다루고 있어 얼마 되지 않은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학계에 큰 자양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집에서 이능화가 조선의 선을 임제 적통설로 지지하고 조선 후기 선문 논쟁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그가 직접 세목으로 추린 주요인물은 266명으로 고구려가 17명, 백제 20명, 신라 65명, 고려 71명, 조선 93명으로 조선시대 인물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불상과 탑 등의 유물 213건(고구려 4건, 백제 4건, 신라 5건, 고려 60건, 조선 90건)을 세목으로 추려 적시했다.

이 밖에 <조선불교통사>는 훈민정음의 어법 원류가 범어(梵語)에서 왔다는 논지를 펴는 등 훈민정음의 창제 과정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김진무 부교수는 “이러한 의견은 일찍이 국어학계에서 주목한 바가 있지만 그 전문이 번 · 소개되는 것은 이 전집이 처음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관련연구자들이 한 번도 언급조차 하지 않은 석굴암 조성에 관한 내용을 비롯해 불교미술사 분야의 다양한 기록과 자료가 수록돼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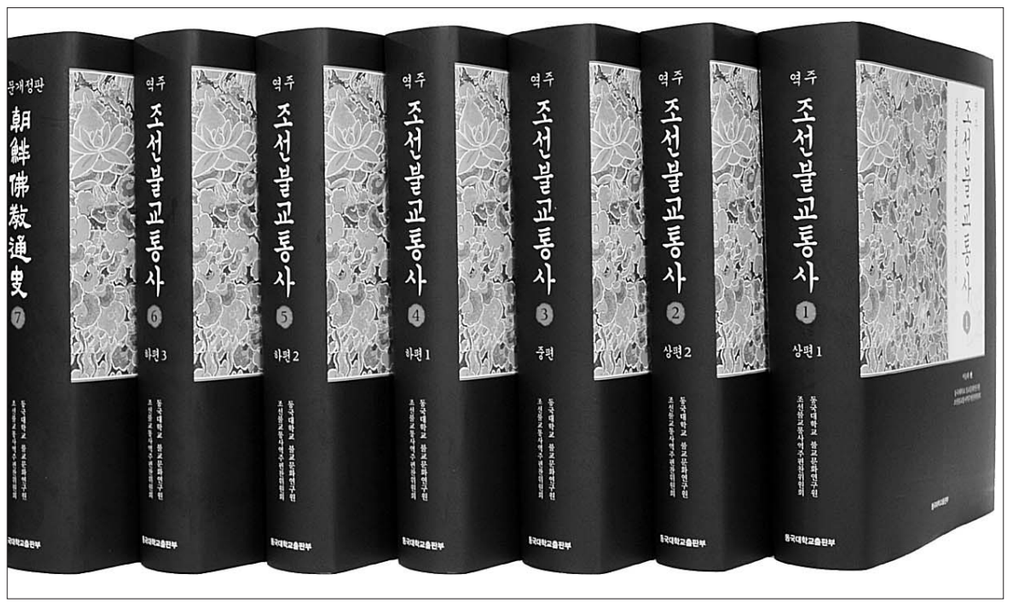
전집에서는 한국종교를 불교, 신교(神敎), 도교, 유교, 기독교 등 다섯 개로 파악하고, 한국사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불교 · 유교 · 기독교를 비교종교학적인 시각에서 비교 · 고찰했다.

이 외에도 민간에 전래되거나 역사서에 언급된 사찰들의 연기(緣起)설화, 승려와 관련된 신이(神異)한 괴담, 각종 민속과 풍습, 제도 등이 다양하게 수록돼 문화콘텐츠의 보고로서 활용가치가 높다.

한편, <조선불교통사> 역주사업은 2002년에 한국연구재단의 국학분야 기초학문육성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이래 법산 스님을 연구책임으로 해 효탄 스님(조계종 문화부장), 김진무 부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한상길 연구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김치온(동국대 강사), 류화송(충남대 강사) 등 박사급 연구 인력이 역주위원으로 참여했다.

김진무 부교수는 “난해한 금석문과 방대한 불교문헌자료로 이루어진 문장의 번역과 주석, 해제연구에 5년의 기간이 걸렸으며, 원문 교감과 증의를 거친 오탈자 교정과 통일 윤문, 편집 등에 이르기까지 총 8년에 걸쳐 심혈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이능화가 편천하고 최남선이 교열한 <조선불교통사>는 고대부터 고려 · 조선 · 저술 완성 당시인 근대(1916년)까지의 한국불교사를 총망라하고 있다.

훈민정음 창제 · 석굴암 조성과정 밝혀 주목

이능화 저술 · 최남선 교열한 문화의 보고

조선후기 불교 쇠퇴 아닌 활성화

김용태 교수 “식민시대 부정적 인식이 연구 전형으로 자리잡아”

불교사 다시 써야
현존 사찰 대부분
조선 후기에 중창

조선후기 불교는 성리학에 의해 억압받고 쇠퇴를 거듭했다는 부정적 선입견이 일반인은 물론 학계에서도 공통의 의식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학계에서는 조선시대에 불교가 주류질서에서 완전히 밀려났음을 전제로 ‘한 편의 불교 쇠망사’라고 규정했고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이후 연구에서 하나의 전형이 됐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조선후기 불교의 실상은 자활의 모색을 통해 존립을 유지했고 전기에 비해 훨씬 활성화 된 모습을 보였다. 현존하는 사찰의 대부분은 조선후기에 중창, 중수됐고 불서의 간행이 빈번히 이뤄졌으며 수행체계와 법통의 정립, 강학의 성행과 교학의 전수, 사원 경제의 기반 확대와 상속, 염불 정토신앙의 성행 등 쇠퇴나 멸절로 볼 수 없는 다양한 양상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조선시대 불교의 쇠망 · 쇠퇴론이 지배적으로 자리 잡았을까.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김용태 연구교수는 최근 발간한 학술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임제법통과 교학전통>(신구문화사 刊)에서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입론은 식민지기에 형성됐고 ‘억압과 쇠퇴’라는 부정적 인식이 이후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교수에 따르면 조선시대 ‘숭유배불’ 정책이 집중 부각된 것은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개괄적 정리와 성격 규정 및 자료수집정리가 진행되던 1910년대 초부터였다.

1911~1912년에 걸쳐 <일본 불교사학(佛敎史學)>에 연재된 후루타니 기요시(古谷淸)의 <조선이조불교사개설(朝鮮李朝佛敎史槪說)>이 그 효시다. 여기서 후루타니 기요시는 부녀자 및 산촌벽읍의 서민 신앙을 조선시대 불교의 특징으로 주목했다.

김 연구교수는 “조선불교의 부정적 인식은 이후 연구에서 하나의 전형이 됐다. 역사학, 불교학, 종교학 등 분야를 막론하고 억불 정책, 사상의 쇠퇴, 기층의 기복신앙에 초점을 두어 조선시대 불교를 설명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김용태 연구교수

이외에 다카하시 토오루라는 일본학자는 1929년 <이조불교>를 집필해 체계적인 조선 사상사의 구축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의 불교사 인식, 나아가 한국사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부정적인 편견이 깔려 있었다. 김 연구교수는 “다카하시는 <이조불교>에서 ‘한국불교가 중국불교의 이식일 뿐이며 그 내용이 소략하고 제한적’이라고 해 사상 면에서 한국불교의 가치를 평가절하 했다. 나아가 한국불교의 역사적 특징을 ‘의타성’과 ‘정체성’으로 규정했고 사회적, 사상적 측면에서 불교가 크게 위축됐음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교수는 책에서 쇠퇴론적 시각의 시기구분론과 교학의 침체기라는 고정관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다카하시는 불교가 억압을 받기는 했지만 그나마 국가의 공인을 받아던 성종대까지를 제1기, 공식적 폐불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교법이 아직 쇠퇴하지 않았고 명승도 다수 배출된 연산군에서 인조대까지를 제2기로 보고 효종대 이후 제3기는 교세가 완전히 몰락했을 뿐 아니라 승려가 경멸을 받고 불법이 없어진 시기로 규정했다.

이 3단계 시기 구분론은 당시는 물론 이후 연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김 연구교수는 “3단계 시기 구분론이 과연 역사적 실재를 반영한 타당한 인식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그것이 역사성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식민지기의 선험적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마땅히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연구교수는 조선후기 나타난 불교 활성화 양상을 반영했다. 조선 개국 후 성종대인 15세기 말까지를 억불기, 16세기 전반의 연산군과 중종대를 폐불기, 양종이 일시적으로 복립되고 임진왜란을 겪었던 16세기 후반을 존립모색기, 17세기 이후를 존립기로 나누는 것이다. 즉, 쇠퇴론과 부정론을 대신해 존립의 실상과 시대상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조선후기 불교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김 연구교수의 견해다.

<이조불교> <조선불교사>등에서는 조선시대는 신앙에서만 불교의 특색을 찾을 수 있으며 명목상 선종을 위주로 한 결과 교학은 침체되고 불교가 시대사상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했고 이를 쇠퇴와 비주류의 중요한 논거로 삼았다.

이에 대해 김 연구교수는 “조선시대에 성리학이 주류사상이 된 것은 당시 동아시아 사상사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따라서 보편론의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이지 유독 조선시대 불교에만 교학 쇠퇴와 비주류의 멍에를 뒤집어씌우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정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연구교수는 교학의 쇠퇴라는 전제하에 조선시대 불교를 선종 위주로, 그것도 간화선 수행 전통만을 부각시키는 학계 일반의 이해는 전통의 외연을 크게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음을 지적했다. 김 연구교수는 “조선시대 불교는 고려불교와 근현대불교를 이어주는 정체성의 가교로서 그 의미를 지니며 선과교, 신앙과 의례 등 다양한 방면의 전통과 그 계승을 논할 때보다 풍요로운 한국불교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연구교수의 <조선후기불교사연구>는 <이조불교>이후 조선시대 불교사 전체를 조망한 첫 개설서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문제 제기와 상식의 재고, 자료 발굴과 새로운 사실의 규명, 인식과 관점의 전환 등 일정한 연구사적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나은 기자

제39차 운문승가대학 동문회 및
학장스님 법문집 출판기념회

황금빛으로 물든 은행나무가 여러 선 · 후배스님들을 초대합니다.
동문스님들을 모시고 운문도량에서 아래와 같이 동문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동문회에서는 학장스님의 법문집과 서간문 및 자서전 출판기념회가
있을 예정이오니,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일 시 | 불기2554(2010)년 9월 27일 오후 2시
장 소 | 운문사 삼장원
안 건 | 운문사 모교발전의 건
문의전화 | 054)372-8800 (운문사 종무소)
010-3045-4660 (동문회장)

운문승가대학 총동문회장 행법 합장

청암사승가대학 총동문회

삼보에 귀의합니다.
유난히 무덥고 장마가 길었던 여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문여러분 청안하십니까?
잠시 일상을 접어두고 지쳐 있는 심신을 정겨운 선후배님들과 함께
추억을 되살리며 청암의 품에서 좋은 날 보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올해부터 동문회 날짜가 변경 되었습니다.

■일 시 : 불기2554년(2010)년 10월2일 토요일 5시
■장 소 : 청암사
■총동문회의 : 저녁 7시
■전 화 : 054)439-9511 (청암사)

청암사승가대학 총동문회장 도림 합장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불교를 믿고 불교의 교리를 배우고 싶지만 제가 느끼는 불교의 근본적 교리와 현재 행태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불교는 깨우침의 종교라고 하는데 막상 절에 가보면 돈 많이 벌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자식 잘되게 해달라 등 기복 신앙이 대부분입니다. 스님들 또한 열심히 절하고 부처님께 소원 빌면 뭐든지 이뤄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옳은 불교의 모습이고 스님들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은 분명 신이 아닌 인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불교 경전이나 말씀을 보면 신격화 돼 있어 보입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면 좋을까요?

세 번째는 돌아가신 분 좋은데 가라고 천도재를 지내거나, 아이들 대학 좋은데 가라고 연등을 사서 다는 등 다양한 행사가 있습니다. 과연 돈 들여 천도재를 해야 영혼이 좋은 곳을 가는지, 등을 사서 달아야만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로는 부처님 사상 말고도 예수의 생애와 사상도 본받을게 많아 성당이나 교회에 나간다면 불교적 교리로는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일어나고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결과는 과거에 본인이 지은 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연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재와 미래의 결과를 바꿀 수는 있나요?

부처님 말씀과 절에서의 신행 형태가 너무 달라요

불교의 근본 가르침 연기법을 설하는 방편입니다

A 불교는 깨우침의 종교입니다. 기존의 한국불교는 '치마불교다, 기복신앙이다'라는 말들로 표현됐습니다. 그 이유는 유독 여성 불자가 많았던 탓에 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절'이라는 기도형식으로 기원했습니다.

예전에는 요즘처럼 경전 번역서가 드물었으며, 교리강좌 또한 흔히 생기는 기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공부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행(行)'이 중시되는 불교핵심 사상으로 인해 정신과 마음을 모아 절을 하며 부, 건강,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는 원을 성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더불어 스님들이 "열심히 절하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하는 말들도 이러한 뜻이 숨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근본 가르침은 연기법인데, 온 힘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면 우주법계에 그 뜻이 전달돼 성취된다고 믿습니다. 즉 부처님이 들어 주시는 것이라는 말보다도, 그러한 진리를 깨우치신 그 가르침에 의하자면 발원이 있고 성취하려는 간절한 소망과 그에 따르는 생활의 정화와 노력이 포함돼 소원이 성취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에 부처님이 들어 주신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크고 영원한 진리를 '원인과 결과'라는 법칙으로 발견하시고 49년 동안 설법을 하셔서, 후세에 그 가르침을 남긴 까닭에 우리는 신격에 해당하는 성인으로 받드는 것입니다.

또 사찰에서 사후 영혼의 평안을 위한 위령제인 천도재를 지내는데, 이는 우주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여러 단계의 실상세계로 혼령을 잘 보내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대학 합격을 위한 성취기원으로 다는 연등은 불교에서 미혹한 중생들을 위해 깨우쳐 밝힌다는 의미로 다는 것입니다.

내담자께서는 불교정신을 공부하면서도 예수정신에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부처님과 예수님은 인류의 4대 성인에 속하는 위대한 분들이시며, 궁극적인 가르침은 인류구제를 위한 헌신과 사랑의 삶을 실천하신 분이라는 점에서 더하고 덜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연관되는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흔히 불교라고 하면 '업'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과 부정적인 인식으로 강박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나쁘거나 좋은 원인이 낳은 결과를 '업'이라고 합니다.

현재라는 시점에서 과거의 결과로 나타난 업을 '알아차리는' 통찰력이 열리는 순간, 지금 할 일로는 긍정적인 의식 또는 행위로 미래의 '업'을 변경시키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사랑 듬뿍 퍼드리니, 어르신 미소 가득

희망법당 탐방

자비신행회 어르신식당



자비신행회는 매주 화요일 장애인 ·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점심공양을 하고 있다. 자비신행회가 어르신에게 음식을 듬뿍 담아주고 있는 모습.

"어르신 잘 지내셨어요. 건강하시고요?"

서명희 팀장의 반가운 인사로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 '어르신 식당'은 시작한다.

'어르신 식당' 자비봉사자들은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음식을 준비한다. 담당 팀장은 장날 좋은 식재료를 미리 준비한다.

이날 준비한 음식은 모두 6가지. 닭볶음, 도토리묵, 김치, 미역국, 오이무침, 전, 깻잎볶음. 어르신 식당은 매일 독거노인을 위한 밑반찬을 만든다. 하지만 화요일은 어르신들이 오는 날이라 손이 더 간다.

오전 11시. 이른 점심시간이지만 칠순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걸어서 혹은 버스를 타고 일찍부터 식당에 들어선다.

좌석이라야 채 70석이 되지 않는 좁은 식당은 200여 어르신들의 왁자지껄 웃음과 안부를 묻는 목소리에 활기가 넘친다.

오전 11시 30분. 배식이 시작된다. 어른들 손에는 저마다 번호표가 있어 혼잡하지 않다. 음식은 부족함이 없이 드린다. 특히 할아버지들은 식판위에 음식들을 가득 담아서 드시기도 한다.

이곳 어르신 식당은 음식이 워낙 맛있고, 친절하기로 소문이 나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후원금과 후원물품으로 음식을 만드는 신행회에서 이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속사정이 있다. 그래서 심사를 해 70여 명이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자격은 개별 면담을 통해 65세 이상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 장애인, 독거노인을 우선으로 했다. 더 어려운 어른들에게 점심을 공양하려는 실무자들의 마음이다.

매주 화요일 식당에서 만나는 조금례(70 · 영) 할머니는 "여그가 음식도 맛나게 주고 정갈해서, 특히 봉사하는 분들이 친절하고 여간 따북스럽게 해준다요"라며 칭찬일색이다. 할머니들은 "불교의 자비를 바탕으로 실천하는 단체라 더욱 그렇다고 한다"고 말한다.

2009년에는 총 47회, 2500여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여기에는 800여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보탰다.

최근 자비신행회는 이 어른들을 위한 감동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소원 들어주기'이다. 어른들이 꼭 해보고 싶은 소원 한가지를 들어주는 행사였다.

조금례 할머니는 "여그 있는 형님은 오래된 냉장고를 바꾸고 잡다고 혀서 냉장고를 바꿨다요. 또 저그 형님은 간단히 집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게 전자렌지가 필요하다고 혀서 설치해 줬다요. 너무 감사하지요"라고 소개를 한다.

어른들의 맛있는 점심이 한창일 때, 식당의 한쪽에서 편한마음 한의원에서 한방의료봉사를 진행했다. 다른 날에는 국악공연, 미용봉사 등도 진행된다.

어르신 식당을 찾는 어른들에게는 또 다른 혜택이 몇 가지 있다. 매년 봄, 가을에 나들이, 어르신 생일잔치,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집에 경사가 있으면 떡과 과일을 보내드린다.

어르신이 원하는 것 풀어주는 '소원 들어주기' 인기

일주일에 한 번 여는 어르신 식당 매일 하고 싶어

1994년부터 활동하며 한번도 빠짐없이 자원봉사를 한 정성순(54 · 안락행) 불자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곁에서 자라서인지 여기에 오시는 어른들이 저의 부모님처럼 느껴진다"며 "고향 낙안 민속마을에 있는 종가댁 장녀로, 어려서부터 배운 음식 손맛을 이곳에서 어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자비신행회에는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사업과 어르신 식당 운영으로 매일 1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나와 음식을 장만한다. 봉사자들은 주로 광주지역 사찰에서 참여한 불자들로 그들의 변함없는 헌신 봉사는 이 지역에서 유명하다.

자비신행회 사업을 총괄하는 김영섭 사무처장은 "향후 어르신 식당을 매일 운영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하지만 약간의 후원 외에 자부담으로만 운영되는 한계가 있어 매일 운영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어르신 잘 드셨어요?" 손에 사탕을 꼭 쥐어주며 배웅을 하는 서명희 팀장을 뒤로 하고 어른들은 비로소 식당문을 나선다.

어르신들의 식사가 끝날 무렵 가톨릭 시각장애인 단체인 '막달리나의 집' 식구들이 식당을 찾았다. 벌써 1년째 이곳과 연을 맺어 점심을 먹는다고 한다.

식사가 끝난 오후 1시 반 무렵 자원봉사자들은 설거지와 청소 후 늦은 점심 식사를 했다.



광주지역 사찰 신행단체 불자들이 나와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오전부터 바쁜 손놀림으로 피곤했을 법한데 봉사자들의 얼굴에는 즐거움의 웃음이 나왔다. 자비의 실천에서 오는 법희였을 것이다.

한편 자비신행회는 재래시장과 광주공원에서 원각사, 연화사, 광주국체청, 원효사, 금선사, 문빈정사, 정안사, 여성불교회, 자비나눔봉사단 등과 같이 진행하는 '십시일반 밥차'를 비롯해 한꽃차문화아카데미와 차봉사 화엄학림, 불교호스피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에서 진행된 재가불자 리더스 클럽을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이곳 법당에서 실시하고 있다. (062)234-0090 후원계좌 광주은행 076-107-013366(예금주 (사)자비신행회)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중국 광동 육조사 (부설)

관 혜능 국제불교대학 개강안내 관

본원에서는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도제 양성과
불교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강함을 알려드립니다

특전 : 우수학생은 장학금 지급 및 중국 광동 육조사 강원과 선원에 유학할 수 있으며 특히 육조 혜능 대사의 법맥을 받을 수 있는 수계 법회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본원의 학생이나 회원은 중국을 비롯한 대만, 싱가폴, 태국, 티벳, 일본 등 불교국가와 갖게 되는 각종 친선교류 행사에 동참할 수 있으며 세계선불교 육조선 회원으로 명실상부한 국제선불교 회원으로서 불교계의 다양한 문화와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원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용암리 904번지 전화 033)766-2556 팩스 766-2557
■ 분 원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1동 531-1호 전화 010-2878-3380

중국 광동 육조사 (부설) 혜 능 국 제 불 교 대 학

개강일에 육조사 대원 방장님 참석 특강

■ 개강일시 : 2010년 9월 27일(월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원주 혜능 국제불교대학 본원

學 科	定員	日 時	講義時間	教 授
佛教科學	25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2시간	송위지 교수, 김방룡 교수(육조단경)
作法	25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2시간	청암, 법붕, 종섭스님
佛像造成	25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5시간	불모 금봉스님
書畵	25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시간	청곡(이한동), 김일동(前승가대교수)
佛畵	25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3시간	자비불교연구원 원장
陶藝	25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시간	혜오도예연구소, 오석경도예가
風水地理	25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2시간	한국 풍수지리학회장
命理	25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2시간	자인 박기정
觀相學	20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2시간	한국풍수지리학회장
相談心理學	20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2시간	소용주 사과나무심기, 상담심리연구소소장
文藝創作學科	20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2시간	김창직(前경기대 교수), 문예사조 대표
巫俗學	20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2시간	한국민속예술연구원

병불련 자비나눔 孝 의료봉사



전국병원불자연합회는 연우와 함께, 정읍시와 함께 9월 5일 정읍 내장사에서 무료의료봉사를 진행했다. 내장선원에서 한방진료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



내장사 주지 지선 스님(왼쪽에서 두 번째)이 어르신들의 진료 현장을 돌면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물어보고 있다.



의료봉사와 함께 미용봉사가 경내에서 이뤄졌다.

"건강하세요" 한마음 따뜻 의료봉사

어르신 1000여명 진료 "아따 시원하네"

"지역사회 위해 내장사를 효행 도량으로"

"아따 어째 지금 왔는가? 시방 새벽부터 기다렸는디 늙은이를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 쓰겠는가~? 디져뿔꾸만."

오랜 기다림 끝에 터져 나온 원망과 안도의 핀잔이 쏟아졌다. 9월 4일 전북 정읍 내장사에는 1000여 어르신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서 있었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류재환, 병불련)는 불교의료지원단 반갑다연우야(총단장 구자선), 정읍시,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와 함께 정읍 내장사(주지 지선)에서 주최하는 '자비나눔 효(孝) 의료봉사 행사'를 진행했다.

진료 과목은 내과, 통합의학과, 한방, 치과, 발마사지, 혈액 및 심전도 검사, 이미용 등이었다. 무료 의료봉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내 어르신 1000여 명이 사전 예약을 하고, 행사 당일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내장사를 찾았다. "거기~ 내가 먼저 왔어. 그렇고롬 쓰면 되겠는가!"라며 성을 냈다. 모양은 줄이지만 그 안은 전쟁이었다. 서울에서 의료봉사 팀들이 온다는 소식에 새벽부터 기다리던 어르신들의 당연한 짜증이었다. 10시부터 진료를 시작한다던 봉사팀은 11시가 훌쩍 넘어서야 도착했다. 70~80대 어르신들이 3시간 여를 땡볕에 서서 기다리기만 했으니 그럴 만도 했다.

추석 전 벌초 차량으로 꽉 막힌 고속도로를 뚫고 새벽부터 달려온 봉사팀은 잘못한 것도 없이 죄송한 마음에 점심은 생각도 못하고 봉사를 시작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시작된 곳은 한방의학과와 발마사지였다.

"어이~! 내가 처음이여. 하하하. 그래 그래, 맞고 갈게. 기다려. 같이 가자구!"

첫 진료를 받는 어르신은 침 맞을 준비를 하면서 전화로 자랑했다. 있던 병도 싹 가신 듯했다. 진료는 시작됐다. "머리가 먹먹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랫배가 아프기도 하고, 무릎은 시리고 안 아픈데가 없어요."

"네. 어르신, 오늘은 한방치료 받고 다음에 아프면 정형외과로 가세요. 오늘 드리는 약은 아플 때 한 알만 드세요. 굉장히 좋은 약이니까 드셔보세요. 이 약이 잘 들면 다음에 병원에 가셔서 이 약을 보여주세요." "맥박은 약하긴 한데 부정맥은 없으시네요. 혹시 피곤하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간이나 피검사를 좀 받아보셔야겠어요."

진료소에서 오가는 대화는 끊임이 없었다. 진료소로 쓰인 내장사 내장선원과 요사채 등에는 의사 한 두 명에 환자가 가득했다. 봉사자들에게는 지치고 힘들어할 여유도 없었다. 어르신 한 분이라도 정성껏 진료를 하기 위해 듣고 또 듣고, 설명하고 처방하고 치료를 이어갔다. 찡그리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와 "건강하세요"라는 따뜻한 말을 주고 받았다. 봉사팀이 구슬땀을 흘리며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가자 원성은 차차 사그라 들었다. "아따 시원하네. 감사합니다"라며 자리를 뜨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분위기는 안정돼 갔다. 긴 줄은 진료가 3시간 정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나서야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봉사자들을 위한 간식은 말라가고 있었다.

육홍기(79) 어르신은 "허리 진료를 받고 내시경도 받았다.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다. 기분이 아주 좋아졌다. 감사하고 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내장사는 성지이기 전에 단풍 관광지로 유명했다. 그동안 지역민을 위해 회향하는 일이 드물었다. 지선 스님은 내장사가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 되기를 서원하면서 의료봉사 행사를 기획했다. 스님은 "그동안 내장사는 지역사회와 동떨어져 있었다. 내장사가 지역사회를 위해 이바지 하고, 지역민들에게 관광사찰이 아닌 효행 수행도량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의료 봉사를 통해 박물관이나 관광지로의 내장사를 넘어 지역민과 소통하는 계기가 됐다"며 의료봉사단에게 "대의왕 부처님의 화신들과 같은 분들"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는 '효(孝)' 라는 테마에 맞게 정읍 학생들과 젊은 청년들이 동참했다. 정읍시 내 파라미타를 운영하는 호남 · 제일 · 정읍 · 정주 · 학산 · 배영 · 정읍여고 등 7개 학교에서 150여 학생들이 자원봉사에 지원했다. 학생들은 톡톡한 역할을 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모시고 해당 진료소로 안내하고, 말동무도 해 드렸다.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약도 직접 타다드리는 등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를 모시는 것 이상으로 친절했다. 이소라 학생(정주고1)은 "어르신들이 많이 편찮으신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지만 어르신과 말동무도 해드리고, 안내도 하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류재환 회장은 "더운 날씨에 부족한 준비에도 모두 열심히 해줬다. 행복하고 가슴이 벅차다"며 "지역 사찰에서 의료봉사를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계기가 됐다. 일회성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지속적인 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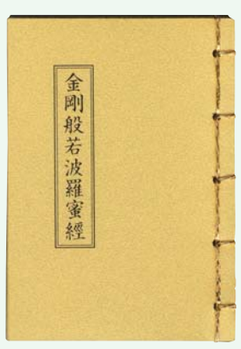
이날 진료는 286명 접수, 443건 진료, 57건의 검사가 이뤄졌다. 40여 명의 의료진들은 5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가뿐히 해냈다. 이날 하루 내장사는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는 병원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대의왕 부처님이었다. 어르신들의 기다림은 조금 아픈 곳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명의 대의왕 부처님을 만나기 위한 인고의 시간이었다.

이상언 기자



이날 의료봉사에는 불교의료지원단 연우와함께 진료차량이 지원됐다. 의사가 어르신에게 지금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냉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시 · 음악이 있는 감동의 문화 축제

선운사 선운문화제, 음악경연대회 · 학술대회 등 개최

동백과 꽃무릇, 시문화의 고장인 고창 선운산 선운사에서 시와 음악, 감동이 넘치는 문화축제가 열린다.

선운사(주지 법만) 선운문화제가 9월 25~26일 선운사 일대에서 개최된다. 선운문화제는 지역민들과 함께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자연적 가치를 문화적으로 승화시켜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는 축제의 장이다.

선운문화제에는 선운 청소년 음악놀이 경연대회, 보은염 이운식, 범주 스님 달마전, 고현 교수의 현대불화전, 백파스님. 석전 영호 대종사 독립운동자료전, 백파사상연구소 학술대회, 선운사 전통차 시음회, 지역민이 운영하는 직거래장터 등을 개최한다.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산사음악회에는 국민가수 양희은, 백영규 등이 출연해 분위기를 북돋는다. 음악회에는 미당 서정주를 배출한 고장답게 '시와 음악이 흐르는 선운사의 가을'이라는 주제로 도종환 시인의 시낭송, 선운사 꽃무릇 시화전 입상작 낭송 등 선운사를 소재로 한 시와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 예술과 전통예술의 만남을 시도한다. 그밖에도 고창퓨전국악단 · 선운사 동국사 연합합창단의 공연 등이 진행된다.


선운문화제가 9월 25~26일 고창 선운사에서 진행된다. 1600년 동안 매년 봄 · 가을 선운사에 소금을 공양한 보은염 이운식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노래와 춤, 악기 연주등 다양한 장기를 펼쳐 보일 청소년 음악놀이 경연대회에서는 지역 청소년들의 넘치는 끼를 발산하는 멋진 무대가 될 전망이다.

선운사 창건과 관련된 설화를 바탕으로 1600년을 이어온 보은염 이운식은 또 하나의 볼거리다. 또 법주스님의 달마전과 현대불화전, 석전스님의 독립운동 자료전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다양한 문화예술 잔치도 관심을 모은다.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선운문화제는 검단 스님의 선운사 창건정신을 이어받아 주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라며 "선운사와 관계된 시와 음악, 문화 예술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를 열어가는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문화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주지직 두고 갈등 신도들 몸싸움

부산 소림사가 주지직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부산 소림사에서는 9월 3일 현 주지인 혜전 스님 측과 창건주 승계자라고 주장하는 종인 스님 측 신도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종인 스님 측은 4월 대법원으로부터 창건주 승계자로 승소판결을 받아 우석 스님을 소림사 직무대행으로 내세워 소림사를 인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지 혜전 스님 측은 "2005년 8월 조계종 법규위원회 결정에 따라 종인 스님을 창건주로 인정한 총무원의 결정은 무효가 됐다. 그 후 문도회의를 거쳐 정일 스님이 적법한 창건주 권한승계자가 됐고, 정일 스님은 혜전 스님을 주지로 임명했다"고 맞서고 있다.

다행히 이날 소동은 종인 스님 측이 물리적 해결보다는 법원 결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소림사로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끝났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전통장엄물의 '마법의 손' 이기환 대표

알아주지 않아도 끊임없이 정진

전통공예가 이기환(이심조형 대표)은 광주에서 '마법의 손'으로 통한다. 그는 전통장엄물을 호남에서 유일하게 만드는 장인이다. 그의 손에서는 부처님, 동자스님, 탑, 호랑이 등 무엇이든 만들어진다.

그가 장엄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5년 전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주지 혜월) 청년회를 다니면서 부터다.

"혜월 스님의 권유로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진 장엄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 선원에서 만든 것은 길이가 13m나 되는 용이었죠. 당시 1년 동안 회원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고생 무지하게 했지요. 하지만 그 때만큼 즐거웠던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용이 몸을 움직이고, 입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모두 깜작 놀랐죠. 그야말로 대히트였어요."


이심조형 대표 이기환 전통공예가

15년 전에는 전통장엄물과 관계된 사업이 거의 없었다. 건축과를 나와 건축 현장소장 일을 하던 이기환 대표는 용 장엄물 히트를 계기로 직업까지 바꿨다.

그 후 선원에서 반야용선을 만들게 되었다. 하지만 재료가 문제였다. 전통과 아름다움을 겸비해야하는 과제였다. 비닐, 아크릴 등 많은 재료가 동원됐다. 지금이야 한지에 채색을 하고, 방수처리를 하면 쉽게 되지만 당시에는 이런 작업을 시도한 사람이 없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그때 마침 혜월 스님이 아이디어를 냈다. 한지를 사용해 보는 것이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불을 켜보세요. 텅빈 공간이나, 저녁 거리 혹은 행사장에서 전통장엄물 한지를 통해 나오는 불빛은 마치 세상을 밝히는 부처님의 등불 같지 않나요."

전체를 한지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한지를 통해 나오는 불빛은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그가 전통장엄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극찬하는 이유다. 세상을 밝히는 부처님의 등불로 생각한 그의 마음이 시작된 것이다.

이기환 대표의 작품은 일반인이 좋아하는 불교적 · 전통적 아이템들로 한국 불교의 대중화에 밑거름이 돼가고 있다. 이는 그의 작업에는 몇 가지 변화에 따른 것이다. 첫째 철저한 도면화이다. 도면을 만들면 누구나 보고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다른 공예가가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공론화 하는 것이다.

둘째, 대나무를 포기하고 철사를 사용한다. "어찌 보면 전통재료를 포기한 것 같지만, 실제로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작품을 오랜 기간 보관할 수 있으며 대형작품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즘 눈코 뜰 새가 없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에서 작품을 의뢰하기 때문이다. 2000년 들어 동생 이기성(광주 비엔날레 참여작가)씨가 참여하면서 그의 작업은 더욱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작업 주문처는 대부분 경상도나 자치단체이다.

"정작 광주에서 사업을 하는데 도리어 교세가 강한 경상도에서 주문이 들어오네요. 하하, 이쪽이 불교가 약하기는 약한가 보네요."

투박한 얼굴과 손에서 나오는 작품은 호남을 대표하고 한국을 대표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정작 잘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는 끊임없이 정진하고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노인 복지의 대안 모색

부산불교연합 신도회 세미나

부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설동근)는 9월 7일 부산 안국불교대학에서 '부처님 가르침 속의 자비와 복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불교경전을 통해 본 효사상과 노인복지 실천방향'을,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부산불교연합회 회장)이 '<부모은중경>과 사회복지와의 관련성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에 앞서 박경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산불교사회복지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특강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류기형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무량수노인요양원장 각우 스님과 이춘성 부산시사회복지관협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토론했다.

설동근 회장은 "불교 사회복지가 그동안 이웃종교에 비해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나 봉사활동에 소극적이었던 자세를 반성한다"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저출산 ·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통적 가치관인 인본주의와 생명존중, 경로효친사상 등 윤리 · 도덕 규범이 파괴되는 혼돈의 시대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불교노인 복지의 대안 등을 모색코자 개최됐다"고 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지구는 모든 생명이 주인입니다"

2010생명아카데미 광주생명나눔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는 지난 8월 28~29일 광주불교회관 법당에서 생명나눔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홍보도우미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위한 '제3회 2010 생명아카데미'를 실시했다.

광주지역 중 · 고등학생 40여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전체 14시간의 교육을 통해 △생명나눔실천본부 단체소개(이대종 홍보팀장) △불교적 관점에서 본 삶과 죽음(현지스님, 원효사 주지) △자원봉사의 중요성 및 자원봉사자의 자세(문수영,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의 강의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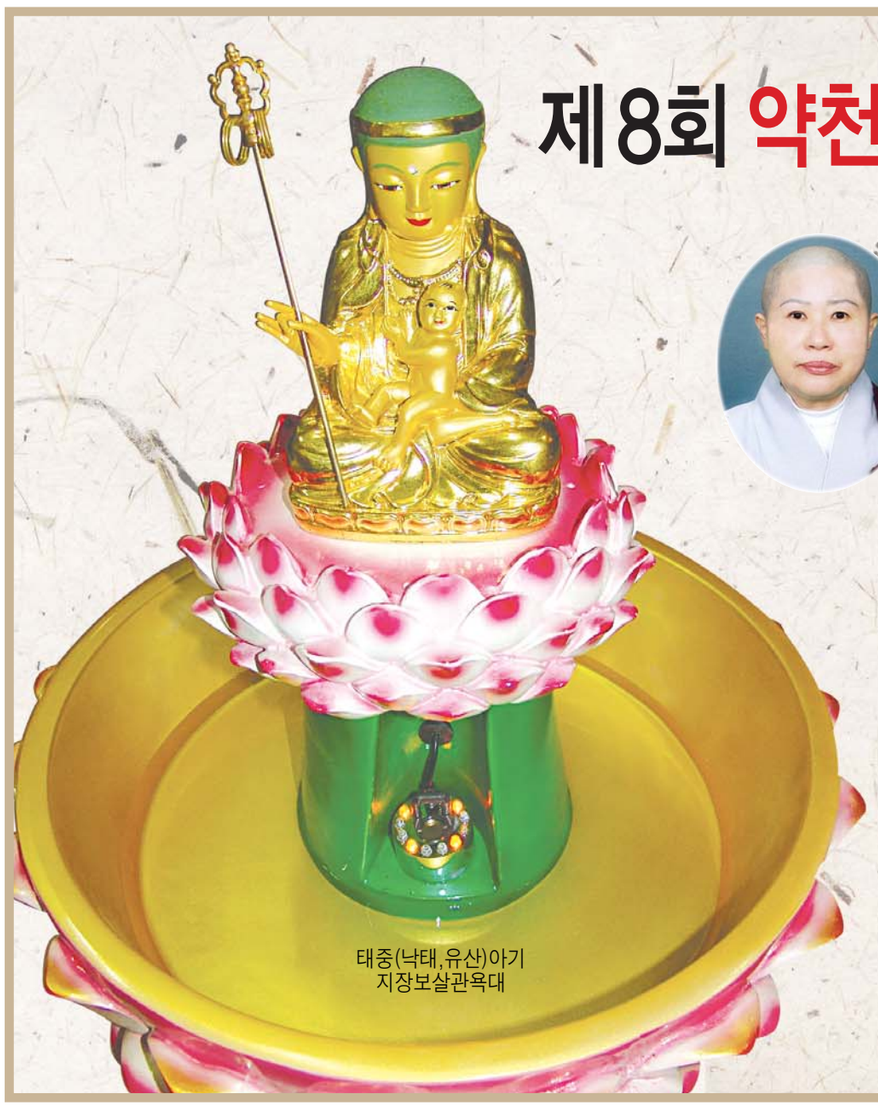
광주전남지역본부는 8월 28~29일 생명나눔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홍보도우미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현지 스님은 강의를 통해 "이 지구는 모든 생명이 주인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알고, 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통해 삶의 주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아암백혈병과 장기기증을 소재로 한 동영상을 본 후 이준영(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1년) 학생은 "처음에 아무런 생각없이 왔지만, 생명나눔 홍보 동영상을 보면서 많이 울고 반성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에 이어 참가자들은 광주 생명나눔의집 씨너스콜럼버스 하남점에서 생명나눔홍보와 돼지 저금통을 분양하는 현장실습을 진행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태중(낙태,유산)아기 지장보살관욕대

제8회 약천사 태(胎)중 아기(낙태 · 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나'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엄연한 생명이요,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태중아기를 위해 직접 기도하며 관욕의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일 시 : 2010년 10월 10일 일요일 오전 10시 (음, 9월 3일)
● 장 소 :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초재) : 양력 10월 10일 (음, 9월 3일)
· 3재 : 양력 10월 24일(음, 9월 17일)
· 5재 : 양력 11월 7일 (음, 10월 2일)
· 기도회향(막재) : 양력 11월 21일 (음, 10월 16일)
● 기도 동참비 :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당일 천도재는 별도상담)
※ 위패비, 아기옷 (무료)
● 준 비 물 : 사탕, 과자, 분유(우유) 등
※ 7재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욕을 합니다. (베네적삼,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 예금주 : 이순수

태중아기 영가 천도 방법
1) 성심을 다해 참회하여야 합니다.
2) 49재를 올려서 천도해 주어야 합니다.
3) 지장경을 독송해 주어야 합니다.
4) 지장보살상을 사볼 사는게 좋습니다.
5) 부처님을 조성해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6)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등을 밝힙니다.
7) 대승보살계를 받게 하시면 좋습니다.

※ 천도재 준비관계로 미리 접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약천사 방생법회 : 2010년 11월 28일 (음, 10월 23일)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 011-9002-8523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 ③
전통 선당의 내부 모습

칠척단전에서 부처를 이룬다
〈七尺單前〉



일본 조동종 총지사 선당 내부 모습. 선원청규에 설명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로서 천년 전 중국 선당의 내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가운데는 통로이고 양쪽은 좌선하는 곳으로 이곳을 장련상, 단(單), 피위 등 여러가지로 부른다. 멀리 창문 쪽에는 사물함이 보인다. 사진=조동종총무청 발행 〈총지사〉, 1974.

중앙엔 승형문수상 모셔
〈僧形文殊像〉

선당(禪堂, 선방)은 많은 수행자들이 좌선 정진하는 공간이다. 집단적으로 모여 참선 수행하는 곳으로서 선종사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장소다. 이곳이 바로 중생을 부처로 변신시키는 곳이다.

선당에 대한 이칭은 참으로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선방(禪房)'이라고 하는데 선당의 우리식 표현이다. 그러나 좀 비칭(卑稱)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많이 쓰는 명칭은 '승당(僧堂)' '선당(禪堂)'이다. 승려들이 기거하는 곳, 참선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그 밖에도 좌선하는 곳이라는 뜻에서 '좌선당(坐禪堂)', 부처를 선발하는 곳이라는 뜻에서 '선불장(選佛場)', 운수납자가 좌선하는 곳이라는 뜻에서 '운당(雲堂)'이라고도 한다. 또 문수상을 모셨다고 하여 '성승당(聖僧堂)'이라고도 한다.

중국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의 당우나 물건에도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 댄다. 책명에도, 사찰 이름도 기본이 두세 가지 이상이다. 예컨대 송대 5산(五山)의 하나인 천동사의 경우도 '천동사(天童寺)', '천동선사(天童禪寺)', '경덕사(景德寺)' 등 현재 쓰고 있는 것만 해도 세 가지나 된다. 처음 중국을 여행하는 이들은 한참 우왕좌왕한다.

선당은 칠당(七堂) 가람 가운데 하나로서 매우 중요한 당우이다. 선불교가 가장 흥성했던 송대에는 선당 하나에 대략 200명 이상이 기거했다. 남송 때 5산의 하나인 항주 영은사 선당 내부도를 보면 약 250개의 좌단(座單)이 설치되어 있다. 250명의 수행자들이 기거했다는 것이다.

간화선의 대성자 대혜종고(1089-1163)가 주지(방장)로 있던 항주(임안) 경산사(徑山寺)는 5산 가운데 가장 컸는데, 얼마나 많은 수행자들이 모여들었는지, 기존의 선당 외에 별도로 '천승각(千僧閣)'이라는 대승당(大僧堂)을 지어서 수용했다. 한 승당에 무려 천명이 넘는 수행자들이 생활했다는 것인데, 중국인들이 과장법을 즐겨 쓴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족히 500명은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천승각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다가 "모두 854명의 청중(대중)이 수행했다(淸衆, 共八百五十四員)"는 기록을 보고는 깜작 놀랐다. 이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그 규모가 대단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같은 시대 묵조선의 굉지정각(1091-1157)이 주지로 있던 영파(항주 부근) 천동사는 사격(寺格)이 5산 가운데 세 번째였는데, 장십경(張十慶)이 쓴 <중국강남선종사원건축>에 보면 선당 크기가 전후면 모두 14칸으로서 가로 200척(약60.6m), 측면이 160척(약48.5m)으로서 약 890평이나 되었다. 워낙 커서 '대승당(大僧堂)'이라고 불렀는데, 참고로 조계사 대웅전이 155.7평이라고 하므로 약 5.7배나 된다. 지금 선당은 당시와 비교하면 7분의 1정도에 불과하고 좌선하고 있는 스님도 30명 정도라고 한다.

선당(선방)에서 한 명의 수행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대략 가로 1m, 세로 2m 정도이다. 이것을 선어록 등에서는 '삼조연하 칠척단전(三條椽下 七尺單前)'이라고 한다. 곧 선당 내에서 한 명의 수행자가 사용하는 공간 단위(單位)를 가리킨다. <벽암록> 25칙(蓮花庵主不住)의 평창 끝에는 이와 관련한 선문답이 나온다. 선문답을 일명 '공안(公案, 화두)'이라고도 하는데, 선을 주제로 한 문답이다. 일독해 보는 것도 덤일 것이다.

> 其或未然 三條椽下 七尺單前 試去參詳看"
> (기혹미연 삼조연하 칠척단전 시거참상간)
> 만일 혹 그렇지 못하다면 서까래 3개 아래, 일곱 자 되는 단(單) 앞에서 한번 자세히 참구해 보라.

'삼조(三條)'는 세 가닥을 뜻하고 '연(椽)'자는 천정의 '서까래'를 뜻한다. 곧 '서까래 세 개 아래'라는 말로써, 넓이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다. 즉 가로 넓이가 머리 위에 있는 천정의 서까래 세 개인데, 3개라면 약 1m정도가 된다. 그리고 '칠척단전(七尺單前)'에서 '단(單)'은 한 명의 수행자가 좌선, 취침하는 자리를 가리킨다. '일곱 자 되는 단(單) 앞'이라는 말인데, 일곱 자(尺)라면 약 2m가량 되는 '단(單, 앉는 자리)'이다. 이 선문답(공안)의 뜻은 '만일 아직도 그 뜻을 모르겠다면 그대가 좌선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참구해 보라'는 뜻이다. 이 공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수행자에게 주어진 공간은 대략 가로 1m, 세로 2m가량이다. 다다미 한 장, 합판 한 장 정도의 공간이라고 보면 된다. 훗날 명대(明代)에 이르러 재당(齋堂, 식당)이 신설되기 전에는 여기서 좌선, 공양, 취침 등 일체를 해결했다.

1·2m 공간에서 좌선·공양·취침
경산사 '천승당' 대중 854명 수행

사실 우리나라 선방도 마루와 온돌이라는 생활문화적인 차이만 다를 뿐 좌선하고 잠자는 개인적인 공간은 이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해인사 총림도 선원과 강원 모두 개인이 쓸 수 있는 공간은 이 정도이다. 독자들은 '어휴 답답해' 하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쳐다보면 서까래가 보이는 시원한 천정, 공연을 하고도 남을 만큼 큰 방은 반야지혜를 갖춘 부처를 만들기에 족하다.

그런데 근래 들어 우리나라 선원에서는 점점 개인방을 주는 곳이 늘어난다고 한다. 하루 10시간 이상 참선하므로 방선 후에는 편히 쉴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해서라고 한다. 천 년 전 제도를 고수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원형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각방을 쓴다면 그나마 옛 제도는 찾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형식이라도 남겨두면 언젠가는 그 속에 내용물이 모이게 된다. 땅을 파 두면 물이 고이듯이 말이다.

천 년 전 중국 선방의 내부 구조와 생활상은 어떠했을까? 당송시대 선방의 내부 구조를 보면, 통로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은 모두 넓은 마루(좌상, 坐床)로 연결되어 있다. 남북은 좁은 마루이다. 여러 개의 좌상들이 쪽 연결되어 있다고 하여 '장련상(長連床)' '장련탑(長連榻)' '장상(長牀)'이라고 한다. 또 앉는 자리를 표시한 명단(名單, 이름패. '계랍패戒臘牌'라고도 함)이 붙어 있다고 하여 '단(單)'이라고도 한다. 또 선반에는 발우를 둔다고 하여 '발위(鉢位)'라고도 한다. 그 밖에 '피위(被位)', '좌위(座位, 앉는 자리)', '단위(單位, 명패)' 등 많은 명칭이 붙어 있다. 이렇게 많은 명칭 때문에 골탕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통로는 검은색 벽돌을 깔아서 신발을 신고 다니게 되어 있고, 벽쪽 마루(장련상長連床)는 통로보다 60cm가량 높게 만들었다. 또 장련상은 2단으로 앞단 복도 쪽은 좀 낮고 벽쪽 뒷단은 좀 높다. 앞단은 나무마루인데 여기에서는 발우를 펴 공양을 하고, 뒷단엔 다다미가 깔려 있는데 여기서는 좌선과 취침을 한다. 물론 각자 좌선하는 자리에는 포단(蒲團, 방석)을 깐다. 대혜선사의 <서장>에는 '포단상사(蒲團上事, 포단 위의 일)'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좌선(참선)하는 것을 가리킨다.

또 앞단 천정에 있는 횃대(이것을 의가衣架, 牀架라고 함)에는 가사를 걸고, 벽 쪽 선반에는 발우를 놓고 그 아래에는 상하 2단으로 사물함을 설치하여 위칸에는 옷과 개인용품을 넣고 아래 칸에는 이불 등 침구를 넣는다. 이 사물함을 '단상(單箱, 상자)'이라고 한다. 선방의 내부 구조는 거의 군 내무반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설에 의하면, 근대 일본군 창설자가 영평사 등 선종사찰의 선당 내부를 보고 그대로 적용했다고 한다.

선불교가 왕성하던 남송시대 경산사와 천동사, 그리고 영은사 선당 내부도를 보면 많은 수행자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벽 쪽 말고도 중간에 '내 천(川)'자 모양으로 좌선, 취침할 수 있는 마루 즉 장련상(長連床)이 여러 줄 설치되어 있다. 중좌(中座)를 치지 않고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당 중앙에는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상을 모시는데, 보관(寶冠)을 쓴 전형적인 보살상이 아니라 사문(沙門, 스님) 모습의 '승형(僧形)문수상'을 모신다. 왜 승형문수상을 모시는지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으나, 같은 사문이었음을 보여주어서 분발심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혼자 추측할 뿐이다. 문수상을 '성상(聖像)' '성승상(聖僧像)'이라고 한다. 간혹 선원에 따라서는 가섭존자나 포대화상을 모시기도 한다.

선당에 불상을 모시지 않고 문수보살상을 모시는 것은, 문수는 지혜를 상징하고 지혜는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수보살을 '불모(佛母, 반야지혜)'라고 한다. 부처님의 어머니라는 말이 아니고 '부처' 즉 '깨달음(지혜를 완성한 사람, 깨달음의 본질)의 모체'라는 뜻이다. 이 말에서도 본다면 '부처'란 곧 '반야지혜를 완성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반야지혜가 작용(작동)하지 않는 부처는 부처가 아니다. 소위 깨달았다고 하는 것도 그 기준은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선방은 모두 평면 온돌방 구조라서 천 년 전 당송시대 선방 내부의 모습(복도, 마루 구조)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다행히 온돌방이지만 중국 전통 선방 모습과 같은 곳은 쌍계사 칠불암 아자방(亞字房)이다. 아자방을 보면 아자(亞字) 안쪽 바닥은 복도이고 바깥쪽은 약 50cm가량 높은데, 여기가 좌선하는 곳으로 본래는 마루(장련상)였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아자방은 당송시대 선원의 내부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추위를 견디기 위하여 복도와 좌선하는 곳(윗단) 모두 온돌을 깔았는데, 골고루 모두 다 따뜻하다는 것이다. 누가 구상했는지는 몰라도 분명 이 선원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선승이었을 것이다.

옛 선당 모습과 똑 같은 곳 한 두곳 있어야
원형이 남아있지 않는 지금 옛 제도 또한 사라져 간다

선당은 크게 전당(前堂)과 후당(後堂)으로 나눈다. 선당을 대략 반으로 나누어 앞쪽을 '전당'이라 하고, 뒤쪽을 '후당'이라고 한다. 그리고 선당 안쪽을 내당(內堂), 입구 쪽을 외당(外堂)이라고 한다.

좌선하는 자리는 주지·수좌·서기·전좌 그리고 일반 선승들은 안쪽 즉 내당에서 좌선하고, 6지사(知事) 가운데 도사(都寺)·감사(監寺)·유나(維那)·부사(副寺)·직세(直歲) 등과 6두수(六頭首) 가운데 지객(知客)·지욕(知浴)·지전(知殿), 그리고 시자(侍者)와 객승(客僧, 暫倒) 등 출입이 잦은 소임자들은 외당에서 좌선한다.[각 소임에 대해서는 '총림의 구조와 기구'에서 설명할 예정임.]

지금 천동사 선당 크기는 선이 왕성하던 남송시대와 비교하면 7분의 1정도이고, 선당 내부의 모습은 80% 정도 남아 있다.

우리나라 선당은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거의 원형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이고, 일본 조동종 본산인 영평사(永平寺)와 동복사, 총지사선당 내부는 100%에 가깝다고 한다. 우치(宇治)에 있는 황벽종 황벽사도 중국 황벽산 황벽사 그대로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옛 선당 모습과 똑 같은 곳이 한두 곳은 있어야 한다. 고증 없이 새로 짓는 것만이 최고가 아니다. 그것은 무지의 산물이다.

■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마음을 다한 동심이 부처가 되다


동화책을 펼치듯 눈 앞에 나타난 오세암엔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노란 가을꽃이 피어 있었다.

동화 속 암자
⑱ 인제 오세암(五歲庵)

겨울 바닷가에 눈이 내린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앞 못 보는 소녀의 손을 잡고 날리는 눈 속에 서있다. "누나, 눈이 바다보다 넓게 내린다." 사내아이는 눈이 내리는 모습을 누나에게 그렇게 그려주고 있었다.

정채봉(1946~2001)의 동화 <오세암>은 첫 장면부터 가슴을 뻐근하게 한다. 설악산 오세암의 오세동자와 백의관음보살의 설화를 바탕으로 쓴 중편 동화다.

"너희들 왜 집에 가지 않고 여기에 있니?"
"우리는 집이 없어."
"그럼 여기서 자겠단 말이냐?"

갈 곳 없이 떠돌던 남매 감이와 길손이는 스님을 따라 절로 가게 된다. 감이와 길손이의 절 생활이 시작되고 슬픈 동화 한 편이 시작된다.

눈 내리는 동화 속의 오세암을 덮고, 설악산으로 향했다. 백담사에서 걸어서 두 시간 반 정도 거리에 오세암이 있다. 쉬운 길은 아니다. 설정 스님도 눈길에 막혀 끝내는 가지 못하고 길손이를 부처님 품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곳이다.

큰절을 나와 스님과 길손이가 암자를 향해 걷는다. 길손은 누나와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지만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해선 공부를 해야 한다는 스님의 말에 길을 나선다.

"거기에도 좋은 샘이 있다니까 그러는구나."
"스님 바보야. 내가 물 가져가는 것 같아?"
"그럼 물이 아니고 무엇이냐?"
"흰구름을 넣어가지고 가는 거야. 요 앞날 개울에서 건져왔거든."

스님과 길손이의 발자국을 따라 걸었다. 가끔씩 다람쥐가 따라 붙었고, 덮고 온 동화의 장면 장면이 따라왔다. 개울물이 눈물처럼 흘렀다.

설악산 오세암은 647년(선덕여왕 13)에 자장 스님이 세웠다. 스님은 관음조의 인도를 받아 관음보살님을 친견한 후 관음암을 세웠고, 설화 속의 오세동자로 인해 후에 오세암으로 바뀌었다. 작가 정채봉은 그 오세동자의 전설을 듣고 암자를 찾아 나섰고, <오세암>을 썼다.

그의 동화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늘 소년의 마음으로 살았던 그는 어른이 될 아이들을 위해, 아이였던 어른들을 위해 동화를 썼다.

오세암이다. 노란 가을꽃이 손을 흔들었다. 풍경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가을바람이 꽃과 풀을 누이고, 숲을 누이고, 산을 누이고 있었다. 길손이와 스님이 관음암에 당도한 것은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나는 엄마가 없어요. 엄마 얼굴도 모르는걸요. 정말이어요. 내 소원을 말할게요. 내 소원은 엄마를… 엄마를 가지는 거예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길손이는 골방에 모셔진 관음탱을 보고 엄마라고 부른다.

이튿날, 스님은 양식을 사러 산 아래로 내려가고, 암자엔 길손이 혼자 남게 된다.

"금방 갔다 오는 거야?"
"그럼, 금방 오고말고. 길손아, 내일 내가 없는 동안 무섭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찾거라. 알았지?"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오셔?"
"오고말고. 네가 마음을 다하여 부르면 꼭 오시지."
"마음을 다해 부르면? 그러면 엄마가 온단 말이지?"

가을바람이 더 세차게 불어왔다. 산마루엔 구름이 감기고 빗줄기가 다녀갔다. 동화 속에선 큰 눈이 내린다. 산 아래로 내려간 스님은 눈길에 막혀 암자로 돌아오지 못한 채 부처님을 부르다, 길손이를 부르다 눈 위에 쓰러지고 만다.

"이 어린아이는 곧 하늘의 모습이다. 티끌 하나만큼도 더 얹히지 않았고 덜하지도 않았다. 오직 변하지 않는 그대로 나를 불렀으며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나를 찾았다. 이 아이는 부처님이 되었다."

눈이 녹고 땅이 풀려 스님과 감이가 길손이를 찾아갔을 때, 길손이는 관세음보살 품에 있었다. 스님은 길손이한테 절을 했다. 눈을 뜨게 된 감이도 따라서 절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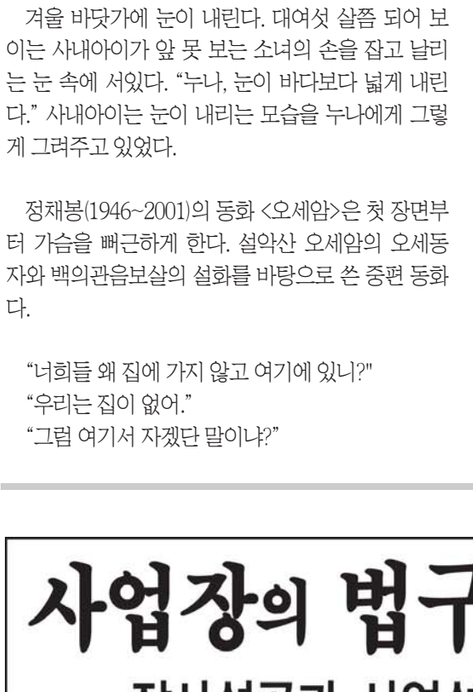
장작불이 타오른다. 연기는 곧게 하늘로 올라가서 흰구름과 함께 조용히 흘러가고, 길손의 마지막 길을 지켜보던 감이는 눈물을 흘린다. "저 연기 좀 붙들어 줘요, 저 연기 좀 붙들어 줘요…."

오세암에 간다면 마음을 다해서 갈 일이다. 감이는 그렇게 눈을 떴고, 길손이는 그렇게 부처님이 되었기 때문이다. [인용문-오세암]

글 · 사진 =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 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 할인)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용띠, 쥐띠, 원숭이띠, 드는 삼재시작 조심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묵는삼재 2012년 나가는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 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 공급 가격 별도 상담요)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32>

근본을 붙잡지 않는다

학승이 물었다.
"진짜 좋은 솜씨는 졸렬한 솜씨와 같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대들보 재목이 찌부러진 것이야."

問 大巧若拙時如何
師云 喪卻棟梁材

대교약졸(大巧若拙)은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다. 이 이전 구절은 대직약굴(大直若屈)이다. 즉, '가장 곧 바른 것은 굽은 것과 같다'는 말이다. 대교(大巧)는 최고의 솜씨를 말한다. 어느 방면의 최고 솜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치 졸렬한 솜씨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난초를 잘 치는 전문가는 가끔 난초 잎을 꺾어서 땅에 흐드러지게 닿아있는 그림을 그린다. 이것을 '파격의 미'라 해서 난초의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간주하고 있다. 뛰어난 목수는 곧은 대들보만 고집하지 않는다. 굽은 것도 잘 쓰면 오히려 멋이 된다.

스님도 훌륭한 스님은 계율에 끌려가지 않는다. 계율을 끌고 간다. 신라 시대 원효 스님이나, 대안 스님, 그리고 조선 시대 진묵 스님, 근대의 도인 경허 스님 같은 분들이 바로 계율을 끌고 간 사람들이다. 그 시대 사람들은 계율에 끌려갔기 때문에 이 스님들을 보고 때로는 욕을 했지만, 그 분들은 계율을 끌고 갔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빛날 수밖에 없다.

진정 고수는 별도의 형식을 세우지 않는다
한번 도를 깨달으면 모든게 도가 되기 때문

그리고 여기 <조주록>도 잘 살펴보면 조주 스님이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원래 진정한 고수가 되면 별도의 형식을 세우지 않는다. 마음은 원래 무궁무진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도(道)를 깨달으면 이야기하는 것마다 다 도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이다.

조주 스님이 문하 대중에게 설법했다.
"나는 불(佛)이라는 글자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
학승이 물었다.
"화상께서는 사람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사람을 위해 일하지."
학승이 물었다.
"어떻게 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깊은 뜻은 알리지 못하고 한낱 생각만 피곤하게 할 뿐이야."
학승이 물었다.
"이미 '깊은' 이라고 말씀했는데, '뜻'이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는 근본을 붙잡지 않아."
학승이 물었다.
"그것은 깊은(玄)이 아닙니까, 뜻(旨)이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에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 뜻(旨)이야."

師示衆云 佛之一字吾不喜聞
問和尙還爲人也無
師云 爲人
學云 如何爲人
師云 不識玄旨徒勞念
學云 旣是玄 作麽生是旨
師云 我不把本
學云 者箇是玄 如何是旨
師云 答你是旨

조주 스님의 "깊은 뜻은 알리지 못하고 한낱 생각만 피곤하게 할 뿐이야."라는 말 한 마디에 선의 깊은 묘미가 다 들어있다. 역대 선사들은 한 결같이 "평생 한 말 때문에 지옥에 간다느니", "일평생 한 마디로 안 했다느니…" 등등의 말을 남겼다.

<조주록>에서도 조주 스님은 남을 제도한다고 하지만 깊은 뜻을 알리지도 못하고 공연히 사람만 피곤하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런 말들은 선사가 겸손해서 하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선사들은 진심으로 하는 말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선법(禪法)에 맞기 때문이다.

조주 선사의 법은 항상 "근본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불성, 자성, 법성, 실제리지(實際理地) 등이 근본이지만, 조주 스님은 그 근본조차도 놓아버렸기 때문에 아무 것도 붙들고 있는 것이 없다. 선문에서는 그 근본을 한번 봐버린 후에는 곧 놓아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놔버린 사람들은 부처[佛]라는 말에도 별 흥미가 없다. 참[眞諦]을 터득한 사람들은 부처라는 말도 버려야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이다. 참[眞諦]을 터득한 사람이라면 문자나 명자는 큰 의미가 없고 뜻에도 의미가 없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나 문자나 형상에 매달려 있을 뿐이다.

조주 스님이 대중에게 설법했다.
"각자에 선(禪)이 있고 각자에 도(道)가 있다. 만일 사람들이 그대에게 선이란 무엇이며, 도란 무엇인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어떤 학승이 물었다.
"각자에게 선이 있고 도가 있으면 저 옛 부터 지금까지 이야기 해온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너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자 함이다."
학승이 물었다.
"어떻게 사람들을 위하십니까?"
그러자, 조주 스님은 몸을 뒤로 빼고 말하지 않았다.

師示衆云 各自有禪各自有道 忽有人問你 作麽生是禪是道 作麽生祇對他
僧乃問 旣各自禪道 從上至今語話爲什麽
師云 爲你 遊魂
學云 未審如何爲人
師乃退身不語

석가모니불의 대승불교 근본 교리는 '중생이 곧 부처'라는 도리이다. 이것을 <법화경> <화엄경> <원각경> 등에서 그대로 표현해 놓았다. 대승불교의 교리를 가장 먼저 깨닫고 실천한 사람들은 보살이다. 보살은 세속에 있으면서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되어 일체 중생에게 이익을 주었고, 또한 부처님과 동등하게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비구들은 여전히 보살과 다른 수행자 집단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부처가 되기 위해 평생 수행하면서 살았을 뿐, 부처와 같은 행이나 지혜를 별로 드날리지 못하고 중국으로 불교가 전파됐다.

대승불교의 기본 사상을 비구들이 적나라하게 실천했던 곳은 중국이었다. 중국 선종은 자성은 원래 부처라는 말을 철저히 믿었고, 깨달음을 이룬 선사들도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그대로 인지하고 부처님 이상 가는 많은 선법(禪法)들을 창안했다. 이것이 오늘날 동양의 선불교의 뿌리이다.

원래 선과 도는 사람에게 다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역대 선사들이 한번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배우지 않아도 선을 말하고 도를 말해서 선불교가 그 흔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선사들은 다만 후학이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역할만 할 뿐이지, 무엇을 가르치고 익히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중생은 스스로 위대한 부처이다. 때문에 한번 미몽에서 깨어나면 스스로 익히고, 부처로서 가야할 길을 스스로 알아서 간다. 선사가 이 외에 달리 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⓭ 조주어록(趙州語錄)

통독할 만한 깊이 · 맛 · 사상이 있다

선의 진리는 일반적으로 언어도단(言語道斷) 언전불급(言詮不及)이라 해 그 본질에 대한 표현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제반의 어록에서는 일종의 방편으로 방(棒)과 할(喝)과 같은 제스처로 표현되기도 한다. 때문에 어디까지나 언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질문에 응해 상대방을 설득해 선문답의 특징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조주종심(趙州從諗: 778~897)이었다. 일찍이 원오극근이 그 가풍에 대해 '입술에서 빛이 난다'고 평가한 것은 참으로 적확한 것이었다. 그와 같은 조주의 일상의 문답을 모은 것이 <조주록>이다. 그 명성만큼이나 널리 그리고 오랫동안 세간에 유포됐기 때문에 <송고승전> 권11의 조주전에도 '그 어록이 세상에 널리 유행하였다'고 기록했다.


화순 쌍봉사에 봉안된 조주 선사 영정.

조주(趙州)라는 명칭은 그가 후반생을 보낸 하북의 조주지방을 가리킨다. 옛적 전국시대에는 조(趙)라는 나라가 있었다. 본래 조주종심은 마조도일 – 남전보원– 조주종심으로 이어지는 조사선의 계보에 속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종사의 위상보다도 120세의 장수를 누리면서 오랫동안의 제방을 유행하고 주지생활을 하는 가운데 위로는 지방정권의 수령으로부터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는 숱한 사람들을 접하면서 독자적인 가풍을 드날린 점이 보다 널리 알려져 있다. 당 말기의 하북지방은 빈번하게 정권이 교체돼 끊임없는 전란에 휩쓸렸다. 그런 까닭에 조주 자신의 말처럼 조주선원은 늘 상 끊임없이 오고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피난처이기도 했다. 그 결과 조주 문하에는 오랫동안 상주하는 제자들도 드물었기 때문에 여타 오가의 조사들과 같은 법계도 형성되지 못했다. 그러나 오히려 일가의 계보를 형성하지 못했던 것이 오가의 독특한 가풍과는 별도로 모든 가풍을 구비한 조주의 보편적인 선풍이 이후 선종사에 큰 족적을 남길 수 있었다.

조주의 전기는 <조당집> 권18, <전등록> 권10 및 <송고승전> 등에 나타나 있지만 젊은 시절의 내용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강남에서 수행한 이후에 하북에서 할거하고 있던 조(趙)와 연(燕)이 수령에게 초빙돼 고향에 가까운 조주에서 주석할 수 있었다.

<조주록>은 그의 젊은 제자였던 문원(文遠)의 기록이지만 중국의 북지에서는 전란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그다지 널리 전승되지 못했다. 후당의 보대 11년(953) 새롭게 권수(卷首)에 그 행장이 추가되고, 이어서 여산(廬山)의 서현보각선원(棲賢寶覺禪院)의 징시(澄諟)가 3권의 본문을 교정했다. 징시는 법안종의 제3세인데, 임제계통의 관계로 보자면 황룡혜남의 젊은 시절의 스승이기도 했다.

징시가 교정한 <조주록> 3권은 남송 초기에 복주 고산에서 <고존숙어요>의 일부로서 중간(重刊)됐다. 그 판본은 다행스럽게도 현존해 중국 선록의 최고(最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그 이후에 출현한 원 · 명의 제본을 통해 <조주록>은 늘상 위의 중간(重刊)을 모본으로 하고 있어서 거의 이본이 나타나지 않았다. 겨우 명대 말기 운문원징(雲門圓澄 : 1561~1626)이 서문을 붙인 유포본과, 청나라 옹정제가 칙수(勅修)한 <어선어록>의 판본이 약간 개편을 보인 것에 그쳤다.

조주의 언어는 송대 공안집에 보편적으로 널리 채용됐다. 가령 <설두송고>는 100칙 가운데 13칙, <굉지송고>는 100칙 가운데 8칙, <무문관>은 48칙 가운데 7칙이 수록돼 있다. 특히 <무문관>의 제1칙에 수록된 무자공안은 무릇 선을 참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주어지는 공안으로서 선의 대명사처럼 돼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조주 자체가 공안선의 창시자처럼 간주되면서 <조주록>은 언제부턴가 그다지 널리 읽혀지지 않게 된 것은 아이러니다.

'입술에서 빛이 난다'고 평가된 조주의 언어는 실은 무자공안 한 칙만으로는 요약할 수 없는 광범위한 내용이 들어 있다. 조주의 풍부한 개성에 맛들인 선문답의 묘미는 <무문관> 이후에는 거의 그 향기를 상실해버리고 시들어 마침내 추상적인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말하자면 '입술에서 빛이 난다'는 평가조차도 이미 조주의 말을 유형화(類型化)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조주선의 전체적인 이해는 그 다방면에 걸친 문답에 착안하지 않으면 안된다. 당말의 난세에 120세의 생애를 살면서 제방의 승속에 응대한 조주의 언어는 무한한 깊이를 보여주는 선문답의 가능성을 훌륭하게 제시해준 사례의 하나였다. <조주록>은 그 전체를 통독할 만한 깊이와 맛과 사상을 간직하고 있는 어록이다.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우주의 큰 빛으로 오신 관세음보살님의 메시지

몸과 마음과 영혼을 빛으로 치유한다

이 빛을 받는 자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로울 지어다.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니며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느니라.
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이며 또한 무한한 힘을 가진 자이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는 힘이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바르고 곧게 자라게 하는 힘이며 인간들의 마음과 정신을 정화하여 건강하게 만들며 육체 또한 건강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힘이니라.
개인은 물론 가정과 나라와 지구촌의 모든 인간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주는 힘이니라.
나의 힘을 光大力이라 할 것이며 이 힘을 받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되고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들에 앞장서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또한 이 빛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 마음과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여 기쁨과 행복과 평화로움 속에서 살지어다.
이 빛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고자하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하며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빛을 받는 자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로울 지어다.
산 자나 죽은 자나 영혼이 살아 있음은 분명하니 모든 인간들이 그것을 깨달아 산 자와 죽은 자의 모든 영혼들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여 평화로운 이 세상을 만들어야 할 지어다.
나는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든 빛이며 또한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빛이고 힘이다.
넓고 높은 깊은 마음 나와 비교할 것이 없으며 모든 인간들은 늘 항상 나와 함께하며 나와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하느니라. 사랑과 자비를 인간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빛이고 힘이니라.

※ 우주의 빛과 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해 드립니다.

현교빛치유센터 원장 김건희
예약문의 : 02)568-3778 / 010-2648-3778 (오전 9시~오후 8시)

불교 전통의식 3기 수강생 모집

단기 속성 – 3개월 과정
(범음 범패 – 1년 과정)

불광불교대학에서는 예불, 불공, 천도재 등 각 사찰에서 행해지는 불교의식을 교육하고자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 안내
- 입학자격 : 스님, 남 • 녀 재가 불자 및 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사찰 및 포교원 개원 하실 분(종단 등록 가능), 수료 후 법사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분
  《초심자 및 재가 불자 환영》
- 개강일시 : 2010년 10월 6일(수요일) 오후 2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 토요일 오후 2시 ~ 5시
- 강의장소 : 도동 불광불교대학

2. 교육내용
- ▸ 단기 속성(3개월)과정 : 도량석, 조석종성, 상단예불, 각단예불, 신중청, 관음청, 지장청 등
  천도재, 49재, 시달림, 관음시식, 화엄시식 (사물 – 북, 요령, 목탁)
- ▸ 1년(법사과정) 과정 : 천도의식(범음범패)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 옹호게, 상단권공 및 천수바라, 사다라니, 도량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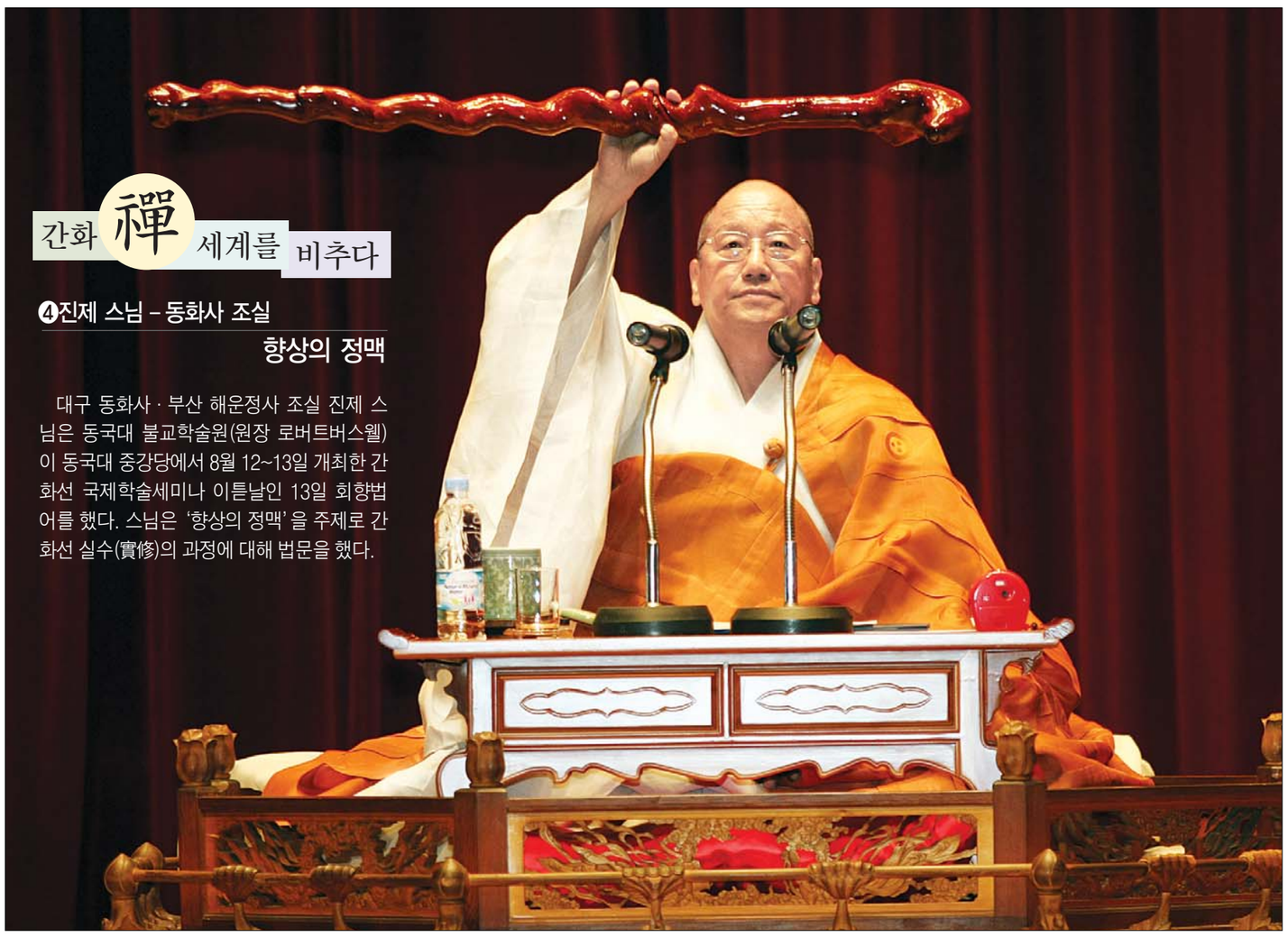
특강 : 승무, 살풀이(무형문화제 제7호 전수자 류희연 개인지도)

※ 초심자에게 불교전통의식 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함

3. 접 수 처 : 불광불교대학 종무소 (053-986-1080)
4.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도동 불광불교대학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44 (팔공IC 5분거리) ☎ 053)986-1080 / 010-5470-8730

참된 화두 받아 실다운 의심으로 일념에 들라



간화 禪 세계를 비추다

❹진제 스님 – 동화사 조실

향상의 정맥

대구 동화사 · 부산 해운정사 조실 진제 스님은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로버트버스웰)이 동국대 중강당에서 8월 12~13일 개최한 간화선 국제학술세미나 이튿날인 13일 회향법어를 했다. 스님은 '향상의 정맥'을 주제로 간화선 실수(實修)의 과정에 대해 법문을 했다.

[上堂하시어 拄杖子를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고,]

방금 들어 보인 이 주장자 이 진리, 몇 사람이나 알꼬 과거 · 현재 · 미래의 모든 성인들도 다 알지 못함이로다.

한 막대기 주장자가 문득 금빛 용으로 화해서 한량없는 용의 조화를 마음대로 부림이로다.

這箇拄杖幾人會 三世諸聖總不識
一條拄杖化金龍 應化無邊任自在

산승이 27세 때 화두를 타파해 이렇게 게송으로 글을 써서 올리니, 향곡(香谷) 선사께서 이 게송을 보시고는 전구(前句)는 묻지 아니하고, 후구(後句)를 들어서 대뜸 물으셨습니다. 這箇拄杖幾人會 三世諸聖總不識이 구절이 전구가 되고, 一條拄杖化金龍 應化無邊任自在 하는 구절이 후구가 되는데 이 뒷구절을 들어서 대뜸 물으신 것입니다.

"너 문득 용을 잡아먹는 금시조(金翅鳥)를 만나서는 어떻게 하려는고?"

여기에는 우물쭈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승이 즉시 답하기를,

"屈節當胸 退身三步(굴절당흉 퇴신삼보; 전신(全身)을 움츠리고 당황하여 몸을 세 걸음 물러가다)입니다."

"이렇게 답하니, 향곡 선사께서는

"옳고, 옳다!"라고 하시었습니다.

50여 년 전 산승이 이 구절을 들어 금오(金烏) 선사께,

"향곡 선사의 물음에 산승이 답한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하고 물으니, 금오 선사께서는

"용이 살아가는 모습일세"라고 답하시어 서로 상통이 됐습니다.

간화선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수행법이지만 법맥(法脈)을 통해서만 내려오다가, 중국으로 넘어와 간화선을 참구한 공덕으로 무수의 도인(道人)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귀한 수행법이 오직 한 가닥 한국에만 남아있으니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처지라, 그래서 산승이 다시금 전 세계 선풍을 크게 드날리기를 바라는 뜻에서 간화선을 실답게 참구(參究)하는 방법을 소상히 말씀드릴 터이니, 여기 모인 모든 분들께서는 잘 경청하여 받아가져서 일생의 귀한 자산이 되고 나아가 대오견성(大悟見性)하여 자기의 '참나'를 밝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화선을 실답게 참구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선지식으로부터 참된 화두(話頭)를 받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실다운 의심(疑心)으로 일념(一念)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승이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화두를 드릴 터이니, 화두가 있는 분은 각자의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분들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고?"

이 화두를 들어서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씨름해서, 가고 오고 일하고 산책하고 하루하루 생활하는 그 가운데 흐르는 물과 같이 화두가 끊어지지 않도록 정진해야 합니다. 화두일념(話頭一念)이 도래하지 않으면 깨달을 분(分)이 없습니다. 한강의 모래알 숫자와 같은 무한한 전생에 중생의 습기(習氣)만 익혀왔기 때문에 설사 출가인연(出家因緣)을 맺었다 할지라도 사사시주(四事施主)의 은혜를 녹일 수가 없고, 생사안두(生死岸頭)에 다다라 자유의 분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중생의 업식(業識)과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화두일념이 되어 며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쭈욱 흐르다가 무르익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앉고 서고 눕고 보고 듣고 시간이 흐르는 것을 모르게 되니, 그렇게 모든 것을 잊고 흐르고 흐르다가 홀연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힘이 솟구치게 되는 법입니다. 그 힘에 모든 삼생의 업이 다 소멸되고 부처님과 같은 밝은 눈을 갖추어서 너도 도인(道人)이요 나도 부처가 되는 법입니다.

이 법을 깨닫는 이치는 오직 부처님 법에 있지 다른 종교나 가르침에는 있질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저 어린아이들의 울음을 달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니, 모든 분들이 대오견성할 수 있도록 정진에 정진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석일(昔日)에 반산보적(盤山寶積) 스님이 어느 해 한 철 공부를 마치고 해제 후, 걸음걸음 화두와 씨름하며 다른 처소로 가던 길에 우연히 식육점 앞을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와서,

"깨끗한 고기 한 근 주시오"라고 말하니, 주인이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차수(叉手)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깨끗하지 못한 고기입니까?" 이 말이 귓전을 스치는데 보적 스님에게 팔부의 눈이 열렸습니다.

또 다시 정진에 몰두하다가 어느 날, 마을 동구 밖을 지나가다가 상여꾼들을 만났습니다. 상여꾼들이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고?' 화두 들라
생활에서 흐르는 물 같이 화두가 끊이지 않도록 정진

노제(路祭)를 지내고 상여(喪輿)를 메면서 선소리하기를,

"청천(靑天)의 붉은 수레는 결정코 서쪽으로 기울어가건마는, 알지 못하겠구나. 금일 영혼은 어디로 가는고?"라고 하니, 상주들이 일제히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哭)을 했습니다. 이 곡하는 소리에 보적 스님은 여지없이 확철히 깨달았습니다.

스님은 그 길로 마조(馬祖) 선사를 찾아가 점검받아 마조 선사의 법을 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0~80여 년 전 양주 망월사(望月寺)에 30년 결사를 하자고 발심한 전국의 스님들이 다 모여들어 참으로 실답게 수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용성(龍城) 선사를 조실로 모시고, 조계종의 초대종정이셨던 석우(石友) 선사를 선덕으로 모시고, 혜월(慧月) 선사의 법을 이어받은 운봉(雲峰) 스님을 입승으로 하여 여법히 용맹정진에 몰두했습니다.

반살림이 도래했을 때 조실이신 용성 선사께서 법상에 올라 법문하시기를,

"나의 참 모습은 모든 부처님도 보지 못하고 역대의 모든 도인들도 보지 못함이어니, 모든 대중은 어느 곳에서 나의 참모습을 보려는고?"라고 일구(一句)를 던지시니, 이 때 운봉 스님이 일어나 답하기를,

"유리독 속에 몸을 감췄습니다" 하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용성 선사께서는 아무 말 없이 즉시 법상에서 내려오셔서 조실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대문을 들어 30여 년 전에 산승의 스승인 향곡 선사께서 산승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만약 당시에 용성 선사가 되었다면, 운봉 선사가 '유리독 속에 몸을 감췄다'라고 답을 할 적에 무엇이라고 한마디 하고 내려가겠느냐?"

만일 용성 선사께서 답처(答處)를 점검하고 내려갔다면 금상첨화로 더없이 빛났을 것이기에 산승에게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승이 답하기를,

"사자(獅子)가 선릉 사자후를 하셨습니다"라고 답하니,

"아주 멋진 점검을 하는구나!" 하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만공(滿空) 선사께서는 수덕사(修德寺)에서 멋진 회상을 열어서 제방의 수좌들을 제접하셨는데, 하루는 초가을에 수좌들과 마루에서 좌담을 나누는 차제에 처마 끝에서 새가 한 마리 푸울 날아가는 것을 보시고 수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저 새가 하루에 몇 리를 날아가는고?"

이렇게 멋진 일구를 던지시니 아무도 말이 없었는데, 그 가운데 만공 선사의 아끼던 제자 보월(寶月) 스님이 답했습니다.

"촌보(寸步)도 처마를 여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니, 이에 만공 선사께서는 과연 명답을 했다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기틀에 다다라 척척 바른 답이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공 선사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보월 선사에게 법을 전하고자 했으나 보월 선사가 일찍 입적(入寂)하니, 훗날 금오(金烏) 선사를 보월 선사의 제자로 봉(封)해 그 법을 잇게 하셨습니다.

만공 선사께서 열반에 드신 후로 오랫동안 산중의 조실자리가 비어 있으니, 한 때 고봉(古峰) 선사를 조실로 모시고자 하여 처음 법상에 모시는데 고봉 선사께서 일어나서 법상에 오르려는 차제에 문득 대중 가운데서 금오 선사가 따라 나와 고봉 선사의 장삼자락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스님, 법상에 오르기 전에 한 말씀 이르십시오."

그러자 고봉 선사께서는,

"장삼자락 놔라" 하셨습니다. 금오 선사가 다시 묻기를



무료초청공연

2010년 10월 2일(토) 오후 6시
인각사 학소대 수변무대

- 1부 : 정통 산사음악회 [사회 : 박수경 아나운서]
  달구벌 북춤(황보영), 성악(임성규 바리톤), 무용(아리무용단),
  시노래(시노래풍경 진우), 국악연주(임교민 외 5명), 정율스님(찬불가)
- 2부 : 삼국유사 뮤지컬 "단군"
- 3부 : 대동마당 [사회 : 방송인 김병조]
  신비, 비바보체, 윤사월, 박정식, 장미화, 이마음



주 최 : 麟角寺 / 군위군 주 관 : (사)일연학연구원
후 원 : 대한불교조계종종무원 |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은해사 |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 대한불교조계종 원융화쟁회 | 삼각산 도선사

일거수일투족 '참 나' 찾는 화두 들어 대오견성하라



스승 없이 깨달았다면 그는 천마외도다
화두일념 지속되면 깨닫는 과정은 찰나

"법상에 오르기 전에 한 말씀 이르고 오르십시오" 하니, 또다시

"장삼자락 놔라."

한 마디 이르고 올라가라 하면, 거기서 우물쭈물할 것 없이 석화전광으로 한 마디 척 이르면 되는데 어째서 그러지 못하느냐, 그것은 당당한 안목(眼目)이 열리지 않은 데에 허물이 있는 것이라, 이 법담(法談)이라는 것은 돌사람도 땀을 흘리고 쇠사람도 땀을 흘린다 했으니 임기응변에 척척 바른 답이 나오기란 천고(千古)에 귀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진리에는 법신의 진리, 여래선의 진리, 향상의 최고의 진리가 있는데, 이는 향상의 정안(正眼)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향상의 일구의 진리를 투과한 자는 천불만조사(千佛萬祖師)가 나온다 하더라도 당당한 것이니, 이것이 호활견성(號曰見性)이요, 모든 불조(佛祖)가 면밀히 법을 전한 바탕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눈을 갖추지 못하면 만인의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40여 년 전에 향곡 선사께서 이 일화를 들어 산승에게 물으시기를,

"네가 만약 당시에 고봉 선사였다면, 금오 선사가 장삼자락을 붙잡고 법상에 오르기 전에 한 마디 이르고 오르라 하면 무어라 하겠느냐?" 하시니, 산승이 문득 벽력같은 '할(喝)'을 하였습니다.

"어억[喝]!" 이게 '할'입니다. 이렇게 '할'을 하자 향곡 선사께서,

"네가 그러할진대 부산시민의 눈을 다 멀게 하여 가리라" 하셨습니다. 눈 밝은 선지식이 아니면 이렇게 바르게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승이,

"소승(小僧)의 허물입니다" 하니, 향곡 선사께서

"노승(老僧)의 허물이니라" 하셨습니다.

남방(南方)과 북방(北方)의 선의 안목의 세계는 이같이 천지현격(天地懸隔)의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사자오(無師自悟), 즉 스승 없이 깨달았다 하는 자는 천마외도(天魔外道)다"라고 가풍(家風)을 세워 놓으셨으니, 광대무변한 진리의 세계, 허공보다도 넓은 진리의 세계를 다 보지 못하고 동쪽 한 면만 보고 시방(十方)을 다 보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야만 금생에 이 일을 다 해 마칠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못하면 몇 생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눈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부처님의 심오한 진리를 설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니, 만인의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향곡 선사 회상에서 산승이 '香嚴上樹話(향엄상수화)' 화두를 들고 2년 5개월간 씨름해 해결하니 모든 법문에 막힘없이 답이 척척 나왔습니다. 오직 '일면불월면불(日面佛月面佛)'이라는 마조(馬祖) 도인의 법문에 막혀서 또다시 씨름을 했습니다. 5년 만에 화두를 해결해 오도송(悟道頌)을 읊으니,

한 주장자를 휘둘러서 청정법신(淸淨法身) 비로정상을 거꾸러뜨리고(一棒打倒毘盧頂)/ 벽력 같은 '할'로써 천만갈등을 다 문대버림이로다(一喝抹却千萬則)/ 두 칸 띠암자에 다리를 펴고 누웠으니(二間茅庵伸脚臥)/ 바다 위 맑은 바람 만년토록 새롭도다(海上淸風萬古新).

산승이 깨달은 바를 이렇게 글로 써서 향곡 선사께 올리니 "임제(臨濟)의 가풍이 여기에 다 있구나" 하시면서 법을 전하시었습니다.

향곡 선사께서는 동해안 월내 묘관음사(妙觀音寺)에 선원을 개설해 머무르시면서 향상일로(向上一路)의 종풍(宗風)을 크게 선양하셨습니다. 정미년(1967) 하안거 해제법회시에 향곡 선사께서 법문을 내리시기 위해 법상에 올라 좌정해 계시는데, 산승이 나아가 삼배를 올리고 여쭸습니다.

"선사께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모든 불조께서 아신 곳은 여쭙지 아니하거니와, 모든 불조께서 아시지 못한 심오한 진리의 한 마디를 일러 주십시오."

그러자 향곡 선사께서 "구구(九九)는 팔십일(八十一)이니라" 하시니, 산승이 다시 "그것은 불조께서 다 아신 진리입니다"라고 답하니 "육육(六六)은 삼십육(三十六)이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산승이 가타부타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물러가니 "오늘 법문은 다해 마쳤다" 하시며 아무 말 없이 법상에서 내려와 조실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날 산승이 다시 위의를 갖추어서 조실방에 찾아가 묻기를 "불안(佛眼)과 혜안(慧眼)은 여쭙지 아니하거니와 어떤 것이 납승(衲僧)의 눈입니까?" 하니, 향곡 선사께서 답하시기를,

"나이 많은 비구니 노릇은 원래 여자가 하는 것이니라(師姑元來女人做)"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산승이 "금일에야 비로소 선사님을 친견했습니다" 하니, 향곡 선사께서 물으시기를,

"네가 어느 곳에서 나를 보았느냐?" 이에 산승이

"빗장 관자, 關(관)!" 이렇게 답하니,

"옳고, 옳다!" 하시고, 전법게를 내리셨습니다. 당시 산승의 나이가 33세였습니다.

진제 법원 장실에 부치노니(付眞際法遠 丈室)/ 부처님과 조사의 산 진리는(佛祖大活句)/ 전할 수도 받을 수도 없나니(無傳亦無受)/ 이제 그대에게 최고의 산 진리를 전하노니(今付活句時)/ 만인 앞에 진리의 전(廛)을 펴거나 거두거나 그대에게 맡기노라(收放任自在).

이것은 부처님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가풍입니다. 향곡 선사께서 열반 직전 4일 전에 제방을 돌아다니시면서 고준한 법문 하나를 들어 물으셨는데, 부처님의 심인법(心印法)을 이은 중국의 대선지식인 임제 도인의 '탁발화(托鉢話)' 법문이었습니다.

임제 선사께서 하루는 탁발하기 위해 어느 집 대문 앞에 이르러 문을 두드리니, 한 노보살이 문을 열고는 물었습니다. "어찌 왔느냐?" 그러자 임제 선사께서

"탁발하러 왔습니다" 하시니, 노파가 문득 말하기를 "염치없는 중이로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임제 선사께서 "한 푼의 시줏물도 주지 않고 어째서 염치없다 하는고?"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노보살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문을 왈카닥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임제 선사께서는 아무 말도 않고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 법문을 들어서 그 당시에 제방의 조실들을 찾아가서

"그대가 만약 임제 선사가 되었다면 노보살이 대문을 왈카닥 닫고 들어갈 때에 뭐라고 한마디 하겠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제대로 답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한 조실스님이

"옛 도인들이 이 법문에 대해서 평을 하고 점검한 일이 없다!" 하시니, 향곡 선사께서

"고인(古人)들은 한 바가 없지만 한 마디 해 보라면 척 나와야 될 거 아닌가?" 하고 다그치니, 그때 가서야 한 마디 나왔습니다.

당시에 산승이 부산 해운정사 마당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향곡 선사께서 들어오셔서 산승을 보자마자 '임제탁발화(臨濟托鉢話)' 법문을 들어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당시에 임제 선사가 되었던들 노보살이 대문을 왈카닥 닫고 들어갈 때에 뭐라고 한 마디 하겠느냐?" 하고 마당에 서서 물으셨습니다. 들어가서 인사도 받고 물으셔도 될 것인데, 제방 조실스님들의 안목이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승이 즉시 답하기를 "30여 년 간 말을 타고 희롱해 왔더니(三十年來弄馬騎)/ 금일에 당나귀에게 크게 받힘을 입음입니다(今日却被驢子撲)" 하니, 선사께서 산승의 손을 붙잡으면서 "과연 나의 제자로다!" 하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선사께서 임종하시기 4일 전의 문답이었습니다. 이때 산승의 나이가 46세였습니다. 향곡 선사께서는 산승에게 "진제(眞際, 산승)는 과거 전생에 이 법정(法庭)에서 많이 놀았던 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남전(南泉) 도인 회상에서는 항시 700여 대중이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고양이 한 마리를 두고 동쪽 선방 대중과, 서쪽 선방 대중이 서로 자기 고양이라고 주장하며 시비가 분분했습니다.

남전 도인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는 대중을 모두 법당에 모아놓고 시자에게, "고양이를 잡아오고 칼을 가져오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손으로는 고양이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칼을 들으시고, "동쪽과 서쪽 선방 대중들이 이 고양이를 두고 서로 자기 고양이라 하니, 금일에 이 고양이에 대해서 분명히 이르는 자가 있으면 이 고양이를 살려 두거니와, 분명히 이르는 자가 없을 것 같으면 고양이를 두 동강이 내리라" 하시고는,

"일러라! 일러라! 일러라!" 세 번을 물으시는데, 법당에 모인 700여 대중이 다 꿀 먹은 벙어리라, 남전 도인께서 이르라는 그 뜻을 아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남전 도인께서 약속과 같이 칼로 고양이를 두 동강이 내어 던져 버리고는 당신 방으로 돌아가 쉬고 계시는데, 밖에 볼일을 보러 나갔던 상수제자 조주(趙州) 스님이 돌아오니, 오전의 일을 들어 물으셨습니다.

"오전에 이러한 고양이 법문이 있었는데, 그대가 만일 그 대중 석상에 참여했던들, 무어라고 한 마디 하려는고?" 하시니, 조주 스님은 머리에 신짝을 이고 방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이에 남전 도인께서,

"조주가 당시 있었던들, 고양이를 살렸을 것이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법문을 들어 금오 선사께서는 산승에게

"신짝 이고 나가는 것을 어떻게 보는고?" 하고 물으시니, 산승이 즉시 답하기를,

"태평세월은 원래로 장군으로 만연하여 태평세월이 이루어짐이나(太平本始將軍致) 장군이 태평세월을 보고 있는 것을 허락지 아니함입니다(不許將軍見太平)" 하니, 금오 선사께서 멋진 답을 했다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대중여러분,

화두일념(話頭一念)만 지속이 되면 그 깨닫는 과정은 찰나인 것이니,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세상사에 정신없이 세월만 낭비하지 말고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 '참 나'를 찾는 화두와 씨름해서 대오견성으로 천불만조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장부(大丈夫)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필경(畢竟)에 일구(一句)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과의 밝은 구슬은 하늘과 땅에 빛남이요.(一顆明珠輝乾坤)/ 100번이나 단련된 진금은 색이 영원토록 변치 않음이로다(百鍊眞金色不變).

[拄杖子로 法床을 한 번 치시고 下座하시다.]

정리=조동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불교학 연구에 현장성 부여… 재물을 잘 활용했던 선각

강사 : 이민용(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
이진두(불교신문 논설위원)
일시 : 2010년 9월 8일
주제 : 한국 불교를 빛낸 재가불자 2인을 조명하다
장소 : 다보원 법당
주최 : 대한불교진흥원 '불교와 사회 포럼'
주관 : 월간 불교와 문화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과 월간 〈불교와 문화〉는 2010 대원문화의 달을 기념해 9월 8일 대한불교진흥원 다보원 법당에서 '불교와 사회 포럼' 특별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재가불자의 표상이며 설립자인 대원 장경호 거사를 추모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9월을 대원문화의 달로 정하고 한국불교를 빛낸 분야별 재가불자를 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학술·언론분야에 공로를 세운 두 재가불자 불연 이기영 거사(1922~1996)와 덕산 이한상 거사(1917~1984)의 업적에 대해 고찰했다.

이민용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가 '이기영 거사 – 시대를 앞선 전환점 위의 학자'를 주제로, 이진두 불교신문 논설위원이 '이한상 거사 – 불교언론 발전과 한국 불교 세계화의 초석을 놓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의 요약이다.



이민용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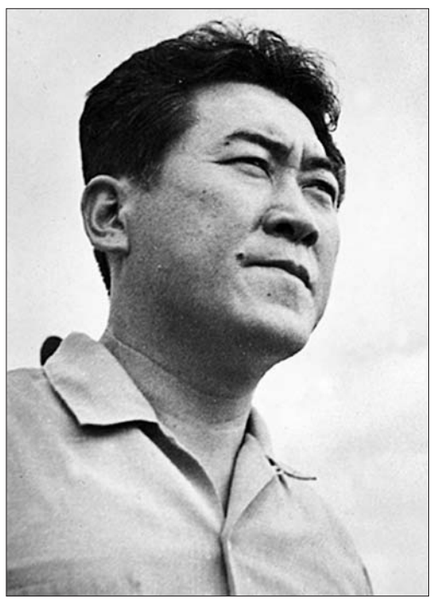
이진두
불교신문 논설위원

#불연 이기영(不然 李箕永·1922~1996)

오늘날 불교학계에서 이기영 교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불교계뿐만 아니라 한국의 인문학계를 통틀어서도 불연 이기영을 인지하지 못하는 학자들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1960~1970년대 어느 정도 문화의식과 사회의식을 지니고 산 세대라면 더욱 그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질 것 같다.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사에서 '원효'를 언급하면 피할 길 없이 불연 이기영 거사를 연상하도록 돼 있다. 원효는 그의 학문적 혜성이었고 원효는 그의 별칭으로 따라다녔다. 불연 이기영이 타계한 지 14년째인 오늘도 그의 전집은 계속 출간되고 있으며 그가 세운 '한국불교연구원'은 그의 10주기를 기념하는 국제회의를 2006년에 주관해 그를 학문적으로 추념했다. 한 평범한 인문계 학자로서 사후에 이만큼 추모되고 기억되고 그 정신을 기린다면 불연 이기영은 무척 행복하고 성공적인 학자였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한국 문화와 사회, 그리고 정치적 영역에 걸쳐 불교를 주어(主語)로 놓고 한국의 역사, 문화, 철학을 언급한 학자는 근소하다. 1960년대 근대적 조류가 물밀 듯 닥쳐올 때 불교를 한국 문화의 근간으로 여기며 논의의 소재로 삼은 학자로 불연 이기영을 거명해도 좋을 듯 싶다. 곧 그는 과감히 불교를 소재로 문화, 역사, 정치에 접근하며 불교적 전망을 펼쳤다. 무엇보다도 근대적인 학문의 틀이 서구



불연 이기영(不然 李箕永 · 1922~1996)
사진제공=불교와 문화

는 불교계의 하나의 사건으로 지목될 연구소의 설립이었다. 한국불교연구원은 당시로서는 거의 초유의 활동단체였다. 불연은 불교 사상을 원효 스님이 접근했던 방법을 채택하며 서구적 불교 연구의 틀을 극복하려 했다. 불연은 불교학 연구는 신

불교를 한국 문화의 근간으로 여기며
한국의 역사 · 문화 · 철학 언급

주도적인 방향을 지향할 때, 불연이 자신의 학문적 정향(scholarship)을 어디로 설정했는지는 관건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해방 이후 불교학계로서는 거의 초기에 해외 유학을 했으며 서구의 영향을 받은 불연이 어떻게 서양적인 것과 동양적인 것의 상충을 이해했으며 수입 일변도적인 종속적 의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불연은 집안의 종교적 가계의 인연으로 가톨릭이었으며 그 인연으로 유럽으로 유학을 가게 됐다. 보기에 따라 행운일 수도 있고, 더욱 해외 유학이라는 당시로서는 학자가 되기 위한 가장 큰 혜택일 수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 해외의 학연(學緣)으로 말미암아 수입된 학문의 내용이 그들을 끝내 서구 학문의 수입상 내지 대변인의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불연의 경우 이런 경향을 전변시킨다. 그는 귀국하자마자 원효를 내세우며 강의를 펼친다. 민족의식과 내 것 찾기에 몰두했던 4 · 19세대에게 불연은 불을 지피는 것이었다.

오늘날 불연 이기영 하면 학문, 신앙상으로 원효 전문가를 연상하지만 또 하나의 그의 대명사는 '한국불교연구원'이다. 1974년 개설된 당시로서

학과 같이 신행과 결부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불교연구원에 과감하게 구도회를 부설로 둔다. 연구와 신행이라는 단순한 이원 조직으로 보일지 모르는 형태이나 여기에는 실로 불교 연구의 획기적 전환을 시도하는 의미가 깃들어 있다. 종래의 불교 연구가 서구의 언어, 문헌학적 지적 작업이었다면 신행의 강조는 그것에 현장성을 부여하는 새로운 지향의 불교학 연구의 진로였다. 곧 서구 문헌 속에 갇힌 도서관 속의 불교, 화석화된 불교와 호교론적 사찰에 갇힌 불교를 극복하는 일이었다. 변화하는 사회와 생동하는 생활 속에서 불교가 어떻게 재현돼야 하는가를 지향했다. 이러한 방향 전향과 자리매김을 한 이후 불연은 모든 활동을 한국불교연구원의 목적과 사업 안에서 전개했다. 그는 한국불교연구원을 자신의 총화로 생각하고 그의 모든 학술 활동, 사회참여를 이 기구를 통해 표출했다. 불연은 다양한 활동과 다면불적인 면모를 지닌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는 서구 근대 불교학의 도입과 그것을 극복하려 했고, 한국적 사상으로서의 불교사상을 현대적으로 발현했으며, 종교적 심성의 재활을 통한 우리 민족과 인류공동체의 평화로운 미래를 꿈꿨다.

#덕산 이한상(德山 李漢相·1917~1984)

덕산 거사는 재력가이면서 불교를 위해 자신의 재력을 어떻게 썼는지 우리에게 보여줬고 불교인으로서 자신의 신행생활에 얼마나 엄격했는지도 알게 했다. 재력이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 가진 것을 참 뜻있게 쓰는 사람이야"라는 말을 듣기는 쉽지 않다. 또 많이 베풀면서도 티를 내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하기란 정말 어렵다.

경기도 개풍군 임한면에서 4형제 중 2남으로 출생한 덕산 거사는 1938년 경기공립공업학교(경기공업전문학교 전신)을 졸업하고 일찍이 토건업에 투신해 자수성가한 사업가가 됐다.

덕산 거사와 친분이 남달랐던 박성배 교수(미국 스토니브룩대)는 덕산 거사를 "대학생 불교운동을 오랫동안 재정 지원했고 대학생 불자 수련대회를 통해 자기 신앙생활을 정리했으며 한국불교 100년사를 편찬, 최근대 불교사를 정리하고 '불교신문'을 인수해 정상 궤도에 올렸다.

그리고 삼보학회를 조직, 장학사업을 했으며 현재의 일요법회 형식 절차에 절대적인 공헌을 했다. 또 미국에 와서 최초로 전통적인 사찰을 건립해 미주에서 한국 불교운동에 진력했다. 덕산 거사는 한국 불교 현대화에 큰 공헌을 한 분으로 한국 불교사에 기록할 만한 인물이다"고 술회했다.



덕산 이한상(德山 李漢相 · 1917~1984)
사진제공=불교와 문화

한국 불교 언론 발전의 초석 이뤄
삼보법회 통해 포교 확대

인재 양성에 열을 쏟았다.

또 삼보학회 산하에 삼보장학회를 두어 영재 양성에 큰 뒷받침을 했다.

덕산 거사의 또 다른 큰 업적은 군승제도 실현에 기여한 것이다. 그는 1968년 세계불교도우의

– 불교 언론 창달에 큰 역할

덕산 거사는 '대한불교신문'의 발행인과 사장을 맡아 불교 언론 창달에 큰 기여를 했다. 오늘날 '불교신문'인 '대한불교신문'은 조계종의 기관지임에도 자체의지로 발행되지 못하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개인에게 위탁돼 운영되고 있었다. 덕산 거사는 행원 스님의 설득으로 신문을 맡기로 하면서 총무원에 편집권과 인사권의 보장을 요구했다. 이것은 총무원의 지나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신문이 한 종파의 기관지에 머물지 않고 범불교적인 한국 불교의 공론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신문을 인수하고 나서 제호를 '대한불교'에서 '대한불교신문'으로 바꾸고 신문의 위상을 명확히 세우고자 했으며 8면으로 증면하고 질적 양적으로 급속하게 성장시켜 한국 불교 언론 발전의 초석을 이뤘다.

– 인재 양성과 군 포교활동에 힘을 쏟다

덕산 거사는 대학생불교연합회와 봉은사 대학생 수도원, 불교종립학교를 재정 지원함으로써

회(WFB) 부회장에 선출됐다. 이를 계기로 한국불교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세계 저명 불교 인사를 한국에 초청했다.

한국이 베트남 파병을 눈앞에 두고 있던 때 덕산 거사는 WFB회장인 태국의 푼 공주와 베트남의 틱탐 차우 스님을 각각 초청했다.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하기까지 한국군에는 기독교와 천주교의 군목과 신부는 있어도 불교의 군법사는 없었다. 불교계에서는 여러 차례 군법사제도 도입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내한한 차우 스님은 "베트남인에 대한 군법사의 선무활동 내지는 포교에 기대를 건다"고 말했다. 베트남 불교의 지도자인 차우 스님의 군법사에 관한 발언은 비록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했으나 우리 정부가 그냥 듣고 넘길 일이 못됐다. 불교계에서 군법사제도의 도입을 요청할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를 앞세우던 정부당국이 베트남 파병과 함께 군법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덕산 거사의 불교를 통한 민간외교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정리=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도우미] 검색 →
114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2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무료 수강생 모집

"아는 것이 힘이요, 기술이 능력이다.
이것이 재력이다"

이 기술은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통증관리사** 등 건강과 관련한 직종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술이다.

이 기술은 우리 인체의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즉석에서 제거할 수 있는 신비한 기술이다.
(각종 두통, 목이나 허리 디스크, 척추 전만 후만 측만증, 척추 협착증, 오십견 각종 어깨의 통증, 팔을 들지 못하는 증, 팔의 회전이 어려운증 등 골반이 변위되어 각종 통증이 발생한 경우, 몸이 한편으로 기우는 경우, 장단족, 무릎이나 발목의 변위로 발생하는 각종 통증 등 1000여종이 넘는 수많은 외과적인 질병들이 즉석에서 회복하는 것을 직접 실기로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여 드림)

■ 효과는 마약이나 진통제보다 빠르게 즉석에서 효력을 알 수 있음.
■ 부작용은 단 1%로도 없음.
■ 도구가 필요하지 않음.
■ 이 기술은 경락의 이름이나, 근육의 명칭이나, 골격의 명칭이나, 병명을 몰라도 치료되는 기술이라 배우기가 너무나 쉬워 배우면 즉석에서 활용하는 기술임.
■ 시술 시에 힘이 들지 않아 하루 수십명도 시술이 가능함.
■ 이 기술을 배운 후 취업이나 창업도 지원함.

원심한의원 051)803-0161
원심수기 보존회장 원공 019-305-9138

회 원 모 집
世界佛教 宇州 大圓 宗團發展 總聯合會
◆회원종단 : 韓國佛教 一大圓 曹溪宗
大韓佛教 宇州 大 法王宗

世界佛教宇州大圓 宗團發展 總聯合會는 종단연합단체입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함께하실 회원종단 및 종도를 모십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입회(종)서류
● 입회(종) 신청서 1부
● 사찰 사암 등록증 1부
● 승려(법사) 등록원부 1부
● 사진 3매
● 기타 서류

▣ 특전
각 회원종단의 화합과 교류를 목적으로 하여 사찰 사암 개인 재산은 협회 및 회원 종단에서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世界佛教宇州大圓 宗團發展 總聯合會 회장 도원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64-8
전화 011-286-2439 / 031)953-7045. 952-4077

요절복통 여래네 집

#26. 엄마 되기



스튜디오 돌

#8,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에서 밝혔다시피 여래 엄마와 아빠는 같은 학교 동아리 선후배 사이로 만나서 결혼에까지 골인했답니다,



알콩달콩 신혼 생활을 하던 어느날 엄마가 배가 아파 병원에 갔더니



엄마는 왠지 혼자는 가기가 쑥스러워 아빠와 함께 산부인과에 갔더랍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데 들어올 때와는 다르게 걷는 것도 조심스러워지더라네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댁과 친정에 이 기쁜 소식을 전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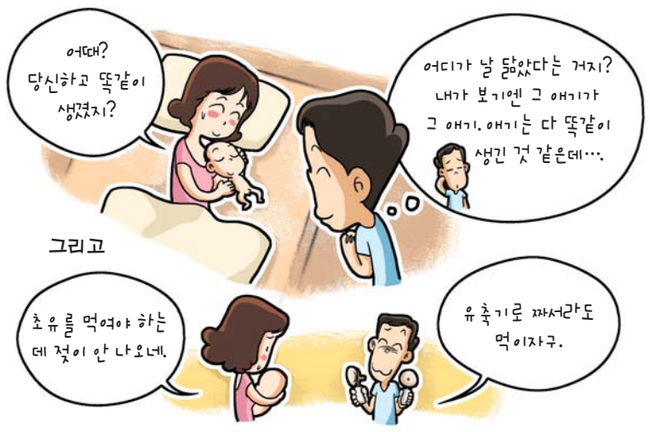
아빠는 한 술 더 떠서 친구 및 선후배들에게까지 전화를 해대네요,



그날부터 아빠는 엄마 때문에 바빠졌어요,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여래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던 날



그리고



※ 초유에는 아기를 보호하는 면역항체가 많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외할머니가 산후조리를 해주시는 동안은 괜찮았지만 산후조리가 끝난 후 외할머니가 시골로 내려가시자 엄마와 아빠는 정신이 없어졌답니다,



익숙해지는 데까지 제법 시간이 걸렸지요,



어느 덧 조금 여유가 생기자 그때부터 엄마는 아기의 모든 게 신기하게만 느껴지더라네요,



또 다시 시간은 흘렀고 엄마는 조금씩 조금씩 진짜 엄마가 되어 갔답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지요, 아기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모든 일들이 엊그제 일 같은데 어느 틈에 여래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고, 둘째 보리도 일곱살로 씩씩하게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답니다,



이주일의 화두

함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로 되돌아와 나를 손상시킬 것이다.

자경문



세계적인 명사 달라이 라마의 말씀을
이제 DVD로 오래오래 간직하세요!

달라이 라마의 위대한 하루
선라이즈 선셋 DVD
Sunrise / Sunset
25,000원 (택배비 별도)

달라이 라마가 일상의 대화에서 직접 전하는
따뜻한 삶의 교훈과 위대한 메시지가 담긴 유일한 영상!!
〈선라이즈 선셋〉 DVD는 뜻깊은 선물과 가치있는 소장품이 될 것입니다!

제공|제작 PREVISION 프리비전 엔터테인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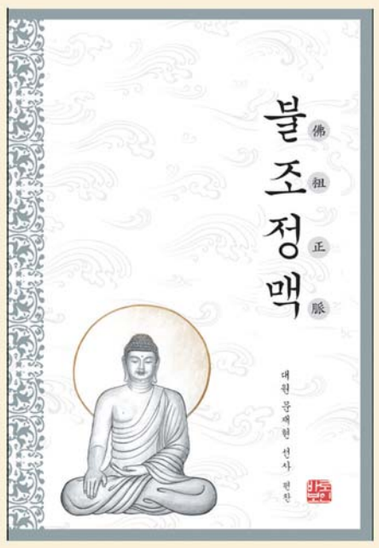
구입 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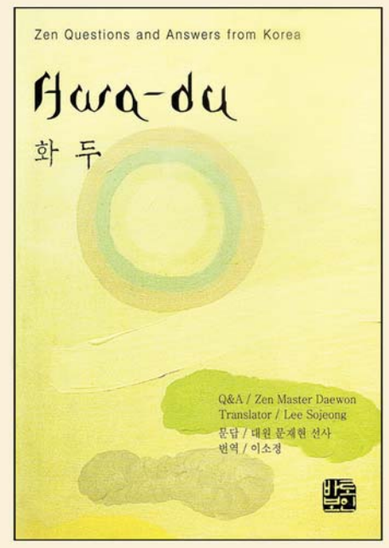


정맥진영과 전법게를 다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불조정맥

한국의 선(禪)을 세계에 드날리는 화 두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불조정맥

종조 석가모니불로부터 현 78대에 이르기까지 불조정맥진영(佛祖正脈眞影)과 정맥전법게(正脈傳法偈)를 온전하게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다년간 수집, 정리하여 기도와 관조 끝에 완성하였다.

신간! 화두/Hwa-du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평생 동안 제자와 도반들, 선사님들과 나누었던 선문답. 현대에 생생히 살아있는 '화두'! 영역하여 우리말과 함께 실어서 세계에 자랑스러운 한국의 선(禪)을 소개하고 있다.

도서출판 바로보인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한용운 편 <불교대전>(범어사, 1914)
안진호 <석문의범>(만상회, 1935)
이운허 편 <불교사전>(법보원, 1961)
이지관 <한국불교 소의경전 연구>(해인총림, 1969)
대한불교정년회 편 <우리말 팔만대장경>(법통사, 1963)
대한불교조계종 편 <불교성전>(조계종 교화사업후원회, 1972)
불교문화연구원 편 <한국불교 찬술문헌총록>(동국대학교출판부, 1976)
백용성 <귀원정종>(중앙포교당, 1913)
한용운 <조선불교유신론>(불교서관, 1913)
이기영 <원효사상-세계관>(원음각, 1967)
박선영 <불교의 교육사상>(동화출판공사, 1981)
윤호진 <무아윤회문제의 연구>(민족사, 1992)
안진호 <신편 팔상록>(만상회, 1942)
김동화 <불교학개론>(백영사, 1955)
김잉석 <화엄학개론>(동국대학교출판부, 1960)
김동화 <불교교리발달사>(삼영사, 1977)
정승석 <인간을 생각하는 다섯 가지 주제>(대원정사, 1996)
신소천 <금강반야바라밀경 강의>(사바도원, 1936)
김용담 <선가귀감>(선학원, 1971)
고형곤 <선의 세계>(태학사, 1971)
이성철 <선문정로>(해인총림, 1981)
이원섭 <깨침의 미학>(법보신문사, 1991)
정성본 <중국 선종의 성립사 연구>(민족사, 1991)
권상로 <조선불교약사>(新文館, 1917)
이능화 <조선불교통사>(新文館, 1918)
최남선 <조선불교>(조선불교청년회, 1930)
박종홍 <한국사상사-불교사상편>(서문문고, 1972)
박길진 박사 화갑기념논총 <한국불교사상사>(원광대학교, 1975)
안계현 <한국불교사상사 연구>(동국대학교출판부, 1983)
김영태 <한국불교사개설>(경서원, 1986)
허흥식 <고려불교사 연구>(일조각, 1986)
고익진 <한국고대불교사상사>(동국대학교출판부, 1989)
임혜봉 <친일불교론>(민족사, 1993)
김상현 <역사로 읽는 원효>(고려원, 1994)
김광식 <한국 근대불교사 연구>(민족사, 1996)
고유섭 <조선 탑파의 연구>(을유문화사, 1948)
황수영 <한국 불상의 연구>(삼화출판사, 1973)
진홍섭 <한국의 불상>(을유문화사, 1948)
최완수 <불상 연구>(지식산업사, 1984)
홍윤식 <한국의 불교미술>(대원정사, 1986)
강우방 <원융과 조화>(열화당, 1990)
황패강 <신라불교설화 연구>(일지사, 1975)
김운학 <신라 불교문학 연구>(현암사, 1976)
이상보 <한국불교가사전집>(집문당, 1980)
인권한 <고려시대 불교시의 연구>(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3)
한용운 <님의 침묵>(회동서관, 1926)
이광수 <원효대사>(생활사, 1948)
이종익 <사명대사>(통문관, 1957)
서경수 <세속의 길 열반의 길>(원음각, 1966)
석지현 <선시>(현암사, 1976)
법정 <무소유>(범우사, 1976)
김성동 <만다라>(한국문학사, 1979)
한승원 <아제아제 바라아제>(삼성출판사, 1985)
고은 <화엄경>(민음사, 1991)
최인호 <길 없는 길>(샘터, 1993)
김탄허 역 <신화엄경합론>(화엄학연구소, 1975)
한국불교전서 편찬실 <한국불교전서>(동국대학교출판부, 1979~1989)
동국역경원 <한글대장경>(동국역경원, 1964~2001)

한국불교 100년 대표불서 58권

민족사 윤창화 대표 1만여권 가운데 추려

"공자의 <논어> 9장 '자한편(子罕篇)' 22단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이 40이 돼도 이렇다 할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이 문구를 접한 뒤,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내 자신을 질타하는 것 같아 깊은 상념에 빠졌습니다. 기왕지사 그 분야에 몸담았다면 장인은 명품을, 학자나 저술가는 명저를, 철학 · 사상가는 인류의 지적 유산을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로 불교출판에 몸담은 지 30년이 된 윤창화(민족사 대표)씨는 최근 지난 1세기 동안 출판된 불교서적 가운데 '한국불교를 움직인 대표적인 책' 58권을 선정해 그 의의와 가치를 되묻는 한 권의 책을 출간했다.

30년이라는 세월동안 윤씨가 출간한 책은 600종이 넘는다. 윤씨는 "어리석지만 돈을 벌고 싶어 만들었던 책들도 있고, 돈과는 무관하게 만든 책들도 있다"며 "하지만 때론 한 권의 책이 교단의 등불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책도 있다"고 말했다.

그런 그가 지난 1세기 동안의 불교서적들을 다시 선별했던 것은 "불교출판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같은 작업을 통해 삶의 철학을 찾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근현대 100년(1901~1999) 동안 출판된 불교서적은 1만 2000권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윤씨는 이 가운데 명저, 화제의 책, 베스트셀러, 논쟁서 등을 중심으로 특필할 만한 책을 뽑아 평가와 리뷰를 했다.

"100년 동안 출판된 책 가운데 내용적 가치와 시대적 역할, 그리고 문화사라는 잣대 위에 올려놓고 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객관성을 갖고 판단했다지만 그 역시 주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한 출판인의 짧은 시야를 통해 선정된 책들이지만 이 책들은 그 시대에 학문적 · 대중적으로 적지 않은 역할을 한 책들입니다."

윤씨는 주관적이긴 하나 나름대로의 기준과 방법으로 책들을 선별했다. 시기는 1900~1996년 약 100년 동안 출판된 불교서적으로서 △불교학계나 교단, 승단, 불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책 △독창성 있는 연구를 통해 불교 및 불교학의 수준을 향상시킨 책 △학문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는 책 △해당 분야에 오랫동안 일정한 역할을 한 책 △새로운 시각과 관점 · 해석을 시도한 책 △참신한 주제를 통해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인 책 △불자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준 책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또한 오늘의 시점이 아닌 그 시대를 기준으로 책을 평가했으며, 저자의 이름이 아닌 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전집, 사전류, 기념논총, 경전 번역서, 자료 모음집 등은 가능한 제외했다.



윤씨는 "선정된 책들은 본디부터 본격적인 해제나, 서평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다. 시대적인 역할과 의의, 그리고 의미 부여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단점, 부족한 점은 가능한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책은 글을 쓰는 저자와 출판사, 그리고 독자 이 세 사람이 만들어 가는 지적 예술이다. 저자는 책 속에 자신이 탐구한 사유세계와 혼(魂)을 담고, 출판사는 정성들여 그 혼집을 짓고, 독자는 그 속에서 삶의 활력소를 얻는다.

윤창화씨는 혼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혼집들을 더 유심히 들여다 볼 수밖에 없다. 윤씨는 "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라는 말과 같이 적지 않은 책들이 명멸(明滅)했다. 하지만 시공을 초월해 지금도 여전히 독자의 마음에 남아 있는 책은 드물다"며 "많은 학자와 저술가들이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훌륭한 업적을 남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근현대 한국불교 명저 58선 | 윤창화 지음 | 민족사 | 1만8000원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저자 윤창화는 현재 출판사 민족사 대표이다. 해인사 강원 13회 졸업,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을 졸업했으며, 논문으로는 '해방 이후 역경과 그 의의' '한암(漢岩)의 자전적 구도기 일생패궐' '성철 스님의 오매일여론 비판'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왕초보 선박사 되다> <왕초보 불교 박사 되다> 등이 있다.

금오 스님 법문집 40년만에 재출간

"묘하다 묘하다, 마음이여! 사람마음, 짐승 마음, 새의 마음, 만경창파(萬頃蒼波)에 노니는 고기의 마음. 봄이면 꽃피고 가을이면 낙엽 지는 나무의 마음, 묘하고 묘하다, 만물의 마음이여! 너의 마음이나 나의 마음이나 틀림없이 똑같구나."

금오 스님의 법문집이 열반 40여 년만에 재탄생됐다. 금오선수행연구원(이사장 월서)은 2008년 10월 금오 스님 열반 40주기를 맞아 <금오스님과 불교정화운동사>를 펴내고 이어 법문집 <금오집>을 출간했다.

<금오집>은 1974년 월산 스님(前 불국사 조실)에 의해 처음 발행됐다. 하지만 당시 열악한 출판환경과 부족한 자료로 인해 금오 스님의 법문 중 상당 부분이 미번역된 채로 출간됐었다. 이번에 새롭게 출간된 <금오집>에는 전에 수록 · 번역되지 못했던 게송들을 다시 번역하고 금오 스님이 남긴 서신과 사진들을 보강해 새롭게 단장했다.

금오 스님은 1953년 5월 정화불사(淨化佛事)의 최초 발언을 통해 불교정화운동에 일조했다. 또한 월산, 탄성, 혜정, 월주 스님 등 4인의 총무원장을 배출하기도 했으며, 현재 고손상좌에 이르기까지 800여 제자가 불국사, 법주사, 금산사, 수덕사에서 그의 선맥(禪脈)을 이어 정진중에 있다.

월서 스님은 "금오 스님은 파란만장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항상 철두철미하게 수행에 정진하신 분"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스님의 정신을 귀감으로 삼아 수행에 정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오 스님은 후학들에게 '앉아야 할 때는 앉고, 떠날 때는 떠나고, 머물러야 할 때는 머문' 청정수행인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번 법문집은 스님의 행적을 더듬고 후학들에게 그의 안목과 선풍을 전하기 위해서 출간됐다.

꽃이 지니 바람이 부네 | 금오 스님 지음 | 금오선수행연구원 | 2만5000원

이은정 기자

타계 2주년 이청준 전집 출간

초기 중단편작 모아 '병신과 머저리' '매잡이' 2권

"소설은 언어의 질서를 통해 반성적으로 삶을 인식 해석하고, 창조적으로 사랑하며, 자유롭고 조화로운 새 세계를 꿈꾸는 담화 행위이다."

한국 소설문학의 큰 산이라 불리며 40년의 세월 동안 <서편제> <눈길> <당신들의 천국>등 굵직한 작품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왔던 작가 이청준(1939~2008). 우리 시대의 한과 아픔을 사랑과 화해로 승화하려 한 작가 이청준의 문학을 보전 · 재조명하고자, 타계 2주년을 기념해 '이청준 전집'이 출간됐다.

소설가 이청준은 말과 말의 질서를 통해 권력과 인간의 갈등, 집단과 개인의 불화, 언어와 사회의 길항 등 거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많은 작품을 통해 말해왔다.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작품에서 보여준 지성의 정치학, <서편제>가 풀어낸 토속적 정한의 세계까지 이청준의 문학은 우리 삶의 전방위를 아우르고 있다.

이번 전집은 그의 초기 중단편 소설들을 발표순으로 모아 1권 <병신과 머저리>, 2권 <매잡이>으로 펴냈다. 1권에는 12편의 중단편 소설, 2권에는 9편의 소설들이 수록돼 있다.

이 소설들은 작가가 연재를 마쳤으나 단행본으로 발간되지 않은 작품과 미완성작 등을 모두 엮었으며, 각 작품 말미에는 발표 연도를 밝혀 놓았다. 또한 이번 '이청준 문학전집'은 새롭게 교정 · 보완해 해설과 각 작품 텍스트의 변모 과정과 이청준 작품들의 상호 관계를 밝히는 글도 함께 실었다. 책은 이청준 문학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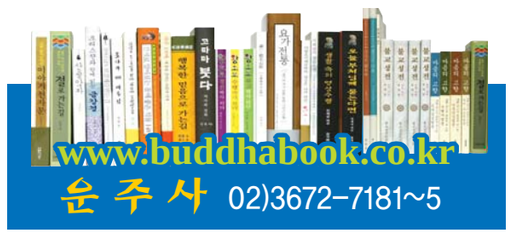
병신과 머저리 · 매잡이 | 이청준 지음 | 문학과지성사 | 1만1000원 · 1만원

이은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다음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법성	운주사
3	붓다 브레인	릭 핸슨	불광출판사
4	초기불교이해	각묵	초기불전연구원
5	이야기 숲을 거닐다	보경	민족사
6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7	젊은 날의 깨달음	혜민	클리어마인드
8	마중물의 힘	허달	여시아문
9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10	깨달음으로 가는 금강경	법산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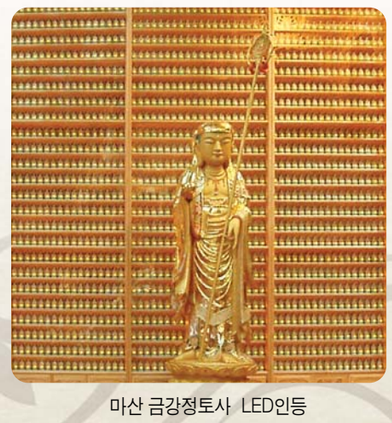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불교가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오색공단등 | 영가등 | 종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1.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행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종 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한국 다도 전통을 세우다

명원 김미희 조명서 나와… 5년간 200여 명 인터뷰

콜라, 커피, 홍차 등 음료는 세계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우리 생활에서 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이런 음료는 단순히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가 아닌, 하나의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쌍용그룹 창업주 김성곤의 부인이었던 명원 김미희는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음료의 문화가 발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서양과 달리 동양은 예부터 차(茶)를 즐겨 마셔왔다. 명원은 이런 동양의 차 중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다도(茶道)를 확립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다.

그런 그의 둘째 딸인 김의정(명원문화재단 이사장 ·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명원 김미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증언을 통해 그를 재조명하는 책을 출간했다. 김의정 이사장은 5년 간 명원 김미희를 기억하는 200여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인터뷰와 동영상 제작 등을 진행했다. 책에는 200명 중 45명의 증언이 생생히 기록돼 있다.

前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이었던 박래부의 증언에 따르면 명원 김미희는 음료문화가 앞으로 사람들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며, 음료문화로 인해 한 나라의 문화발전이 좌지우지 될 수 있음을 예견했다고 한다.

명원은 "1952년 헬싱키 올림픽 참관을 위해 우연히 덴마크 왕실 오찬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수십 명의 종업원이 의상을 갖춰 입고 질서 있게 음식을 나르며 테이블을 세팅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선진국이 되려면 음식문화가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설명하고 있다.

명원은 유서 깊은 안동 김씨 가문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다풍을 익혔다. 명원은 일제강점기가 끝난 뒤 사회적인 혼돈을 보면서 한국 차문화 부흥을 통해 국민의 정신문화를 풍성하게 해야하는 절박감에 늘 사로잡혀 있었다.

"내가 처음 다도를 접하게 된 곳은 확실히 일본이었다. 지금부터 15년 전(1952)에 일본을 여행하며 내가 관심있게 살피고자 했던 점은, 무엇이 일본을 부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인가 하는 것이었다. 마침 한 가정에서 정중한 차 대접을 받게 됐는데, 동작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는 진지한 모습에서 나는 일본인들의 숨겨진 위력을 보았다. 차 대접이 끝난 다음 그들이 내게 물었다. '한국에도 다도가 있습니까?'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명원 김미희(왼쪽)와 그의 남편 김성곤.

이 일화는 명원이 본격적으로 우리의 전통차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한 계기가 됐다. 1950~1980년대 명원 김미희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거의 사라지다시피한 우리의 전통 차 문화를 복원하기 위해 우선, 학술적인 줄기를 세우기 위한 관련 문헌과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조사했다. 당시 차 문화 연구자는 물론이며, 관련 자료 또한 전무한 시대에서 명원은 스스로 연구한 '한국 다도의 의식과 예절' '차에는 인간을 고결하게 하는 천성이 있다' 등의 논문을 남겼다.

또한 전통 차 문화의 실제 모습을 복원하기 위해 조선의 마지막 황후인 순정효황후 윤씨와, 김명길 상궁으로부터 궁중다례를 전수받고, 산사에 남아 있는 우리 차의 흔적을 찾아 전국을 뒤졌으며 민간의 수많은 다인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명원은 차 문화의 복원과 보급에 힘을 기울이면서 문화 · 여성 · 사회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피폐해진 불교 사찰의 중흥을 지원하는 한편, 수많은 여성단체와 문화단체, 그리고 문화 예술인 등을 후원하기도 했다. 이 책을 통해 한 여인의 삶의 자취를 통해 당시의 시대상과 차 문화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차茶의 선구자 명원 김미희 | 김의정 엮음 | 학고재 | 2만3000원

이은정 기자

■ 저자 인터뷰 - 김의정

"책 준비하며 어머니 재발견"



"저에게는 어머니는 있으되 안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년시절 가슴이 먹먹할 때에는 저의 소소한 일상을 들어줄 어머니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곁엔 그런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어머니의 손길이 그리워 가끔 꾀병을 부리곤 했습니다."

김의정(명원문화재단 이사장 · 조계종 신도회장 · 사진) 이사장이 기억하는 명원 김미희는 항상 올곧은 모습의 엄격한 어머니였다. 김 이사장은 "어머니는 늘 자식들보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분"이었다고 설명했다.

10대 시절부터 어머니와 함께 김명길 상궁으로부터 직접 궁중다례를 전수 받았던 김의정 이사장은 "차 문화를 계속 복원하고 보급시키라"는 명원의 유지를 받아 명원문화재단을 이끌고 있다.

김 이사장이 자신의 어머니를 회고하는 <차茶의 선구자 명원 김미희>를 출간하게 된 것은 차 문화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함이다.

김의정 이사장은 "처음 어머니가 차에 대해 나에게 이것저것 알려주며, 가르쳐주실 때는 어린 마음에 너무 하기가 싫고 짜증이 났다. 하지만 이번 책을 발간하기 위해 5년 동안 차 역사 탐방을 하면서 어머니의 다력(茶歷)을 찾을 수 있었다. 일지암과 칠불사, 그리고 제주도의 도순다원과 서광다원을 보면서 복받쳐 오르는 감명 속에서 비로소 나의 어머니가 한국 다도의 선구자로 살았던 명원 김미희의 삶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가을 바람 살랑 선율을 싣고


청량사 산사음악회 모습.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이젠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 다가왔다. 가을을 맞아 여러 산사에서는 청량한 바람과 어울릴법한 음악회들이 연이어 개최된다.

우선 산사음악회의 원조라 불리는 청량사 산사음악회가 올해로 10년을 맞이해 10월 2일 청량사 경내에서 열린다.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경북산간 오지의 깊은 산중에서 치러지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은 물론 전국적으로 많은 불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대표적 산사음악회 중 하나다.

10년 동안 청량사 산사음악회 행사 진행을 담당해온 좋은 벗 풍경소리 이종만 기획실장은 "이번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1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스텝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멋진 무대를 꾸려왔듯, '10년을 한결 같이 늘 처음 그 느낌처럼'이란 주제로 2001년 첫 회에 출연했던 안치환, 한영애 등이 다시 출연해

청량사 산사음악회 10년
도리사 · 심곡암 · 갑사 등 풍성

뜻 깊은 무대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30~40대의 젊은 불자들을 위해 가수 박강성, 소프라노 박소림 등의 무대가 2004년 창단된 뉴트리팝오케스트라의 연주에 의해 멋지게 공연될 예정이다.

이어 이종만 기획실장은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1회 때부터 똑같은 스텝들이 계속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어 서로간의 우정들이 끈끈하다"며 "이러한 내공이 지금의 청량사 산사음악회를 있게 해준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2008년 수해로 인해 2009년까지 행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청량사 내에 새롭게 단장한 선 체험관을 비롯해, 2010년 8월 25일 청량사 목조 지장보살이 보물로 예고되는 등 뜻 깊은 경사와 함께 이뤄져 더욱 의미가 깊다.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은 "산사음악회는 무조건 즐겁게 하는 것이 최고"라며 "미당 서정주 시인의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라는 시처럼 청량사 산사음악회가 많은 분들의 만음속에 은은한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054)672-1446

이은정 기자

#산사음악회 일정

△도리사 솔바람 음악회 9월 25일 (054)474-3737
△서울 심곡암 산사음악회 10월 16일 (02)914-8860
△공주 갑사 가을 산사 음악회 10월 30일 (041)857-8981
△인천 전등사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10월 2~10일 (032)937-0125
△해남 미황사 미황사 음악회 10월23~24일 (061)533-3521

한국의 인종차별을 고발한다

정지필 작가 '깜둥이' 사진전… 스페이스 선+에서 30일까지

스페이스 선+의 추천작가로 선정된 정지필 작가가 '깜둥이'란 주제로 9월 30일까지 사진전을 연다. '깜둥이'란 말은 흔히 흑인을 낮춰 부르는 말로 인종차별적 발언이다.

작가는 이 전시를 통해 인종 차별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그는 "한국은 살인, 폭행, 테러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지만 '단일민족'이라는 명목아래 어느 나라 보다 우리와 생김새가 다른 이들에게 변화를 요구하며,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지필 작가는 "영국 유학시절 당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인종차별을 겪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반면 정작 자신들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사람들을 제외한 저개발지국 나라 사람들에게는 우월감을 나타냈다"며 "사람들의 인식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설명했다.

작가는 이러한 이유를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꽤 발달한 나라일지는 모르나, 타 민족과 인종의 인권에 대한 이해나, 민족성을 앞세우면서 자신과 다른 것은 비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적 풍토가 다분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정지필 작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다 평범한 한국인이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피부가 검다. 작가는 사람들의 웃는 모습에 피부만 검게 만들어 흑인에 대한 친근함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런 작업을 통해 작가는 "관객들의 잠재의식에 작용해 있는 그들의 인식이 자연스럽게 바뀌어 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 작가는 "작품들의 검은 피부는 단순히 흑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좁게는 유색인종 및 저개발국 국가들, 넓게는 한국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즉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모든 사람을 뜻한다"고 말했다. (02)732-0732

이은정 기자

현지사 소개 그 두번째 이야기

겁에 한번 나오는 붓다회상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

영산불교의 종지 및 사상과 5대 수행덕목


2010년 5월 부처님 오신날

종지

팔정도 칭명염불로 삼계지존이고 남섬부주 교주이신 석가모니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삼계를 탈출하여 정토보살이 되며 나아가 붓다가 된다.

자력수행은 아라한이 한계입니다. 부처님의 외호와 큰 가피가 있어야만 보살과 붓다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생동안 큰 선근을 쌓아 붓다 회상을 만나야만 합니다. 당대 불과를 이룬 큰 스승이나 화신으로 인간 몸을 받아 오신 부처님이 계신 부처님 교단을 만나야만 합니다. 이곳 현지사가 바로 부처님 교단입니다.

사상

중생은 스스로 업을 지어 육도를 윤회생사하며, 윤회생사의 주체는 영혼체이다. 불과를 이룬 부처님들은 마음안도 아니고, 마음밖도 아닌 유무를 초월한 무아 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신다. 지혜 복덕과, 원력과 자비, 항사의 신통과 위신력을 지니시며 천만억 아승기 색깔의 무량억종광 빛으로 이루어진 32상 80종호의 거룩한 모습의 우주적 존재로 계신다.

깨달음은 불 · 보살로 나아가는 공부의 시작이다. 윤회를 벗어난 불보살의 적멸계가 있다.

대적정삼매를 얻어 무아 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시는 부처님을 친견하는 것, 4개의 겹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영혼체를 가장 내면의 본체 영역까지 확연하게 보는 것, 이것은 붓다의 지혜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견성 후 보림을 마친 대수행자가 가는 아라한의 세계가 있으며 아라한을 지난 무루 대아라한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타행과 팔정도 칭명염불 수행을 통해 부처님의 타력으로 갈 수 있는 보살의 세계가 있고 보살이 무수한 생을 거쳐 보살도를 완성하고 보현행원을 실현하여 마침내 도달하는 부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산불교는 온 법계의 실상을 알며 육도윤회하는 주체인 중생의 영혼체를 완전히 알고 있기에 그 어느 종교나 그 어느 불교 종파와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철학을 지니고 있습니다. 삼매에 들어 직접 보고 알게 된 진실한 사상입니다. 오직 영산불교의 깊은 사상을 통해서만이 팔만사천법문의 뼈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5대 수행덕목(행동강령)

첫 째, 부모님과 조상님께 효를 다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스승을 공경한다.
둘 째, 법의 계율을 목숨처럼 지킨다.
셋 째, 이웃을 사랑하고 이타의 보살행을 다한다.
넷 째, 말을 앞세우기 보다는 실천행을 우선한다.
다섯째, 부처님이 계시고, 또 우주적 구원력을 지니심을 태산같이 믿는다.

영산불교에서는 효와 충, 예를 주장하고 법의 계율을 목숨처럼 지킵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이고 수행자로서의 필수 덕목이기 때문입니다.이를 통해 증장시킨 지혜와 공덕을 중생을 위해 회향하고 보살행을 실천해 나가기를 가르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아 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이익됨을 알아가고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혜에 대한 믿음을 키워 나가는 것이 우리 영산불교가 지향하는 완전한 불교의 모습입니다.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II**
(16쇄 | 371면 | 25,000원. 385면 | 25,000원) – 한글 · 영어판 · 일어판 近刊
대형서점 종교서적 부분 6개월 연속 베스트 1위!

■ **영혼체 윤회론** (158면 | 10,000원)
진실한 나, 영혼체의 비밀을 파헤치다. 깊고 깊은 미개척의 영적 세계, 비밀의 장에서 건네온 우리 자신의 비밀. 겹겹이 겹쳐져 있는 인간의 4개 영체를 소개하고 오랜 비밀이었던 영혼체설을 정립한다. 자성(自性)은 만물의 근원일 뿐 비인격적 본질을 '진짜 나'라고 할 수 없다! 2000년 넘게 왜곡되어 해석된 무아설(無我說)을 바로잡고 삼법인(三法印)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는 이 시대 최고의 논서.

■ **관음태교, 관음태교에서 천도까지**
(187면 | 10,000원. 311면 | 15,000원)
행복한 삶의 시작과 끝을 결정지어 줄 값진 보서(寶書). 관세음보살님께서 현신하시어 직접 부촉하신 관음태교법. '관음태교'는 자녀 교육의 영역을 영아와 임신 전후의 기간까지 확장시킨 예비 부모의 필독서이다. 가정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영산불교에서 자신있게 타력태교를 세상에 내놓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인간 실체의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한평생을 좌우하는 영유아 시기의 교육 방법과 행복한 사후를 위한 대비책을 제시한다.

■ **칙천무후** (238면 | 15,000원)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 칙천무후. 역사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칙천무후의 삶과 그 의미를 종교적 차원과 고증적 접근을 통해 밝혀본다. 불세존의 법통을 이은 가섭존자의 후신이자 동시에 현지사 광명만덕 큰스님의 전신! 그녀가 불교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되짚어 불교사에서의 그녀의 위치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 자재만현 큰스님 BBS TV 법회 월1회 방영중!!
(QOOK 550, BTV 521, U+108번)

효를 실천하는 현지사에서는 천도대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현지사의 천도대재는, 부부 각각의 친 · 외가쪽 조상님 40여명과 인연 깊은 3~40명의 윗대 조상 영가님 모두를 삼매의 힘으로 수배하여 영가의 현주소를 파악 하고 집전 장소로 데려옵니다. 조상영가님과 복위자의 업을 소멸시켜주며 도량과 복위자의 집을 이전보다도 맑을 정도로 깨끗이 영적인 청소를 해줍니다. 이렇게 조상영가님들을 천도해 드리고 부처님께 공양올린 공덕으로 한단계씩 보다 높은 곳으로 올려 드립니다. 네번이면 무주고혼과 지옥의 영가들을 하늘 천국까지 올려드리는 세상에도 없고 역사에도 없는 희유한 천도재 입니다.

현지사 대법회 – 매월 음력 8일, 23일 http:// www.hyonjisa.com 영산불교 현지사 춘천 본사 033)243-1787,1795 / 대전 분원 042)525-5325, 5345 / 부산분원 051)554-5150

최연의 산 이야기 <26> 덕유산 3



백련사 일주문과 덕유산 능선. 일주문 현판은 탄허스님의 글씨다.

부용조사의 선풍이 묘향산 · 조계산으로 퍼졌구나

덕유산(德裕山) 봉우리들은 깊이 들어갈수록 자태가 수려해진다. 덕유산의 바깥쪽은 살기(殺氣)가 심하고 탁(濁)하게 생긴 봉우리가 많은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살기를 벗고 맑고 깨끗한 수기(秀氣)가 감돈다. 험하게 생긴 바위도 없고 흙살도 두터워 나무들도 잘 자라 산형(山形)이 대체로 둥글고 원만하다.

산줄기의 흐름이 유연하면서 생동감이 넘치고 두텁고 넉넉하나 무겁게 보이지 않는다. 덕유(德裕)라는 이름이 참 잘 어울리는 산세(山勢)이다. 두터운 흙살과 무성한 나무 때문에 많은 양의 물을 머금었다가 쉴 새 없이 토해내서 금강(錦江)으로 흘려보낸다. 그 흘려보내는 물줄기 중에서도 무주구천동 계곡이 수량이 제일 많고 맑기도 최고이다.

무주현은 무풍현과 주계현이 합쳐진 것으로 인조 때 만주에서 일어난 청나라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묘향산(妙香山)에 설치한 사고(史庫)를 무주의 적상산(赤裳山)으로 옮겼는데 나라의 중요한 문서를 보관하게 된 무주는 현(縣)에서 도호부(都護府)로 승격되고 부에 걸맞게 이웃에 있는 안성을 또다시 무주에 편입시켜 지금에 이르고 있다.

고종 35년(1898년)에 발간된 무주군지(茂朱群誌)인 <적성지(赤城誌):적성은 무주의 별칭>의 서문에 "대저 삼풍(三?)에는 문학(文學)이 많고, 안성(安城)에는 충신(忠臣)이 많고, 서호(西湖:주계)에는 숨어사는 사람이 많다"고 하였다. 이처럼 무주는 무풍, 주계(朱溪), 안성의 세 고을이 합쳐져서 생긴 고을이라서 그런지 문화와 기질과 전통이 서로 달랐던 모양이다.

그런데 무풍을 왜 삼풍이라 했을까? 삼풍과 양백은 <정감록(鄭鑑錄)>에서 십승지(十勝地)를 나타내기 위해 쓰기 시작한 말로서 삼풍(三豐)은 풍기(豐基), 무풍(茂豐), 연풍(延豐)을 말하고, 양백(兩白)은 태백(太白)과 소백(小白)을 말한다.

구천동에 대한 설화는 조선 명종 때 광주목사를 지낸 임갈천 쓴 <덕유산 향적봉기(德裕山 香積峰記)>에 나온다. 성불공자 9천명이 이 골짜기에서 수도하였으므로 구천둔(구천둔)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그들이 조석으로 씻은 쌀뜨물이 개울을 부옇게 흐리게 해서 이곳의 이름이 설천(雪川)이라고도 하며 암행어사 박문수의 설화에는 이곳에 구(具)씨와 천(千)씨가 많이 살고 있어서 비롯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기이한 바위가 9천 개가 있다고 구천동이라 하였다는 등 여러 가지가 전해진다.

숙종 때 소론(少論)의 거두 명제 윤증(明齊 尹拯) 같은 이는 덕유산을 일러 '불교의 소국'이라고 하였는데 당시 이곳에는 14개의 사찰이 있었다고 한다. 구천동 계곡에만 12사찰이 있었다는데 지금은 백련사만이 홀로 남아 옛 자취를 전해 주고 있고 나머지 사찰은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아 그 터가 어디인지 조차도 알 길이 없다.

덕유산이 배출한 인물 중에 특히 부용조사(芙蓉祖師)가 널리 알려져 있다. 부용조사는 법명이 영관(靈觀)이며 벽송대사(碧松大師)의 제자이다. 서산대사(西山大師)와 부휴대사(浮休大師)의 스승이기도 하다.

부용조사는 13살에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와 덕유산에 들어 어느 선승(禪僧)의 가르침을 3년간 받고 머리를 깎고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용문산, 청평산, 금강산 등지를 두루 편력한 후 다시 덕유산 구천동에 토굴을 짓고 9년 동안 용맹정진한 후 지리산으로 가서 벽송대사를 뵙고 가르침을 받아 큰 깨달음을 얻고 서산대사와 부휴대사에게 법을 전했다. 서산대사는 묘향산에서, 부휴대사는 조계산(曹溪山) 송광사(松廣寺)에서 선풍(禪風)을 크게 일으켰다.

덕유산 정상인 향적봉에서 서북쪽으로 갈라져나간 산줄기가 온 힘을 다해 치솟아 오르며 빚어놓은 산봉우리가 적상산(赤裳山)이다. 고려 공민왕(恭愍王) 때 최영(崔瑩) 장군은 제주도의 목호(牧胡)들을 토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적상산에 올라 "아름답도다. 산악의 굳셈이여. 이는 나라의 보배로다" 라고 칭송하고, 조정에 건의하여 적상산성을 쌓게 하였다.

산성(山城) 안에는 조선 광해군 때 5대 사고의 하나로 설치한 적상산 실록전(實錄殿) 터가 있는데 이곳에 보관되었던 실록은 그 후 구 황실에서 보존하여 왔었다. 병자호란 때에는 강화도가 함락되자 강화도에 보관되었던 실록의 일부가 없어져서 조정에서 유생 300명을 뽑아 적상산 안국사(安國寺)에 보관된 실록을 베껴서 다시 보충하기도 했다.

안국사는 지금보다는 조금 아래 있었는데 보기 드문 수도 터이다. 산꼭대기 분지인데 아담하게 생긴 봉우리들이 빙 둘러쳐져 있다. 마치 둥지처럼 보여 아늑한 기운이 느껴지며 선계의 기운이 흠뻑 감도는 천혜의 수도 터이며 복지이다. 그런데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발전에 필요한 물을 담아둘 저수지를 만드는 바람에 지금의 자리로 쫓겨 왔다.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소중한 옛것들이 무자비하게 사라져가는 현장이 아닐 수 없다.

■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칸나

거무튀튀한 빛이 스며나오는 짙푸른 녹음 속에서 칸나가 꽃을 피웠다. 넓은 잎이 주위의 풀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데다 꽃도 붉기가 예사롭지 않다. 저 붉은 빛을 뭐라 해야 할까? 핏빛보다도 밝고 생기가 넘친다. 무엇에 이끌려 사람들은 늦가을에 뿌리를 캐어 겨우내 보관했다가 봄에 다시 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일까?

어린 시절. 나는 한때 경기도 포천의 이동막걸리가 생산되는 양조장이 있는 마을에 살았다. 그곳은 마을 앞에도 옆에도 군부대가 있었다. 마을 안에 군인이 사는 집이 여러 채 있었던 이유다. 한 우물을 쓰며 옹기종기 모여 있던 우리 집 주위의 여덟 집 가운데서도 두 집이 군인 집이었다. 그 중 한 채는 다른 집과 마찬가지로 초가집이었지만 한 집은 달랐다. 동화에나 나오는 집이었다. 지붕도 초가가 아니었고 벽도 반듯반듯했다.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 틈에 정장을 차려입은 신사가 서있는 형세였다.

지금 생각하면 아마도 조립식 건물이 아니었나 싶은데, 돌을 쌓았는지 블록을 쌓았는지는 기억이 희미하지만 담도 네모 반듯하게 둘러쳐진 집이었다. 마당도 평평한 게 보통 집의 두 배는 돼서 이래저래 다른 집들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 집의 정면 담 안쪽을 따라 나있던 화단에 칸나가 있었다. 어쩌다 열려진 나무 대문 사이로 보이던 붉은 꽃과 커다란 잎.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꽃이었다. 유난히 붉은 꽃이 커다란 잎으로 떠받혀진 모양새였다. 붉은 빛으로 집 안 전체를 물들이던 꽃. 칸나의 빛은 붉디붉어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다. 그땐 칸나가 열대 지방에서나 자생하는 식물인지도 몰랐다. 참으로 이상한 꽃이었으나 그래서 40년이 흐른 지금까지 내 기억에 선명하게 남았다.

아내가 아랫집 아주머니에게서 2년 전에 얻어온 칸나는 올해도 어김없이 어린 시절의 붉은 빛과 잎의 크기 그대로 집 앞 길가에 자리를 잡았다. 풀과 나무들이 한창 푸르름을 드높이며 세상 전체를 뒤덮을 기상을 간직했던 때 함께 자라나 꽃을 피우더니, 무릇 풀과 나무들이 그 푸른 기세를 한 겹 접고 성장을 멈춘 시절로 접어든 지금도 잎을 키우고 새로운 꽃을 피우며 붉은 빛을 세상으로 퍼뜨리고 있다.

이곳에서 태어나지 않고
자라지도 않고
불쑥 들어와 터를 잡고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나는 아무래도
칸나인 것만 같다

세상물정 모르고 지 잘난 줄만 아는 칸나. 시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간 것도 모르는 칸나. 잠잠하던 9월의 시간 축을 흔들며 남녘에서 날아오는 태풍의 모습으로 칸나는 오늘도 내 집 앞에 섰다. 태풍이 오는 쪽, 남쪽나라 어디서 왔다는 윗집 며느리의 까무잡잡한 얼굴을 너는 닮았다.

그런데 너는 어디서 들어왔나? 내가 나를 바라보니 나도 칸나인 것만 같다. 이곳에서 태어나지 않고 자라지도 않고 불쑥 들어와 터를 잡고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나는 아무래도 칸나인 것만 같다. 이곳 사람들은 나를 보고 이상한 놈이라고 말하겠지. 어떻게 먹고 사는지 이상도 하겠지. 누군가는 내가 얼른 이곳을 떠나가주길 바라는 사람도 있겠지. 가야 한다면 어디로 가야할까?

태어난 곳, 그렇기에 가야할 곳을 아는 이 누구일까? 모르는 이 그 누군들 칸나가 아닐까? 사람들은 대개 나처럼 무지하고 온 곳을 모르니 갈 곳도 모른다. 오직 그 자리에서 자신의 힘을 다해 빛을 발하며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도 푸르게 살고 싶은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

겨울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살아있는 동안 내내 꽃을 피워도 좋은 곳을 고향으로 간 직한 꽃. 욕심이 과하다고 욕할 이 누구인가? 칸나의 고향은 그렇게 욕심껏 살아도 상관없는 땅이다.

내 집 앞에 꽃을 피운 칸나는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 어디에서 왔는지, 집 앞의 칸나는 알고 있을까? 모른다면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어울리지 않는 식물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땅에서, 머물러도 떠나도 이방인의 삶인데. 떠돌이 집시라도 되었으면 노래라도 부르지 춤이라도 추지. 슬픈 얼굴로 고요히 남쪽 하늘을 바라보는 운명을 간직한 꽃. 떠나온 곳이 그리워도 다시는 갈 수 없다.

■ 유승도 (시인)

당신의 운을 열고 발복(發福) 시키는 천도 도자기 출현?

"인간의 운명은 氣에 따라 바뀐다"
"氣가 없으면 운도 없고" "氣가 있으면 운도 옵니다"
"운이 있으면 건강은 절로 옵니다"

운(運)이 좋은 사람 공통점?
조상의 영혼과 자손의 관계가 좋아 평소 천상계의 기운이 잘 안착이 된 사람이성공 하는 것입니다.

현대과학 에서 보면 조상령, 태아령, 빙의 등 사고를 부르고, 병을 부르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 이 있습니다. 과학에서 보면 다 나쁜 기(氣), 파장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상의 뼈를 좋은 곳에 묻고, 영혼을 천도하는 것은 이러한 나쁜 파장을 상세 시키고 발복 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대과학이 개발한 치우천왕 도자기는 영계에 좋은 기를 보내주기 때문에 조상 영혼이 천도 되며, 입시를 앞둔 수험생 자녀 에게는 유전자 공명(共鳴)을 이용하여 조상과 후손이 공명되어 천상계의 좋은 기운을 학생이 공수 받아, 수험생은 집중력. 기억력. 논리력이 매우 높아지는 알파파가 매우 많이 형성되어 시험 합격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도자기의 파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증폭 시키는 파동으로 사업자는 귀인을 만나며, 혼자 사는 사람은 인연의 짝을 만나게 되는 신령함은 같은 주파수의 핸드폰이 서로 소통되는 것같이 치우 도자기의 공명이 상대방 마음에 파동쳐 일어난 사례입니다. 항상 자신의 몸속에 들어있는 나쁜 영 (병귀, 태아령) 영가의 장애로 가족 간에 상극을 받으며, 흉몽을 꾸고, 이유없이 몸이 피곤하고 무거워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던 사람 들이 도자기를 처소에 두고서 부터 영적인 장애가 풀리고 몸이 많이 회복되는 기적적 운이 상생 되고 있습니다.
운이 새고 돈의 흐름이 막히여 현실적으로 장사나, 매매가 어려운 터가 치우 도자기로 통기를 시켜준 후 도깨비터로 운기가 발복되는 놀라움은 이제 치우 도자기가 건강뿐만 아니라 액을 막아주고 이상하게 행운도 가져다 준다하여 영험 도자기로 화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치우천왕 도자기는 지금껏 비밀리에 조상님 산소에 묻어주는 비방법으로 고가에 거래 되어 왔었던 것 입니다. 사실은 이런 좋은 도자기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은 도자기 안에 고인(故人)의 이름을 적고, 사진이 있으면 영정사진, 기원하고 싶은 가족사진이나 가족의 이름 다 써서 넣어 두시는 것 입니다.
이제 현대과학이 해결하는 영혼천도 도자기를 공개하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치우천왕 검색.

◆ 무료사은품 : "기도의 비밀" 책자 + 치우천왕 CD + 치우천왕 적령부 카드 2장 + 치우천왕 목걸이겸용 팔찌 (現 50만원 상당, 한정수량)
내마음의 절에서는 현대과학이 개발한 기(氣), 측정 장비를 가지고 여러분의 운을 측정 해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지금까지 350만원, 여러분의 소원성취를 위하여, 심장이 뛰는 가격 39만원
"치우천왕 氣가 나오는 도자기" 대박상품!! 투자자 및 지방 대리점 문의.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 입금계좌 : 농협 351-0242-7965-13 (예금주 : 내마음의 절) ■ 전화 : 1661-2575



오미자(五味子)는 열매는 신맛, 껍질은 단맛, 과육은 신맛, 씨는 매운맛과 짠맛으로 오행(五行)의 맛이 있기 에 인체 오장육부에 좋고, 산성 소화액인 담즙분비를 촉진하며, 몸 안의 지방을 녹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좋은 작물로 알려져 있다.

친환경오미자 인증번호 제43-3-32호
녹색친환경 오미자
(완전무농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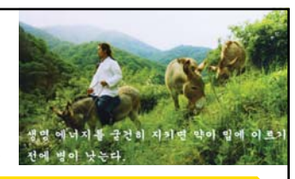
오미자는 최근 웰빙 붐을 타고 효능이 속속 알려지면서 건강식품으로 각광 받고 있는 약용작물이다. 오미자는 콩팥을 강하게 하고 방광을 수축시키므로 남자의 양기가 약해진 경우, 소변을 잘 참지 못하는 경우, 설사를 오래 하는 경우, 당뇨에 좋다. 평소 땀을 많이 흘리면서 쉽게 감기에 걸리는 어린이에게도 좋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능도 있다. 불안해서 심장이 자꾸 두근거리는 경우, 불안해서 잠들지 못하는 경우에도 오미자가 좋다. 인삼이나 홍삼이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면, 이젠 오미자의 효능과 맛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미자가 조선시대 때부터 임금님의 수랏상에 차와 음식의 재료로 쓰여 임금님의 두뇌를 맑게 하고 시력회복을 도우며, 폐기능을 강화하여 감기를 치료하는 등 건강식품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새콤 달콤한 오미자가 학습량이 많고, 시신경을 많이 쓰는 수험생이나 어린이등의 건강에 좋다보니 가정주부들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고혈압이나 뇌졸중 예방은 물론 간장보호에도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명약으로 통한다. 옛날 의서에도 오미자의 효능을 극찬하고 있다. 동의보감에는 '예로부터 영약으로 피를 맑게 하고 식은땀을 줄이며 갈증 해소에 효능이 있다...



·생 오 미 자 1kg 10,000원
·건 오 미 자 1kg 70,000원
·오 미 자 원 액 3kg 50,000원
5kg 70,000원
10kg 140,000원
·오미자즙 1Box(50포) 50,000원

농장소재지 : 경북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256
계좌번호 : 농협 745060-52-032103 예금주 권명숙
주문전화 011-9377-8961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 문의 : TEL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 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퇴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 직접상담
1. 역학 : 사주, 궁합, 택일, 성명학
2. 최면, 전생요법, 귀신들린병 퇴마
3. 일반과정, 속성과정 (출장지도가)
4. 빙의, 전생, 우울, 공포증, 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범음 범패 염불 교육도량
학인모집 개인지도
천수바라, 공양작법, 사물, 범음범패
사찰 각종 행사대행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 점안식
011-243-3587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공양주 보살 및
부목 거사님
모십니다
▷제주 서귀포 법성사
070-8842-7703
064)732-9903

사찰 종무실
여 사무원 구함
pc, 운전 능숙자
▷부산
051)365-0524
011-9323-3712

절에 일하실 공양주,
처사 구함
가능하면 부부
원합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까지
011-404-1284

입 종 안 내
한국불교법화종
위 종단은 50년된 전통종단이며
현재의 종단을 좀더 활성화하고자
입종을 안내합니다.
(행사협조, 친목도모, 계첩, 도첩, 법계증, 사찰
등록증, 권익보호와 운영에 관심있으신 분 환영)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567-2(성불사)
총무원 051)204-8494
011-885-8989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010-7232-0384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암자
054)772-413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괴산군 천년고찰
010-6414-5600
043)832-614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천년고찰
011-527-0637

부전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삼척, 대덕사
010-9219-7695
033)573-865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50세이하
서울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010-6260-331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용암사
011-9350-3216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혜봉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함께 하고자 하시는
비구, 비구니, 법사, 포교사님을 모십니다.
좋은 인연 되시길 바랍니다.
■ 입종서류 : 본종단 소정양식,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사진 4장, 법당 내외사진 각1장,
주민등록 앞 뒤 복사본.
(무속인 입종은 사양합니다)
■ 입종하시는 즉시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하여 드립니다.
■ 각 지역별 종무원장 또는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문의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정릉 보림사
02) 919-0480

공양주
구합니다
▷경기도 포천
010-4015-949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창원시내, 50세 이하
011-879-254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50-60세이하
경기 김포
010-9469-6625

50대 후반
비구승입니다.
부전소임
원합니다.
010-5330-7214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승가대 출신, 40-52세 사이
016-763-3851

대방등 대집경 대승기도
●큰 서원이 있는 사람은 전화를 하십시요.
☎ 032)664-0048 / 011-741-0867

사찰 건축 전문
사찰 설계, 신축, 보수, 해체, 이전, 토목공사 일체
단순히 목(木)공사를 전문으로 한 한옥 목수의 시각이 아닌
사찰건축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과 경험으로 생각이 다른
건축의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전화 070)7433-9919, 031)637-8886

미국에서
부전 수행하실
스님모십니다
공양주보살, 사무장 모십니다
(대전 신광사)
010-5792-3000

전망 좋은 신도시와 근접하여
지내기 좋은 곳.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스님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살이 운영하는 사찰입니다.
▷경남 김해
055)323-4136
010-3499-3721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여자)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031)774-5067 / 011-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추석, 기일, 영가 천도일에 천도축원
해 드립니다.
● 문의 : 010-6296-0108

대한불교조계종 노비구가 쉬려고,
본종 비구니(4-50대)로 수행 정착
할 곳을 찾는 스님을, 이곳 주지로 평생
관리, 운영토록 맡길 인연 비구니를
찾고 있음. (다만, 만나지 못하여 자주
광고냄) 그리고 불심 깊은 공양주
(4~50대)와 출가할 인연보살님을 구함.
소백산 지장보궁 내원암
경북 054)653-1180
010-6353-1180

세계불교법왕청
봉안(납골당) 안내
- 평생 관리비 무료 -
010-4724-1723
화성, 괴산, 청원 (3곳 중 선택)

佛教儀式 (범음, 범패)
學 人 모 집
효타암에서 불교의식 전문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천수경, 행선축원, 상단예불 및
각단예불 등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천수바라, 시식 등
● 모집인원 : 약간 명
● 원서접수 : 2010년 9월 10일까지
● 개강일시 : 2010년 9월 1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의식 교육원 효타암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34-4
051)524-9406 / 010-6569-1010(법선)

영남범패 학인모집
영남범패불음원 진주 및 울산교육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9기 신입생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 입교일시 : 진주교육원 2010년 9월 27일 〈월요일〉 오후 3시
울산교육원 2010년 9월 29일 〈수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진주교육원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406호
울산교육원 - 울산시 동구 방어동 990-2 〈화봉사〉
■ 문의전화 : 진주 055)747-8419 , 울산 052)201-1468
■ 수 강 일 : 진주 - 매주 월 · 목요일 오후 3시 ~ 6시
울산 - 매주 수 · 목요일 오후 3시 ~ 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1. 각단 불공 및 재의식
2. 사물다루는 법
3. 바라 및 승무작법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쳐 보세요.
영남범패불음원장 원명 합장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연화사
● 법 명 : 법화 (김광석)
● 주 소 :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음리 321번지
위 인과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5일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한국근본불교조계종
공 경남교구 본산 주지 공개모집 고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제 14교구 경남 종무원
청정사 주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 자격 : 법당 10년이상 비구, 비구니로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종도로써 활동하며
청정사 중창불사에 전념할 수 있는 스님
◆ 대우 : 종신 주지 및 사자상승보장
(종단에 소정의 후원금 지급 요)
◆ 자산 : 법당 30평, 요사 20평,
선방 50평, 산신각,
석불, 석탑 등
대지 630평, 임야 7400평 등
총무원장 의륜 합장
■ 주 소 : 경남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820번지
■ 문의전화 : 011-352-7751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동해안)
- 법당 : 25평(목조)
- 요사 : 50평(목조)
- 부지 : 270평
- 가액 : 4억

- 위치 : 대구
- 법당 : 20외 3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17억

- 위치 : 충북 충주
- 법당 : 50외 15평
- 요사 : 80평
- 부지 : 220평
- 가액 : 3억 8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해운대 송정 바다근처 토굴

- 대지 : 56평
- 법당 및 요사, 방3칸
- 해운대10분거리, 송정바닷가5분거리
- 정남향, 뒤편 산세 최고
- 주차장 확보
- 총금액 : 1억 500만원

부산 근교 아름다운 대사찰

- 총 대지 : 약 6000평
- 전통형 목조 법당 : 35평, 지장전 25평
- 요사채, 산신각, 기타 전각
- 청룡, 백호, 현무, 주작 산세완벽
- 터밭 1500평, 주차장 300평(버스진입 가)
- 총금액 : 15억 (감정 40억)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범일동 암자 : 8천 5백만원,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소재
- 부지 : 1000평(종교용지)
- 법당 : 30평(목조, 단청)
- 요사 : 2동 50평
- 기타 : 나한전, 석등
- 가액 : 1억 9천만원
- 특징 : 도심 인근의 기도 포교도량임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소재
- 부지 : 1500평
- 법당 : 40평(목조, 단청, 3포7포)
- 요사 : 90평 ●산신각 : 10평(목조,닷집)
- 기타 : 석불(12자)연못 등
- 가액 : 5억 3천만원
- 특징 : 대작불사된 대가람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 서울 010-5828-04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양
- 대지 : 약 300평
- 법당 : 23평 (90%완성)
- 요사채 : 31평(완공)
- 산신각, 창고
- 가액: 8천만원(절충불가)
- (총공사비는 1억 5천만원소요)
  50년이상된 사찰임

010-9215-476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남양주시 별내면 수락산 아래
- 평수 : 67평(7층중 3층 전체)
- 법당 : 34평
  (방4개, 종무소1, 시설 A급)
- 보증금3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몸만 오시면 됨 ● 즉시 법회

011-329-6606

사찰(급)안내

- 위치 : 김해시 외곽지
  4차선 도로 접
- 대지 315평, 건물 3층 180평
- 3층 60평 법당
- 1층 2층 120평 요사
- 12억짜리 8억에 급양도
- 연등 1000개, 인등 500개
- 대출 가능

011-869-8608
큰스님 직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기장군
- 평수: 2층 건물 중 2층, 35평
- 주차장 완비, 모든 시설 A급
-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2천만원 월 35만원
  전세, 월세 조정가능
- 시설비 7백만원(조절가능)

010-4870-8359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 반월당 지하철 중심
- 단독 건물(3층) 전체
- 옥외주차장, 지하, 옥상사용
- 1층 : 종무소 등
- 2층: 법당, 3층: 법당, 후원
- 황토방 원목시공
- 보증금 2,500만원, 월 85만원
- 시설비 4000만원(절충가)

010-6780-6271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기장읍 아파트
  빌라주택 밀집지역
- 4층건물 중 2층
- 법당30평, 삼존불 외 소불500불
- 방2칸, 주방1, 화장실 주차장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800만원(절충가능)

011-544-9777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두류공원 근처
- 평수: 65평(4층 전체)
- 큰방1개, 방3개, 욕실2개
  종무소포함
  (법당운영은 최상급)
- 옥상 다용도로 사용가능
- 시설비는 답사후 절충상담
- 스님사정에의해 급 양도함

011-807-0040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 대지 : 106평, 법당 : 40평
- 요사채(1, 2층) : 60평
- 포교활동 최적지
- 가액: 4억 3천만원
  (1금융권에서 1억 2천까지
  융자즉시 가능)

011-790-9171
010-5628-8404

한 국 불 사

- 서울근교(APT밀집지역,
  재래시장근접, 교통주차 편하고
  산세수려함
- 대지 약 160평, 2층 목조법당
- 가액: 10억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운영
하실분 전화 상담해드립니다

02)6674-3535
010-3154-3535

포교원 안내

- 위치 : 평택시 소재
- 아파트 및 상가지역 6층건물
- 평수 4층 70평(법당)
- 6층 70평(요사채) 각층 전체
- 삼존불 (동불) 및 후불탱화,
  지장, 신중탱화, 관음지장
  호신불 108위
-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30만원
  시설비 3000만원
- 꼭 하실분만 전화상담

031)672-3353
017-390-3353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허심청후문
  온천시장
- 평수 50평, 방2, 주방1, 화장실
- 최고시설, 최고위치, 위치 좋음
- 가액: 전화 상담 후 결정

010-9247-0180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달동
- 평수 약 70평, 3층
- 옥상같이 사용
- 시설완비 주차장 有
- 보증금 전세 20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방문 후 결정

010-2972-9194

사 찰 안 내

- 위치: 제천에서 20분거리
  서울에서 2시간
- 부지: 1650평중 ,
  종교용지 300평,건평 100평
- 법당, 산신각, 용신, 연못공사중
- 요사채 2동 중 1동은 선방및 요양
  시설용도, 산세수려하고 명당터
- 가액: 3억 5천만원

010-5114-017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이동저수지
- 대지 300평, 건평 60평
- 삼성각 7평, 호신불 108불
- 주차 30대 가능
-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6215-9749
011-508-1467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
- 부지 500평 임법당 30평
- 요사 40평, 산신각
-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란형(남향)
- 가액 : 2억 5천만원

011-452-8374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내
- 대지 66평, 사용평수 120평
- 1층 37평, 2층법당 20평
- 법당뒤 밭. 대나무밭.
  바다가 보임
- 교통편리, 주차가능
- 도시가스, 화장실 4개
- 가액 : 2억 7천만원
- 주인직

010-3133-001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실15평
- 연못, 식물, 5층탑, 해태(2마리)
- 가액 : 9,500만원

011-9004-149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안산시내 상업지역
- 상가 5층 건물의 2층
  (옥상 텃밭 30평 단독사용)
- 평수 50평
- 기본 법당시설 A급 완비
- 소임관계로 급하게안내
  하오니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4180-3822

사찰 터 안내

- 위치: 울산 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 대지: 526평. 바로 뒤 산
- 1급 주거지역
- 가액: 평당 90만원 (절충가능)
  사찰터, 전원주택지도 좋음

017-855-6717
017-856-2344
052)247-7344

사찰(급)안내

- 위치: 충북 오창면에서 천안시 사이
- 부지 : 2,000여평
- 법당, 관음전 2동 55평 목조, 단청
- 요사채: 3동 2층건물 1동
- (방 많음),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13억

011-412-246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7평, 2층건물
- 1층 요사채 34평 ●2층 법당 24평
- 특징: 안강읍 시장
  대형마트 각각 5분거리
- 1,2층 모두 도시가스 설치
- 가액 : 2억 3천만원
  은행융자 6천가능

054)763-665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롯데마트 옆
- 평수 : 140평
- 전세 1억, 월 170만원
  시설비 있음
- 모든 시설 완벽하며,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8766-0377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 대구 부산 IC에서 2분거리
  밀양시내 10분거리
- 전답, 임야 388평, 텃밭 200평
- 법당: 30평(원불: 200불, 부처님 11불)
- 요사채 30평, 산신각 용왕당 10평
- 가액: 2억 2천 5백만원

011-824-5939
010-9418-5938

사찰터안내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관정리
- 평수 : 약 2만평
- 현재 조립식 2채
- 전기시설 완비, 단독 진입로
- 평수에 관계 없이 허가가능
- 진주 진양호가 보이는 운치 있는 위치
- 가액: 4억(절충가능)

017-547-112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감만1동
  재래시장 앞
- 4층건물에 3층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천만원(주인인정)

010-8108-0108

사 찰 안 내

- 위치 : 홍천군 모곡리
- 평수 : 3000평
- 법당 3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60평, 조립식 40평
- 연못 있음
- 가액: 15억 (답사 후 절충)

011-737-96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남양주 진접 장현리
- 법당30평 ●요사30평(심야보일러)
- 방3, 주방거실, 화장실3
- 공양실(콘테이너) 3m×9m
- 대지 264평(시유지: 50평)
- 가액: 5억(융자 2억포함)
- 전세 1억 5천만원(부동산 사절)

010-8710-789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 대지 약 160평
- 건평 80평(1,2층)
- 방 6개, 목욕탕 2개, 주차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내방 절충

010-3302-1821
055)638-1825

포교원(급)안내

- 위치: 일산 서구 대화동,
  대화역6번 출구 옆
- 평수: 55평(7층)
- 시설: A급 모든 시설완비
  (법회중)
- 동삼존불, 원불 500불
-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500만원, 월 110만원
  시설비 4000만원
- 스님 공찰관계로 급 양도

010-3579-9352

주택토굴안내

- 위치 : 밀양시 부북면
  운전학원에서 북쪽으로 500M지점
- 대지 200평
- 건물 3동(총평수 109평)
- 3동 중 2층 건물 1동
- 심야보일러. 지하수 시설완벽
- 가액: 2억 1천만원

011-836-1829
010-3351-1829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내동
  3층건물중 2층 60평
- 법당: 삼존불, 지장보살, 후불,
  신중, 지장탱화, 인등400,소불 108
- 시설: 방3, 종무소, 산신각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천만원 절충가능
- 소임관계로 급하게 안내하오니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7450-7712

토 굴 안 내

- 위치: 밀양시 삼남면
  남산리 852번지
- 대지 49평, 건평 20평
- 걸망 풀고 쉴 수 있는 곳
- 살림 다 있음
- 가액: 2천 5백만원

010-2047-8376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명시 (위치 좋음)
- 3층건물 3층, 총 45평
- 법당 20평, 분리됨
- 방2, 공양간 12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있음
- 몸만 오시면 됨
- 8년 포교 불사관계로 급임대

02)2618-0908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중구 남성로
  약정골목 38번지
- 2층, 3층 합 60평
- 3층 법당, 2층 요사, 방 3
  식당거실
- 인테리어 –황토방 시설A급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2461-1626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은평구 대조동
- (연신내역, 구산역 5분거리)
- 총 100평, 지하1층 지상2층
- 대지 72평, 시설은 A급,
  주차장 있음
- 즉시법회 가능
- 가액: 10억(절충가능)
-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010-4725-9215

사 찰 안 내

- 위치: 전북 김제시
  납골공원내 사찰
- 법당 25평, 요사37평, 방2,
  주방, 거실, 컨테이너 방2
- 납골 2,000기 봉안 가능
- 전세 2천만원(양도도 가능)

063)543-5551
010-4427-2256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진구 당감동
- 큰도로 시장부근, 위치 좋음
- 대지 62평
- 3층 건물 3층 , 법당 32평
- 2층 요사채 30평
- 1억 전세, 보증금 7천만원,
  월 45만원 가능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1-877-548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함안
- 대지 600평
- 건물: 법당 50평, 요사 30평
- 다용도실 10평, 방사4개
- 가액: 2억 5천만원

010-4775-27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 평수 약 35평
- 5층건물 중 4층
- 청동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 지장, 산신 탱화
- 법당, 방1, 주방1
- 모든시설 완벽하며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3,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1-317-0582

사찰 전원주택 안내

- 위치: 고양시 삼송신도시
  산아래(계곡)
- 대지 300평, 건평 60평
- 2층 신축건물
- 남향,주차장완비(연못,산신각가능)
- 전철 3호선 지축역 10분거리
- 가액: 12억 (문의시 안내해드림)

011-347-5020

전원주택 토굴안내

속리산 자락 조용한 수양 및 기도처겸 양택 최고의 명당

- 위치: 충북 보은군 보은IC 10분 거리
- 대지 200평, 조립식 법당 25평,
  전답 1,600평, 임야 13,000평, 요사채 10평 1동, 창고 1,
- 2010년도 고속도로 10분 거리 개통
- 평당 1만 4천원 ●꼭 필요 하신 분만 연락바람

010-9967-9832

도 심 포 교 원

- 위치 : 서울 강동구 5호선 도보 2분거리,
  아파트 상가밀집지역
- 4층건물중 2층, 45평
- 삼존불, 고급무늬목 상단
- 접견실 1, 방3, 실내화장실1, (대형)복도화장실 1
- 보증금 1천만원 ,월1백만원, 시설비 1천 5백만원
- 집기일체, 도시가스
- 도심속 최고자리, 주차장 완비

011-716-3811

전원주택 인법당 안내

- 충남 예산군 광시면 서초정리 530-1
- 면적 380평, 주거용 주택 38평
  (방 3, 거실1, 주방1, 다용도실1, 화장실 2)
- 컨테이너1, 전 60평 ●업무용 주택(법당용)
  22평(탕비실1, 화장실2, 주차장완비)
- 인근 대한민국 최대의 예당호와 임존성
- 가액: 3억 8천만원, 전화상담후 가격절충 가능

011-425-6054
041)333-605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전남 목포 산정동
  아파트 1,200세대 입주 예정지, 사거리 대로변
- 총 43평 , 4층 건물에 3층
- 삼존불,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탱화
- 시설완벽
- 보증금 1,0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 상담 후 결정
- 즉시법회 가능

010-3535-246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혁 신도시(김천시내에서 7~8분거리)
- 대지 171평(법당 1,2층 1동. 요사채 1,2층 1동. 합 건물 2동)
- 법당 2층 : 20평. 건물 단청되어 있음. 수미단 조성, 영단. LED인등
- 종무소 1층 : 20평. 방3개 ●요사채 : 1층 30평, 방3개, 2층 30평, 방3개
  (귀뚜라미화목 보일러와 린라이가스 보일러겸용)
- 140여가구 마을 옆 산자락 아래 자리하고 법당옆으로 골짜기
  물이 졸졸 흐르는 깨끗한 도량, 주차공간이 넓으며, 텃밭도 있음
- 근린시설, 종교집회부지로 등록되어 있음
- 가액 : 2억 3천 5백만원 (은행융자 1억 포함)
- 실질적인 가액이므로 금액절충은 불가하오니 꼭! 필요로 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010-7133-226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봉천동 3층에 3층
- 55평(주차1대)
- 법당, 삼존불, 후불탱, 신중탱, 산신용왕탱,
- 영가단, 종무소, 스님방, 주방, 화장실2, 창고2
- 가액: 보증금 5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2천만원
- 보증금 시설비 절충가능
- 꼭 하실 스님만 오후 2시 이후에 전화주세요

010-4768-0108

사찰 연수원 기도원 안내

- 위치: 경남 양산시 삼북면 외석리
- 양산시내 고속도로 IC에서 20분거리
- 현재 사찰 운영중
-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 임야 자연녹지 1만평, 평당 10만원
- 높은산 중간지점

011-879-254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울산시 북구 호계동
  호계신시가지내
- 뒤편 아파트 5천세대 입주 예정인곳,
  농서도서관옆
- 3층건물에 2층 ●평수 60평
- 보증금 3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50만원
- 모든시설완벽, 즉시 법회 가능

010-6553-2828



Dr.황의 바른 자세 바른 생활 34 요족

전신 불균형 가져오는 하이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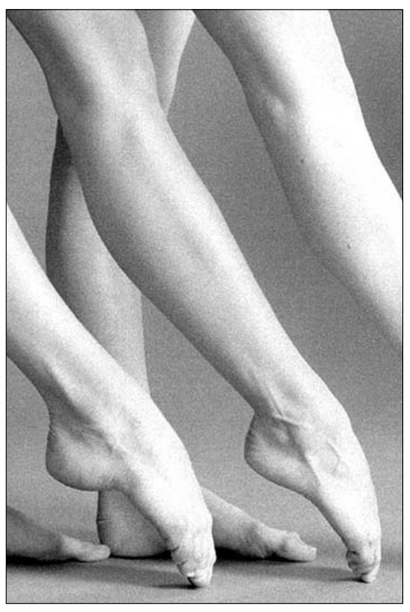
발바닥의 정상적인 아치를 위해서는 26개의 족부 관절이 균형적으로 연결돼 보행 시 전신 체형관절의 정상적인 동작과 움직임에 상호 유기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26개의 족부 관절의 조합이 불균형하게 이뤄지면 지나치게 높은 아치를 형성해 발바닥 전체의 근육과 인대가 긴장하게 돼 뒤꿈치와 발 앞부분이 과도하게 비틀리는 불균형 상태를 가져옵니다. 이를 바로 요족(까치발)이라 합니다.

요족은 발바닥의 오목한 부분인 아치가 지나치게 높아 발등이 튀어나온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높게 생성된 아치 상태는 정상적인 보행과 체형과의 연결 역할을 방해시켜 여러 가지 족부 불균형을 일으킵니다.

과중한 압력이 볼(Ball) 밑과 뒤꿈치에 집중돼 발바닥에 굳은살이 많이 생깁니다. 이때는 특수 깔창을 제작해 체중을 발바닥에 골고루 분산시키면 굳은 살, 티눈, 통증 등이 없어지며 발가락 변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족이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전신 체형 불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발의 아치가 지나치게 높아진다면 발바닥에 긴장상태가 형성되면서 보행이 불안정해지는데, 척추와 골반의 동작이 원활하지 못하고 몸통(Trunk)의 좌우 회전과 양팔의 스윙(Swing) 동작 또한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높은 아치로 인한 발의 긴장 상태는 자연적으로 정상적인 보행을 방해시킬 뿐만 아니라, 발목의 비틀림을 시작으로 무릎의 어긋남, 골반의 비틀림, 몸통의 긴장을 일으켜 전체적인 체형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요족은 주로 무용을 전공하는 이들에게 자주 발생한다.

특히 요족의 특성상 전신의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게 돼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고 자세가 구부정하게 변합니다. 또한 족부 불균형 검사계측기(Press Cam)를 통한 측정 시 대부분 요족의 상태는 이러한 구부정한 만곡 자세와 척추, 골반의 불균형으로 인해 정상적인 발 구조의 몸의 밸런스 상태와는 달리 상당히 불안정한 밸런스 파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젊은 여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스타일 추구를 위해서 하이힐 착용을 지속하곤 합니다. 하이힐 착용은 골반의 요족을 더욱 악화시키고 전신의 체형불균형으로 이어지므로 자신의 발 구조에 맞는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요족의 초기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으므로 대개 보존적인 방법으로 개선을 합니다. 그러나 발 모양의 변형이 심한 경우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로는 교정되기 어렵고 재발하기도 쉬워 최대한 자가적인 노력으로 이를 완화시켜야 합니다.

요족은 리듬체조, 무용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생합니다. 무용전공자들은 좌우 체형관절과 근육을 비대칭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의 변형이 일어나고 목, 어깨, 허리 등에 불편함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그들의 발 변형은 요족의 족부 불균형 구조와 함께 골반 불균형, 척추 불균형을 일으킵니다.

무용을 전공한 20대 여학생이 척추 불균형으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전신 체형검사 결과 요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심각하게 비틀어진 골반과 척추는 일반인보다 훨씬 불균형 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계속 몸을 비틀어지게 만드는 운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여성분에게는 전신 맞춤운동처방과 전신 체형 교정관리를 통해 전신의 상태를 균형잡히게 했으며, 요족의 구조로 발생한 전신의 불균형함을 족부교정기로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발은 일생동안 아껴줘야 할 소중한 부위입니다. 항상 하루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자신의 발을 부드럽게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될 것 입니다.

포스츄어앤파트너스 교정센터
황상보 원장 T : 1544-9697



김경현 원장의 몸 · 마음 이야기 22 땀

황기 · 오미자 기허현상에 특효

적도에서 극지방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뛰어난 환경적응능력 때문이다. 외부의 환경변화와 상관없이 자신의 생체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다. 일정한 체온 유지라는 정온동물(定溫動物) 가운데서도 사람의 조절능력은 가장 뛰어나다.

이 체온조절능력에 이상이 오면 적응장애로 인한 온갖 이상이 발생한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한여름에 자주 보게 되는 열사병의 경우도 체온조절중추의 이상에 따른 것이다.

더운 환경이 계속되는데 체온조절능력을 잃으면, 피로 · 갈증 · 어지러움 · 두통 · 전신의 경련 등을 보이다가 체온이 40도 이상 되면 의식을 잃게 되고 마침내는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

체온조절기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땀 분비의 조절이다. 사람은 전신에 널리 퍼져 있는 300만 개 이상의 땀샘으로 땀을 분비함으로서 체열을 식힌다. 인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이므로 땀의 분비는 자율적으로 이뤄진다. 추우면 땀샘을 오므려 소름이 돋고, 더우면 땀샘을 자극해 땀의 생산과 분비를 늘리는 일은 모두 무의식적으로 이뤄진다.

땀의 분비는 전신의 환경조절에 있으므로 사람에 따라 다르다. 생김새와 형태 그리고 환경이 다른 만큼 땀의 분비량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주로 얼굴이나 몸통의 땀은 전신적인 체온조절에, 손발에 나는 땀은 긴장의 이완을 위해 분비된다.

그러므로 땀의 상대적인 많고 적음은 질병이 될 수 없다. 개인 차이에 따른 필연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은 하루에 1리터 정도도 분비될 수 있다.

땀을 많이 흘려서 수술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땀의 분비를 조절하는 흉부교감신경을 차단 또는 제한하거나, 땀구멍을 좁히거나 아예 막아버리는 방법이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겠으나 적극 권장할 방법은 못된다. 하수도가 불결하고 냄새난다고 해 하수구를 다 막아버리는 경우와도 같다.

사람의 땀샘조절능력은 대체로 10세 전후에 완성된다. 그러므로 어린이가 땀을 지나치게 많이 흘린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직 조절능력이 완성되지 않은 나이이므로 땀보다는 다른 증후에 신경을 써야 한다. 어린이가 땀이 많다고 해 꼭 허약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땀에는 많은 무기물질이 함께 포함돼 있다. 지나치게 많은 땀을 흘린 경우 신속하게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 그러나 갈증이 난다고 해서 한꺼번에 많은 물을 마셔대면 안된다. 일시적으로 혈액의 농도가 낮아져서 적혈구가 파괴되는 빈혈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한 갈증에 수분보충을 위해서는 맹물보다는 체액과 농도를 어느 정도 맞춘 등장액(等張液)과 같은 이온음료를 마시거나 소금물 또는 보리차 등을 섭취해 필요한 무기물질을 보충해 줘야 한다. 땀을 많이 흘려야 하는 사람은 여름에는 평소보다 음식을 조금 짜게 먹는 것도 좋다.

뚜렷한 이유 없이 평소보다 갑자기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경우 기(氣)가 허해진 것이다. 전신 조절능력에 이상이 생겼다는 의미이다. 기가 허하면 땀만 많이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증후군들이 따르게 마련이다.

땀만을 치료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땀샘조절중추에 이상을 초래하게 만든 원인들과 증후들을 치료해야만 다한증(多汗症)이 치료된다. 땀은 병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의 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면역능력을 강화해주는 황기와 오미자는 일시적인 기허현상에 좋은 처방이 될 수 있다. 황기는 삼계탕에 넣어 먹어도 좋고, 음료로 마셔도 좋다. 오미자는 여름철 궁중음료로 알려진 생맥산의 주성분으로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고 이완된 근육을 수축시키며 심폐기능의 향상을 돕는다. 오미자차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이나 수험생 그리고 여름에는 누구에게나 권할 만한 음료이다.

땀을 많이 흘릴수록 몸을 보하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과 아울러 삼계탕, 육계장, 장어국 등의 여름음식이 이를 뒷받침한다.

일시적인 기허(氣虛)에는 황기나 오미자차 그러나 심한 경우에는 보기(補氣)를 위한 대책이 뒤따라야만 한다.

선재한의원 (02)518-0845



황현수의 불교와 무술이야기 34 철비박

방어는 중요한 공격의 일환

무술에 있어 공격도 중요하지만 방어도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방어 기술은 중요한 공격의 일환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시 되는 것이 철비박이라는 단련법입니다.

손목 위와 팔꿈치 아래의 팔을 단련하는 기법입니다. 이 수련이 완성되면 상대의 공격을 막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팔을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단련된 철비로 상대를 가격한다면 급소가 아닌 어느 부위에 맞든지 쇠몽둥이로 얻어맞은 듯 한 통증과 함께 그 고통만으로 전투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 목을 가격 당하게 된다면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무림 영화에서는 이러한 철비박의 파워를 피하거나 막기 위해서 팔 부분에 징이 박힌 토시를 착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뾰족한 징이 박힌 토시는 위력적인 철비박에 어느 정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만 꼭 피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철비박의 단련 역시 짧은 기간 안에 이룰 수 없습니다. 보통 최소 1년 동안은 손목 두께의 물푸레나무를 치는 연습만 해야 합니다. 단련하는 부분은 커다란 혹이 달린 듯이 뼈가 불거져 올라옵니다. 단련이 끝나면 거의 눈에 안 띄게 가라앉으나 그 위력은 고스란히 간직돼 일반인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필자는 이 철비박을 1년간 단련했고 제 사제는 3년간 단련했습니다. 저는 철비로 대걸레 자루를 쉽게 부러트리는 수준이 됐고, 사제는 삽자루를 부러트리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사제가 권법이 늘지 않아 단련을 우선으로 하라는 취지로 철비박을 훈련시켰는데, 시간이 지나자 사제의 위력적인 철비는 부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 단련 역시 무작정하기만 한다면 많은 장애가 따르게 됩니다. 철사장과 마찬가지로 철비박도 타법을 같이 사용해야 하며, 녹슨 쇳물이나, 돌가루 등을 바르며 단련해야 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인간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 룰은 언제나 지켜지고 있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얻고 정도를 벗어나거나 그 준비가 확실하지 않다면 그 피해는 피할 수 없는 것 처럼 말입니다.

근본불교학자/ 다음카페 : 37수도장



영화 청풍명월의 한 장면. 손목위의 팔에 방어용 토시를 끼고 있다.

불자정보 801호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대사찰안내
● 위치: 부산
● 대웅전 108평, 무량수전 50평 외 강당, 요사
● 부대시설 현대식 완비
● 부지 3800평, 주차 동시 80대
● 가액: 37억
● 가능자 면담
010-9580-3712

시내포교원
● 위치: 청주시 단독주택
● 1층: 방4, 주방, 거실, 욕실
● 2층 방3, 주방, 욕실, 옥상
● 3층 법당 삼존불 모셔서 있음
● 지하실, 창고 있음
● 가액: 1억 5천 5백만원
● 절충가능
011-753-0768

포교원안내
● 위치: 울산시 남구 공업탑로타리 대로변
● 위치 좋음
● 10층 건물에 3층, 평수 65평
● 내부 화장실, 상담실, 삼존불, 포대화상, 위패 120, 소불 108불
● 내부시설최상,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0만원
● 시설비 있음(저렴하게 드림)
010-7326-2588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창원 대산
● 대지 약 200평
●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 약 300평
● 건물 130평(신축건물)
● 요사채 방 4칸
● 참조: 대웅전, 지장단, 용왕각, 천수천왕각 삼성각
● 가액: 5억 (절충가능)
010-6778-7306

포교원안내
● 위치: 경북 구미시 도량동
● 2층 상가건물(슬라브건물)
● 아직 포교당은 못하였으나 큰 대로변옆에 있어, 포교원으로 적합
● 가액: 1억 1천 3백만원 사정상 시세 이하로 양도함
010-5054-6782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3 방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 기도처로 최고 명당
● 가액 : 2억 3천만원
010-3138-4897

명당터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마을 인근
● 뒤에는 산 지고 앞에는 큰 저수지 바로 접해 있는 독립된 터
● 고속도로 4차선에서 10분거리
● 면적 609평
● 가액: 평당 20만원(주인직)
010-5014-145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강남대로, 논현역 7호선, 신논현역 9호선 중간 영동시장 대로변 유동인구 많음
● 위치 : A급 ● 법당시설완비
● 상담실1개, 방 1개
● 보증금 1천5백만원 합 3600만원 (조절가능)
010-4031-6643

주머니 속 대장경 품절본 한정판매



법수로 배우는 불교
이제열 지음 | 195쪽 | 값 4,500원

불성이란 무엇인가
전치수 옮김 | 205쪽 | 값 4,500원

참선요지 參禪要旨
대성스님 지음 | 278쪽 | 값 6,500원

허공의 딸꾹질
이종찬 지음 | 282쪽 | 값 5,500원

재가 불자를 위한 계율 강좌
혜능 스님 엮음 | 329쪽 | 값 6,5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T. 02)2004-8216 / F. 02)737-0696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사찰대출안내

30년 전통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사찰 전문 은행이란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전국의 많은 사찰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찰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웠습니다만 저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사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으며 도와 드리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족한 결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1 1억원 대출시 월이자 62만원입니다 !
2 출장비, 소개료, 수수료가 없습니다 !
3 위약금없이 마음대로 갚을 수 있습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대출안내
지 역 ☞ 전 국
형 식 ☞ 담보대출
금 액 ☞ 3천만 이상
금 리 ☞ 연7.2%~7.6%
기 간 ☞ 5년 (연장가능)

☎ 상무 이강욱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016-9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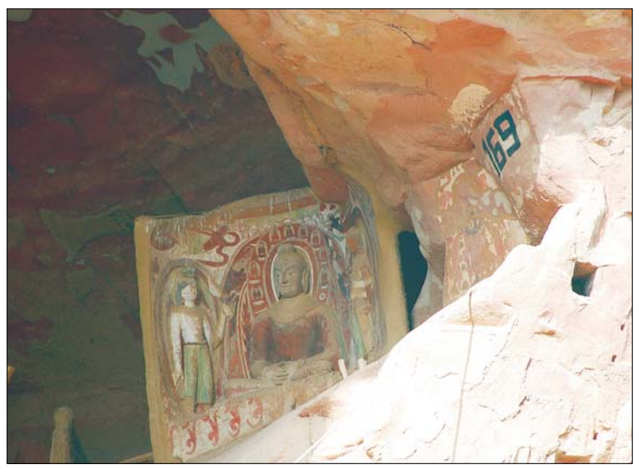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❺ 중국 난주 병령사 석굴

선정과 정토신앙이 만나다

중국의 서북지역은 황량한 대지다. 돈황에서 내륙으로 들어오는 길도 그렇다. 마른 황무지를 스치는 기차를 타고 가노라면 이 길을 걸었던 이들의 심정이 어떨지를 생각해 본다. 황량한 대지 위를 흐르는 황하의 물결을 만나면 절로 탄성이 인다. 척박한 대지의 사람들에게 그 물의 소중함이 얼마나 클지 절감할 수 있다.

돈황을 지나 난주로 넘어온 길에는 병령사(炳靈寺)라는 석굴이 있다. 병령사 석굴은 중국 5호 16국(五胡十六國) 시대에 성립한 나라 중 하나인 서진(西秦:385~431) 왕조 시기 만들어진 곳이다.

현재 난주(蘭州)에서 가까운 영정(永靖)이란 지역에 위치한 병령사는 처음부터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다. <수경주(水經注)>에 의하면 병령사는 북위 시대에는 당술산(唐述山)이라고 불렸다. 당나라 때에는 영암사(靈巖寺)로 불렸으며, 송나라 때에 이르러서야 병령사란 용어가 사용됐다. '병령사'라는 뜻은 티벳어인 '선파병령(仙巴炳靈)' 즉, 천불만불(千佛萬佛)의 음역이다.



병령사 석굴(炳靈寺 石窟) 169번 굴은 중국 내에서 최초의 기록된 연대(건흥 원년 420년)가 등장하는 석굴이다. 안에는 무량수불, 석가모니불, 다보불,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 약왕불, 정광보살, 문수사리보살등 수많은 불보살상들이 등장하고 있다. 420년 이전에 파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자연 굴에 가공을 하여 석굴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이 석굴에는 많은 불상들과 벽화 등이 있었다. 이중 특히 병령사 169번 굴에는 서진 당시에 붓으로 쓰인 기록이 등장한다. 이 기록은 중국 석굴 중 기록상으로는 가장 빠른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기록에는 '서진건흥원년(420년)'이란 연호가 등장한다.

서진 왕조는 본래 선비족 계통의 국가로 5호 16국 시대 당시의 국가들이 그러하듯 혼란을 틈타 선비족의 일족인 걸복씨(乞伏氏) 일족에 의해 세워졌다. 서진 왕조는 47년간 돈황지역에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는 하서회랑 일대를 통치했는데 서진의 통치자들은 불교를 무척 숭상했다. 걸복씨들은 동진(東晋)의 고승인 성견(聖堅)을 초빙해 역경불사를 일으켜 당시 불사에 종사한 승려 숫자만 10여 명이었으며 번역된 경전이 14부 21권이었다.

병령사 석굴은 당시 역경불사를 비롯한 불교 전래의 핵심이었다. 지면으로부터 40m 높이에 자리잡은 석굴 안에는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등이 있다. 이는 강량야사(畺良耶舍)가 번역한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무량수경>에서는 아미타불(무량수불)의 화불(化佛)로 관음과 세지 두 보살이 등장하는데 병령사 석굴의 기록에는 두 보살상이 모두 등장해 <관무량수경>의 유통과정에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또 병령사의 169번 굴에서는 '무량수불(無量壽佛)'이 있는데 이는 중국내륙에서 서방극락정토에 대한 신앙이 최초로 등장한 것을 의미한다.

5호 16국 시대나 이후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미륵왕생신앙이 유행했다. 뒤에 소개될 용문석굴 불상처럼 이 시기에는 미륵왕생신앙이 크게 유행해 월등하게 많은 수의 미륵상이 조성됐다.

그런데 병령사에서 서방정토로 가고자 하는 신앙이 유행한 점이 발견되는 것은 특이하다. 병령사가 위치한 하서회랑은 중국과 서역을 잇는 통로로 수많은 승려들이 머문 곳이었고 그로 인해 선수행이 발달했다. 즉 서방극락정토 신앙이 선수행의 전래와 연관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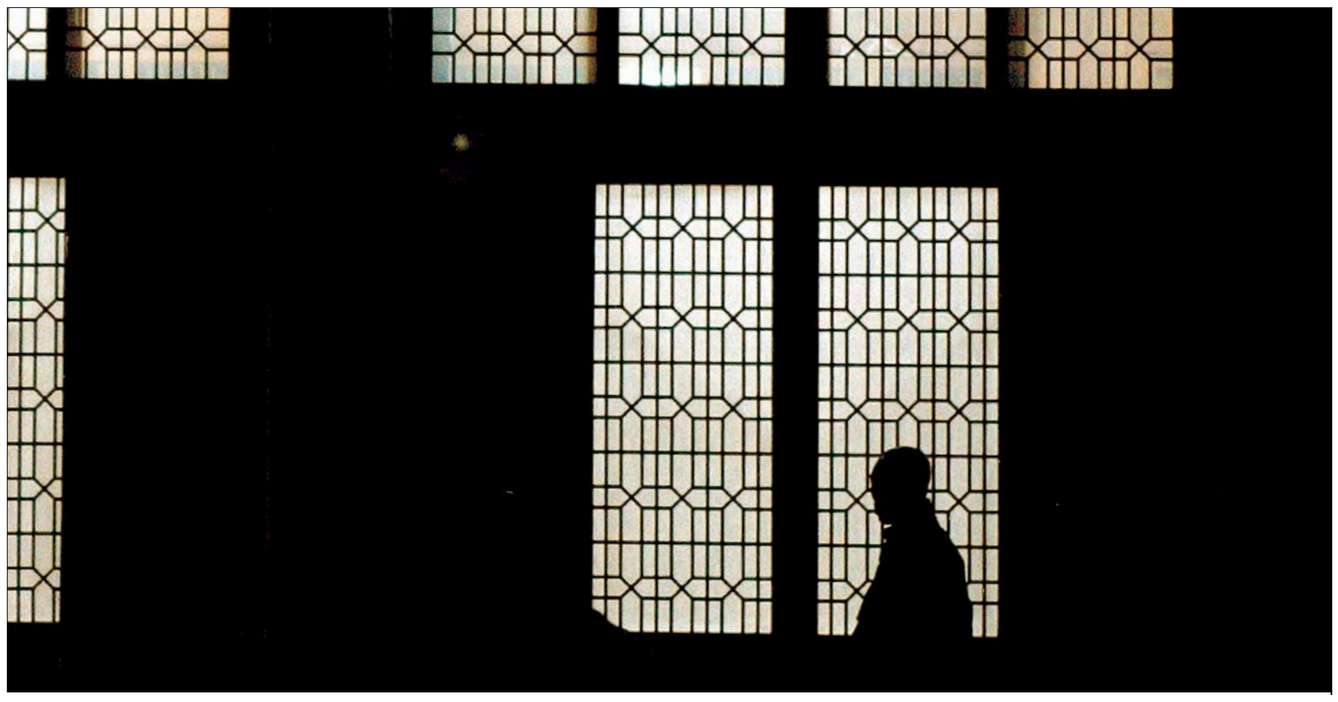
<고승전> 중 '현고전(玄高傳)'에는 "걸복씨가 이 지역에서 활동할 당시 서쪽으로는 양주지방(돈황지방)에 접해 있었다. 외국선사 담무비(曇無毘)가 이곳에 와서 선을 가르쳤다"는 기술이 남아있다.

담마비는 선정의 대가였다. 이러한 담마비와 같은 선정의 대가와 서방정토에 대한 관상법이 연관을 맺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다. 선정과 결합된 새로운 불교적 수행과 신앙이 이 병령사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불교 초기에 서방정토를 갈구하던 이들은 서방정토로 가는 방법을 극락정토를 마음의 대상으로 관찰하는 일종의 선정의 방법으로 찾고자 했다. 이러한 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중국과 실크로드 사이에서 초기에 수용되어진 선수행의 기법이 이 지역에 상당히 융성하였음을 보여준다.

문무왕 (사)한국미술사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⑤⓪ 동화사의 밤



뜨겁던 태양이 도량의 모든 그림자를 끌고 서산으로 사라졌다. 마뜩찮은 하루였을까. 남루한 생각들이 고개를 들어 짙어오는 어둠을 기다린다.

추녀 끝에서 들려왔던 풍경 소리는 이제 불 켜진 문살에서 들려온다. 가을벌레의 기척도, 서늘해진 바람 소리도 숲이 아닌 설법전 문살에서 번져온다. 그랬다. 바라보고 있는 곳에서 들려왔다. 설법전의 불빛이 꺼지고 나면 그 소리들은 어디에서 들려올까.

서산으로 사라졌던 태양이 끌고 갔던 그림자를 이끌고 다시 도량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추녀 밑으로 풍경의 그림자가 다가선다. 가을벌레의 기척은 빛나는 이슬이 머금고, 가을바람은 푸른 안개 뒤에 있었다. 오늘밤에도 설법전엔 누군가 불을 켤 것이다.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제12도 성불이래비시산수장엄

불설아미타경에 나오는 이 삽화는 아미타불에 대한 설명 중 한 부분이다. 그림을 살펴보면 두 명의 제자가 협시한 아미타삼존불과 그 좌우로 천왕과 천녀가 시립해 있다. 이 도상은 7번째의 목판 원판 후반부의 일부와 8번째 목판의 전반부의 일부까지 이어져 있다.

"사리불아, 아미타불이 성불하신지 이제 10겁이시느니라. 또 사리불아, 저 부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성문 제자를 두고 계시니, 다 아라한이다. 산수로도 헤아릴 수 없으며, 모든 보살중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사리불아, 저 부처님의 국토가 이와 같이 공덕장엄이 되어 있느니라. 또, 사리불아, 극락국토에서 중생으로 태어난 이는 다 아비발치(불퇴, 무퇴, 불퇴전, 불퇴위라는 뜻,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지만, 중생을 위하여 자신의 성불을 뒤로 미루고 보살의 지위에 머물러 있는 이를 이른다)니라. 그 중에는 일생보처(최후의 윤회 가운데 있는 자라는 뜻, 이생을 지나고 나면 다음 생에서는 반드시 성불하는 존재로서 간략히 보처라고도 하며, 보살의 최고위인 등각보살을 일컫는다)가 많이 있으며, 그 수가 심히 많아서 산수로써 헤아릴 수 없으며, 오직 무량, 무변의 아승지로 말할 뿐이니라." (舍利弗 阿彌陀佛 成佛以來於今十劫 又舍利弗 彼佛 有無量無邊聲聞弟子 皆阿羅漢 非是算數之所能知 諸菩薩衆 亦復如是 舍利弗 彼佛國土 成就如是功德莊嚴 又舍利弗 極樂國土 衆生生者 皆是阿?跋致 其中 多有一生補處 其數 甚多 非是算數 所能知之 但可以 無量無邊阿僧祇 說)

무량수경에서는 극락세계의 사람들의 수승함을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아무리 인간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용모가 단정한 임금이라 하더라도, 이를 전륜성왕에 비한다면 그 천하고 볼품없음은 마치 저 빈궁한 거지를 임금 곁에 앉혀 놓은 것과 같고, 비록 전륜성왕의 위엄이 늠름하고 빼어나서 천하에 제일이라 하지만, 이를 도리천 왕에 비교한다면 또한 천하고 추하기가 만 억 배나 차이가 있으며, 도리천 왕을 제 6천의 타화자재천왕에 비한다면 또한 그 차이가 백천억 배도 넘나니, 그 타화자재천왕을 저 무량수불의 극락세계에 있는 보살이나 성문들에 견준다면, 그 빛나는 얼굴과 단정한 용모 차이는 백천만 배나 되어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느니라"고 설하고 있다.

극락세계의 장엄함은 이제 그곳에 있는 아미타부처님 뿐만 아니라, 아미타부처님과 함께 있는 성문, 보살 등으로 확대해 설명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도 취하고 싶은 임금의 지위와 위엄도 극락세계의 사람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하다는 것을 비유하면서 극락세계의 장엄함을 일러주고 있다. 우리 모두 이생의 권력이나 명예나 부를 떨쳐버리고 다음 생에는 극락세계에 태어나 일생보처에 올라 이 고통 받는 사바세계를 극락정토로 바꾸는 대원력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 중 제12도 성불이래비시산수장엄(成佛以來非是算數莊嚴). 덕주사판, 1572년 간행, 반곽(半郭) 28.2×21.0㎝.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판매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新제품
한봉밀납양초의 특징
1. 그을음이 없습니다.
2.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과는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아토피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3. 한봉 벌집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 고 · 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탱화 등에 침법을 막아주어 문화재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공예양초



① 밀납 야광 연꽃 양초 7.0ϕ×33㎝
② 밀납 1호 그림 양초 5.9ϕ×18㎝
③ 밀납 PC컵 초 5.5ϕ×4㎝(연소시간 약 8시간)
④ 악쑥 야광 연꽃 양초 7.0ϕ×33㎝
⑤ 밀납 1호 그림 양초 5.9ϕ×18㎝
⑥ 한봉 금강경 세트 5.9ϕ×18㎝



⑤ ⑥

한봉밀납양초



① 밀납초 90㎝ ×90㎝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ϕ×34㎝
③ 밀납초 돈타레 5.6ϕ×27㎝
④ 밀납초 밀대 4.7ϕ×25㎝
⑤ 밀납초 1호 5.9ϕ×18㎝
⑥ 밀납초 2호 5.9ϕ×14㎝
⑦ 밀납초 3호 4.7ϕ×13㎝
⑧ 밀납초 4호 4.7ϕ×10㎝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10㎝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13㎝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ϕ×14㎝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18㎝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6㎝]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스님

자기 선장의 마음으로 모든 의식들이 귀결되어야

오늘 대덕 큰스님들과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귀빈 여러분, 교우님들, 그리고 파라미타 젊은 법우님들과 같이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입으로 말만 잘한다고 해서 이끌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은 바로 각자 자기의 '자신(自神)'입니다. 일체 만물만생,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물질은 근원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근본에 모든 것이 다 직결이 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겠는데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근본이 우리 각자의 근본에 직결이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만물만생이 다 우리들 마음에 가설이 됐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서 먼저 너부터 알아야 된다."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직결이 돼 있으니 우리가 이 육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금 지구라는 공기주머니에서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체가 없으므로 무한하고 광대해서 어디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모든 게 걸리고 사람 사는 게 무상하고 덧없고 부질없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불교(佛敎)란 어떤 것이냐? 일체 만물만생의 생명이 불이요, 그 생명이 태어나서 배우고 느끼고 알고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게 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라는 그 자체가 어느 한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전체의 진리인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나오면 죽듯이 우리는 한 발짝도 공기주머니 바깥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두가 공기주머니 안에서 벗어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공기주머니를 버스라고 해 봅시다. 그 버스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도 모르면서 그 안에서 좌석 하나 붙들고 내 종교가 옳으니 네 종교가 옳으니 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적대시하고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머니가 어디로 초월해서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그 한 주머니 안에서 복닥거리고 네 것 내 것을 가르고 온통 불안하게 삶을 살아나가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어리석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림 · 최주현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둘이 아니요, 바로 공생 · 공심 · 공체 · 공용 · 공식화 하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그대로 둘이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그 둘이 아닌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뼈다귀 무더기에다가 절을 하셨습니다. "사생자부이신 어버이신데 어찌 뼈다귀에다 절을 하십니까?" 하니 "내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내 아버지일 수도 있고 내 할머니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느니라. 그런데 어찌 그냥 가겠느냐." 하시더랍니다. 생략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의해서 일체가 둘이 아님을 일러 주신 건데….

또한 부처님께서 처음 나셨을 때부터 열반하시기까지를 모두 합쳐서 수록한 것을 이름해서 팔상성도라고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일대기를 팔상성도로 이름 붙인 것은 뜻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 사무 사유(四無四有)가 둘 아니게 일대사의 인연을 지으셨으니, 미생물에서부터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진화하면서 형성되고 형성되면서 또 진화되고 이렇게 거듭거듭 수억겁을 거치면서 고등 동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실의 육의 부모만 내 부모가 아닙니다. 미생물이라고 해서 부모가 없고 자식이 없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거쳐서 인간까지 이렇게 형성됐으니 내 부모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모습 아님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뼈다귀에 절을 하신 겁니다.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에 이 세상은 제각기 갈래갈래 모습이 다르니라." 둘이 아닌 까닭에 그러하다고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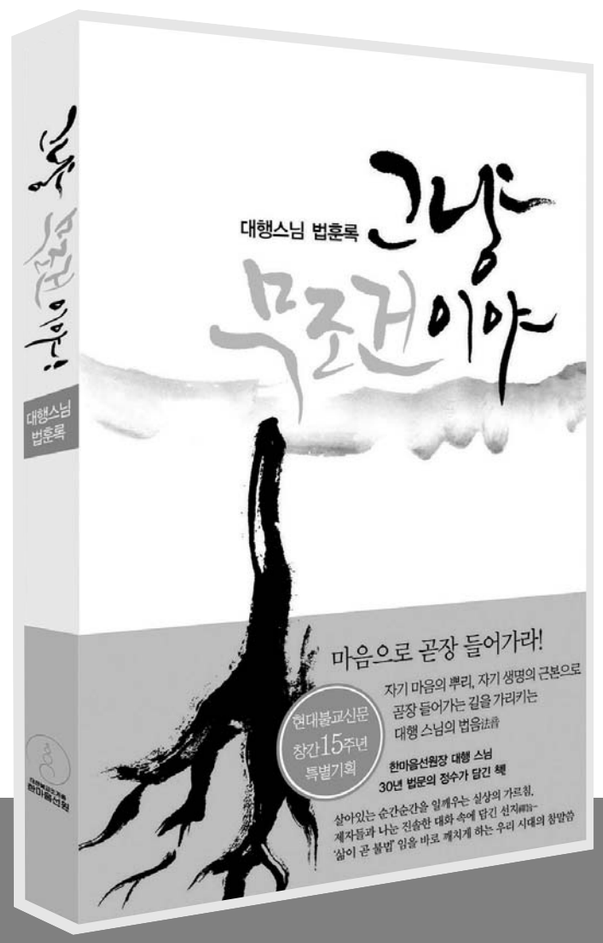
그리고 그 마음 자체로 인해서 여러분 몸속에 천차만별 생명들의 모습들, 의식들이 있죠. 여러분 몸속에 그렇게 있다는 사실을 모두 시인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목이 마르다면 물을 줘야 하고 배고프다면 밥을 줘야 합니다. 모든 심부름을 그렇게 해 줘야 되겠죠. 심부름을 해 줘야만이 또 작용을 해 줘서 내 몸이 건강하게 움죽거리게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서로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나가는 한 개체인 것입니다.

이 지구가 우리 집이듯이 우리 몸이 그 모든 생명들의 집합소라고나 할까요? 그 생명들의 집이죠. 그 생명들의 집에 한 개체를 이끌어 나가는 주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제각기 있는 원동력이 바로 그 주처인 것입니다. 자기 나무는 자기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된다는 사실을 실감하실 수 있겠는지요. 우리 몸속에 그렇게 많은 생명들이 더불어 같이 살고 있어서, 예전에 몸뚱이는 배로 비유했고 그 몸뚱이 속에 있는 생명들은 바로 중생들로 비유했죠. 그거를 이끌어 나가는 그 주장자는 바로 선장으로 비유했고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말이죠? 그래서 중생들이 선장에 한마음이 돼서 가만히 움죽거리지 않고 있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지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주해신!' 하고 바깥으로만 찾고 웅성거린다면 그 배는 뒤집혀서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선장의 마음으로 모든 의식들이 귀결되면 조복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보살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보살을 낳는 이유는 바로 그 육체 속에 있는 생명들을 조복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보살로 화해서 천백억화신으로서 화하게 되는데, 그건 숫자가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숫자 아닌 숫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조복의 결과 일체 부처님의 마음이 되고, 모두 화해서 천차만별 용도의 소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물에서 찾는 사람이 있다면 주해신이 돼서 나투어 주시고, 명이 짧아서 애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칠성 부처로 나투어 주시고, 좋은 데로 못 가서 애를 쓰는 사람 앞에는 지장으로 나투어 주시고…,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일거수일투족 다 그렇게 나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관세음보살이니 약사보살이니 모두 응신으로서 나투시는 그 뜻이 바로 그런 데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부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갖추어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자성이 있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성이 본래 여여한 줄을 알기 때문에, 자성이 갖추어 가지고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자성이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처님의 도리를 알기 이전에 자기부터 안다면 부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부처님의 마음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대비 대책이 돼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물질계로만 치우쳐 있습니다. 문화 문명이 발전이 되고 물질이 많이 발전했다고 해도, 또 컴퓨터를 통해 영상으로나 뭘로나 다 빼낸다고 해도 부처님의 한 말씀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건 왜냐? 6 · 25 때 보니까 말입니다, 부처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기 먹고 살 것만 짊어지고 가요. 그렇듯이 만약에 난리가 났다고 해 봅시다. 그렇다면 컴퓨터 짊어지고 다니렵니까? 자동적인 컴퓨터는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26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자기 근본을 믿고 거기서 모든 걸 해결하게 하세요

☞25면에서 계속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오신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천안통, 심안으로 보는 것. 천이통, 심안으로 듣는 것. 신족통,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것. 또 타심통, 남의 마음을 잘 아는 것. 숙명통,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것. 이 다섯 가지를 다 안다고 해도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도가 아니니라. 물 한 컵이 있는 것을 보고 듣고 알 수 있어도 갖다 먹이지 못하고 내가 목마른데도 먹지 못한다면 이건 진리가 아니니라. 도라고 할 것까지도 없이 이건 진리가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오신통이라는 자체가 도가 아니긴 하지만 그것은 누진으로 역할하는 데 부속으로 쓰여진다 이겁니다. 누진에 들이고 내는 데 말입니다. 우리가 전부 들이고 내고 들이고 내고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데 부속이 돼 준다 이겁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진과 정수에서 일체 만법을 행하는 뜻이죠. 즉 평등공법은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이고 내고 하는 데 있어서 그 다섯 가지가 부속이 돼서 밀어주는데 그건 자동적입니다. 누진에서 이거를 받아서 들이고 냅니다. 들이고 내는데 그게 정확하게 입력이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일도 알고 내일 일도 생각하고 그렇죠. 입력이 되면 현실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둘이 아닌 도리를 알고 한 찰나 생활을 안다면, 공한 생활을 안다면 말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되풀이하면서 말을 해야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신통이라는 그 자체는 부속이 되고, 누진은 들이고 내는 데 역할을 하고, 정수에 바로 한 찰나에 그냥 입력이 되면서 사대로 통신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심성과학일 수도 있고 심성천체물리학일 수도 있고 심성의학일 수도 있으니 심성에는 일거수일투족 아니 붙는 게 없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입력이 되면, 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과 마음공부를 안 해서 자기 뿌리를 몰라라 하고 자기 싹이 자긴 줄 아는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죠.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나오는 대로 찰나찰나 입력된 데다 다시 놓기 때문에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면서 새로 입력이 들어간 게 현실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뿌리를 무시하면서 자기 차가 자기라고 여기고 차 속에 있는 운전수는 생각도 안 하거든요. 운전수가 차를 이끌어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차가 모두 자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이 돼서 현실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팔자 운명이니 자기가 업을 지어서 그렇다느니 이게 고라느니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쭉 살아오시면서 관습에 욕심에 집착에 끄달려서 자꾸 입력이 된 것입니다. 입력이 됐으면 된 대로 나오는 거고 자기 마음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누구의 탓도 아니고 누가 뺏어 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행복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모두 그렇게 하니까 자기 탓이죠, 모든 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입력이 된 대로 한다면 사람이 죽어서 이 세상으로 다시 나올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비참한 일들이 생기는 원인이 자기 뿌리를 모르고 자기 종자를 모르고 자기 주장자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근본은 어떠한 문제도 대처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진 완성된 자기의 보배인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주어지고 그 차원에 따라서 모습이 주어지고, 그 모습이 주어지는 동시에 바로 자기 일생의 그 소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주 너무나 정확하죠. 그렇게 되니까 이 중세계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세계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세계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중에도 그런데, 또 사람이 됐다가도 하천세계로 떨어져서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 그 모습의 대접밖에는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습대로 대접을 받게 되니까요. 이거는 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에 있는 얘깁니다. 부처님께서 그때에 말씀하신 것도 지금 현실입니다. 그때도 현실이었고 지금도 현실이고 미래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뚱이를 이끌어 가는 참자기가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자부처라고도 하고 선장이라고도 하는 참자기 말입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 주처에 참자기가 있는 것이지 밖에, 이름이나 형상이나 이런 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여기 계시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깨닫게 해 주셔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대신 죽어 줄 수도 없고 대신 아파 줄 수도 없고, 대신 잠을 자 줄 수도 없고 대신 먹어 줄 수도 없고, 대신 똥 눠 줄 수도 없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의 세 가지를 보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뜻과 말과 행, 세 가지를 보되 그것도 따르라고 했지 믿으라고는 안 했습니다.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만을 믿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자기 자신만이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참자기가 있다는 것도 자기 자신만이 아는 것이죠.

수억겁을 거치면서 그렇게 진화를 시켰고 정자 난자를 빌려서 형성시켜 왔습니다. 옛날에는 '아버지의 뼈를 빌리고 어머니의 살을 빌려서 이 내 인생 태어나니….' 했지만 지금은 정자 난자라고 부릅니다. 자기 영혼과 더불어 정자 난자가 없다면 태어날 수가 없죠. 자기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자기를 그렇게 수억겁을 거치면서 형성시켜 온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근본은 완성된 자기입니다. 완성된 자기 보배입니다. 어떠한 문제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진 자기의 보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보배인 까닭에 보디가드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이러더군요.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젊은이들이 와서 발길로 차고 돈을 뺏으려고 그러는데 '아이구, 주인공! 너만이 이거 막아 줄 수 있잖아.' 하고 그냥 아주 애타게 그랬답니다. 그 애들이 팔을 잡아당기면서 돈이 얼마 있느냐고 해서 천 원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너 혼자 먹고 떨어져라." 이러고선 그냥 가더랍니다. 이런 일이 모두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로부터 쭉 내려온, 자기 모습을 형성시켜 내려온 자기와 지금 모습의 자기와 둘이 아닌 까닭에 그것은 능히 그렇게 하고도 남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갖추어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 불교는 진리인 것이지 어느 한군데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라미타 젊은 법우님들이나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할 것은, 자기 근본을 믿고 거기서 해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집에 안 들어오면서 헤매고 도는 자식의 부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로 속을 태우시는 분들도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은 말로 몸을 붙잡아서 되는 것이 아니죠. 마음으로 마음을 붙잡을 수 있다면 육체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마음공부라는 것이 별달리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컴퓨터로 비유해서 얘기했는데 인간마다 다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라는 거는 용무를 즉, 공법을 실행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을 할 때, 그것도 다 아는 사람은, 귀 뜨고 눈 뜨고 한 사람들은 그런 거를 거기다 맡기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걸 모르는 분에 한해서 지금 얘깁니다. 그렇게 구정물이 그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나올 듯하면 다시 거기다가 되입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 구정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너니까 구정물이 안 나오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맑은 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너다.' 하고 거기다가 입력을 한다면, 되놓는다면, 믿고 놓는다면 거기서는 앞서의 구정물 입력이 없어지면서 바로 맑은 물의 입력이 현실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미신을 믿고 허황되게 그러는 것과는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도 "나의 모습을, 고깃덩어리를 믿지 말라. 나를 따르되 믿는 거는 너를 믿어서 너를 먼저 찾아야 한다. 너를 발견하라. 너부터 알아야 우주가 하나로 돌아가는 섭류도 알게 되고 이 세상만사도 공해서 돌아가고 여여한 것을 그대로 알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한마디로 함축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생활 속에서 말입니다, 외국에 가서 세미나도 해 봤지만 지금 기독교나 가톨릭교나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전부 타의에서 구하고 있어요. 전부 타의에서 구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죠. 불교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기독교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너 먼저 발견하라." 하셨고 "밥 한 그릇을 가지면 이 세상 만물만생을 다 먹이고도 그 밥 한 그릇이 되남느니라." 하셨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 빵 하나가 모두를 먹이고도 남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실수한 게, 근본을 모른다면 계란에 눈이 없는 것과 같아서 병아리를 깔 수가 없죠. 그런 거와 같이 모두가 "타인을 믿는다면 마구니와 같느니라."라고 한 말 자체를 '나를 믿어야 되느니라.'로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닌데, '각자 나를 믿어야지 타인을 믿는다면 도깨비장난 같고 마구니의 소굴 같으니라.' 했는데 듣는 사람이 그렇게 알아듣질 않고 '나를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했으니까 예수의 모습으로만 그냥 한데 모인 거죠.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길이 막히죠. 길이 뚫릴 수가 있나요! 삼세가,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냥 막히죠, 중간에 가서.

그러니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그 생활이 바로 교재인 것입니다. 생활 자체가 말입니다. 절을 할 때도 한생각을 둥글려서 일심으로 일배를 올린다면 삼천 배 올린 것보다 더 귀중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들이고 내는 모든 거를 자기 몸뚱이가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자기 몸뚱이는 바로 차와 같고 차를 끌고 다니는 운전수는 안에 있습니다. 꽃나무도 뿌리가 없다면 꽃은 죽어 버립니다. 꽃은 바로 자기 뿌리를 의지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뿌리로써 에너지를 흡수해서, 지분이나 수분이나 철분이나 이런 거를 흡수해서 올려보냄으로써 나무가 푸르르게 살 수 있고 또는 꽃도 필 수가 있고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제 나무에서 무르익는다면 여러분을 다 먹이고도 그 과실은 되남는 것이 되죠.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6년 9월 15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초기불교 VS 선불교



한국불교의 미래는 선불교인가 초기불교인가?
불교 전반에 대한 탄탄한 지식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흥미진진하게 써내려간 한 편의 소설 같은 책. 현대 한국 불교를 관통하는 두 개의 흐름, 전통적인 선불교와 새롭게 유행하는 남방불교의 한판 대결! 한국사회에서 선불교는 한계에 봉착한 것인가? 남방불교의 득세는 일시적 유행인가, 아니면 한국불교의 미래인가? 보다 본질적으로, 한국 초기불교주의자들의 주장은 교리적으로 올바른가?
방경일 저 | 신국판변형 | 296쪽 | 값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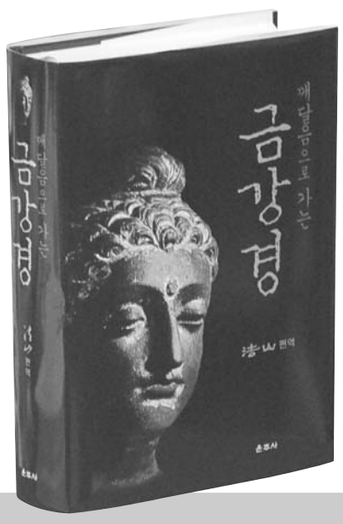
다음 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티벳 사자의 서』에 의한 중음에서의 해탈법
죽어서 다음 생을 받기까지 49일의 중음 기간 중 단계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천도를 하는 이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망자를 어떻게 경책해야 하는지 등을 담고 있다.
석법성 편역 | 신국판변형 | 144쪽 | 값 8,000원



금강경 해설의 새로운 지평!!!
풍부한 일화와 사진, 초기불교와 대승불교를 넘나드는 깊고 폭넓은 해설!
깨달음으로 가는 금강경



초기불교를 자양분 삼아 더욱 풍부해진 금강경 해설!
이 책은 계율과 선정을 중시하는 초기불교와 중생구제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대승불교, 번뜩이는 지혜를 강조하는 선불교의 가르침을 수행자의 안목에서 한 맛으로 회통하고 있다.



사진과 일화로 읽는 금강경!
부처님이 직접 설하는 듯한 생생한 해설과 다양한 사진자료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불법의 정수까지도 오롯이 드러내 보인다.

한 편의 소설을 읽듯 흥미진진한 금강경!
마치 한 편의 상황극을 보는 듯 재미있고 친절한 풀이를 한 장 한 장 읽다보면, 지혜의 완성, 번뇌의 타파에 한 발 다가가 어느덧 참나를 찾는 길에 들어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법산 편역 | 신국판양장 | 올컬러 | 764쪽 | 값 38,000원



*저자 법산 스님은 국내 제방과 인도, 미얀마 등지에서 수행했으며, 현재 대구 대각사(053-6565-108)에서 불교명상대학 지도와 금강경 강좌를 통해 법연을 나누고 있다.

● 붓다북 www.buddhabook.co.kr ● 주문 (02) 3672-7181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불자 세상보기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공정사회론의 씁쓸함

최근 유명환 장관 딸의 특채 논란으로 온 나라가 허탈해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젊은 사람이 5급 사무관이 되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는 고시라는 힘든 관문을 뚫고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시원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인생역전의 꿈을 안고 시험에 올인하는 상황도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시험제도는 그나마 음서제도의 폐단을 차단하고, 부모의 객관적인 지위이나 자산의 수준과 무관하게 소위 '개천에서 용 나는' 몇 안 되는 기회로 받아들여졌다. 물론 그러한 고시제도의 폐단을 보완하고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채라는 보완적 제도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파문처럼 아버지가 수장으로 있는 공조직에 딸이 부하직원의 조직적인 지원과 협력아래 채용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의 전근대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었다. 사실 이러한 코미디는 한편의 에피소드로 끝날 뻔했다. 계급사회의 현실을 긍정하는 보수언론이 애써 외면해서 그렇지 이미 외통부의 특채 논란은 몇 년 전부터 일부 언론에서 다루어왔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불을 지른 건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사회'론이다.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는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하반기 국정운영의 기조를 천명하였다. '강부자'내각, '고소영'내각, 그리고 최근의 '죄송'내각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주요보직에 오는 인물의 면면이 모두 공정사회의 주체가 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분들이어서 대통령의 그러한 화두는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어느덧 우리 사회의 식자들은 대통령의 인사기준인 '일 잘하는 사람'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박영준 지경부 차관의 중용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대통령의 인사기준은 오히려 '믿을 수 있는 측근'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이 이러다 보니 다수의 국민들이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없을 리 없다. 아마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프로젝트의 기획자로 알려진 임태희 비서실장은 그러한 현실에 어느 정도 조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치공학적' 계산을 하신 듯하다.

그렇다.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공정사회론은 대단히 정치공학적인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대통령이 언급한 기회의 공정함은 사실 상식과 원칙에 충실하면 모두 가능한 것들이다. 우리국민의 상식적인 수준에만 눈높이를 맞춰도 장관의 딸이 불공정하게 특채되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며, 고용불안정은 사업주의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은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관계는 최소한 어음지급만이라도 확실하게 근절시키고, 사학재단의 비리는 법대로 고발조치하면 되는 것이다. 별로 어렵지 않은 원칙인데도, 기득권층을 보호하면서 서민대중을 안정화시키려는 립서비스에 불과한 정치공학으로 동원된 공정사회론은 심지어 보수 기득권 계층에게조차 불편할 뿐이다. 보수언론의 대변자인 조선일보는 아예 대놓고 "어떤 공정사회를 무슨 방법으로 이뤄낼 것인가?"라는 사설에서 기득권층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러한 정치공학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치공학의 일환으로 일부 권력자들과 재벌에 대한 사정의 칼날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그러한 '쇼쇼쇼'는 없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두 번 속는 것도 아니고 이제 국민은 그러한 쇼를 보고자 하지도 않는다. 다만 상식에 기초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원할 뿐이다. 이는 대통령의 시각처럼 공정한 법집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그러한 생각은 위험하기조차 하다.

애초에 조건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의 공정함을 아무리 강조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인가? 말 그대로 공정한 사회는 불평등한 기회의 조건 자체를 공평하게 만드는데서 출발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성과지상주의 선입견부터 바꾸는데서 출발해야하지 않을까?



사부대중 칼럼

가섭 스님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추석을 맞으며

추석을 앞두고 있는 요즘, 연이은 태풍과 폭우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다. 햅쌀과 햇과일의 추수를 앞둔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과 명절을 앞두고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는 이들의 시름을 보도하는 뉴스가 연일 계속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강한 비바람과 함께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은 농민들이 지난 일 년 간 쏟아 부은 노고와 정성을 깊은 한숨과 눈물로 바꾸어 놓을 뿐만 아니라, 급속한 농수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도심에 사는 이들에게도 높은 가계지출의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번 추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청명한 하늘 아래 서늘한 가을바람이 고요한 평화롭고 풍성한 명절이 되길 간절히 기원하게 된다. 모두가 애써 지은 결실을 함께 나누며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우리의 명절 추석이 되길 더욱 기대하며 기다리게 된다.

추석이라면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귀성길 전쟁을 걱정한다. 이 날만큼은 늦도록 불을 밝히던 도시도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그리던 고향의 품을 찾아 떠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늘날의 추석에는 민족의 명절이라는 의미와 함께 '민족 대이동의 날'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다. 올해도 기나긴 귀성길에 올라야 하는 많은 이들은 올 추석도 지난 설처럼 교통대란에 시달리지는 않을까 염려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추석은 긴 연휴로 인하여 교통대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나마 가져볼 수 있으니 다행이다.

민족의 대표 명절 추석. 이처럼 여러 가지로 준비할 것도 걱정할 것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모두가 한번쯤은 추석이 갖는 본래의 아름다운 의미에 대해 기억했으면 한다. 추석은 우리 민족에게 귀향과 귀경을 통해서 조상을 섬기고 가족의 정을 나누는 시간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각 지역과 분야에서 열심히 일한 이들이 고향을 찾아 그간의 소식을 전하고 정을 나누며 소박한 기쁨을 느끼는 시간. 이는 객지생활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다시금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소중한 경험이 된다.

이러한 추석의 시작은 아주 오래 전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의 정감 넘치는 추석에는 그 유래에 따른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가위'이다. 여기서 '한'이란 '크다'라는 뜻이고, '가위'란 '가운데'를 나타낸다. '가위'란 신라시대 때 여인들이 실을 짜던 길쌈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 길쌈을 쳐음에는 '가배(嘉排)'라 부르다가 차츰 변하여 '가위'가 되었다. 맛있는 송편, 기름진 음식, 전 등 갖가지 별식과 밤, 대추, 머루, 다래, 배 등의 햇과일이 푸짐하게 마련되면 모든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둥그렇게 둘러 앉아,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노래와 춤을 즐겼다. 이 흥겨운 잔치는 사람들의 소탈한 웃음 속에 늦도록 계속 되었으리라. 해가 진자리에 둥근 달이 떠오르면 사람들은 밝은 달빛 아래에서 갖가지 놀이를 즐기며 축제의 밤을 이어갔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과 굴곡진 인생의 여정들을 둥근 달과 함께 평화롭게 녹여낸 조상들의 슬기와 멋을 함축적으로 담아낸 축제, 이것이 '한가위'라는 신라의 큰 명절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한가위는 잔치를 통한 나눔의 의미도 담겨있다. 요즘에는 많은 기업과 단체들이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동안 애써 거둔 결실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명절의 기쁨을 함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감과 그 실천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소외와 고독 속에서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명절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는 이주 노동자들, 누군가의 관심과 정을 그리워 할 홀몸노인, 일찍이 짊어진 힘겨운 무게 속에 명절의 즐거움마저 잃어버린 소년소녀가장들, 그 밖에 삶의 희망을 잃고 지쳐있는 많은 분들. 이들은 어쩌면 우리와는 사뭇 다른 추석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번 추석에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 명절의 진정한 의미, 애써 얻은 귀한 수확들을 함께 나누며 기쁨을 더욱 크게 키워갔던 옛 조상들의 아름다운 지혜를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실천해보면 어떨까. 올해에는 그들을 위해 보름달 같은 넉넉한 나눔의 마음을 밝혀보자.

사 설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 세워야 할 때

한반도의 기후 변화가 심상치 않다. 이번 여름은 유난히 덥다. 여기에다 많은 강우와 바람으로 혹독하게 보내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같은 아열대기후로 변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실제로 한반도의 평균기온은 지난 100년 동안 1.5도 상승했다. 2070년이 되면 한반도 이남에서 겨울이 사라져 눈을 보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온난화는 우리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새로운 질병의 출현이 염려된다. 동남아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질병이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미처 면역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더 위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생태계가 변화함에 따라 작물의 재배 적지가 크게 바뀌고 있다. 사과의 경우 주산지가 경북지역인데, 근래 몇 년 사이에 강원도 영월까지 올라갔다.

기후변화는 목조 건축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목조 문화재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고온다습한 자연조건에 놓이게 되었다. 새로운 해충의 출현도 배제할 없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다습한 기후 탓에 일찍이 목조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연구에 힘을 쏟았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만하지만, 우리 목조 문화재만이 갖는 재질과 건축공법의 특성이 있으므로 일본의 것을 따라가선 안 된다. 종단과 정부당국은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할 때다.

법규위원회, 종도 신뢰 되찾아야 한다

조계종단의 권위 있는 종헌기구인 법규위원회가 민망한 처지에 놓여있다. 성희롱 논란에 휩싸여 있고, 법규위원회가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규위원회는 8월 30일 초심호계원의 멸빈 판결에 대해 무효 취지의 심판청구를 심의하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여성을 상대로 질의를 벌였다. 그런데 이 여성이 성폭행에 준할 정도의 수치심을 느꼈다고 인권상담소에 호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국가기관에 종단의 일이 제소된 것도 초유의 일이거니와 종단의 중진스님들로 구성된 법규위원회가 불미스런 일의 진원진가 되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법규위원회는 이후 열린 회의에서 해당 여성에게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정작 수치심을 느끼게 질문을 한 법규위원 스님은 사과할 뜻이 없다고 한다. 이런 일에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증인으로 나온 여성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법규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유감을 표한 만큼 질의 당사자도 흔쾌히 사과해야 한다.

법규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법규위원회가 징계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법규위원회는 종법의 종헌 위배 여부 심판, 종령·규칙과 행정처분의 종헌 종법 위배 여부 심판, 중앙종무기관간·중앙종무기관과 지방종무기관간·지방종무기관간의 권한 쟁의에 관해 심판을 하는 기구다.

법규위원회는 승랍 25년 이상의 스님들로 구성된 종단의 권위 있는 기구다. 위헌 종법을 심사하는 등의 중대한 소임이 맡겨져 있다. 최근의 불미스런 일을 하루속히 마무리 지어 종도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적중도최고효과성
최대효사활인천역
집2010완결보정판
구입교환및육임활
용서학습서구입안내

1. CD프로그램
교환대상 효사활인천역집 Ⅰ,Ⅱ,Ⅲ, 완결판 소지자
교환가격 효사활인천역집 Ⅰ 교환 150만원
효사활인천역집 Ⅱ 교환 120만원
효사활인천역집 Ⅲ 교환 80만원
효사활인천역집 완결판 교환 50만원
신규구입 효사활인천역집 2010완결 보정판 500만원
기 능 원터치·매일 매시간별 자동화면·동일 시간내 다수방문자 구분식별·상담 메모리·자료출력 등등
장착목록 (아래 제 3항참조)

2. 미리보고 먼저 알게되는 자동화면의 우선항목들
• 시보(時報 : 왜 왔는가?)
• 내정(來情 : 어떤 정황인가?)
• 득지(得知 : 무슨 비밀사정이 있는가?)
• 아타(我他 : 저지른 일인가, 일어날 것인가?)
• 미기(未旣 : 이미 일어났는가, 일어날 것인가?)
• 귀신(鬼神 : 어떻게 죽은·누구의 귀신이 침범했는가?)
• 병귀(病鬼 : 무슨 귀신침범으로 병이 났는가?)
• 사숭(邪崇 : 신변·가택 어디에 무슨 부정이 들었는가?)
• 산소(山所 : 누구 묘지, 무슨 좌향·물형, 어떤 경관인가?)
◆ 어떤 방법으로 누가 해소 시킬수 있는가?
◆ 비방·부적·굿·천도재·불제 등의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며칠 후 언제 해야만 좋은가?
• 이외 24개항목의 길흉성부를 결정지어 놓았고, 50여 인사(人事)문제도 미리보고 먼저 판단할 수 있도록 화면 배치 했습니다.

3. 육임활용서(위 1항 CD프로그램에 장착 됨)
① 효사육임산책 2010최신판(휴대용) 1·6·60권 250만원
② 효사육임복변집 2010 보정판(좌정용) 1·6·60권 250만원
③ 육임대계전서 2010개편본(휴대용) 1·6·60권 250만원
④ 육임풍수 2010개편본(휴대용) 1·6·60권 70만원
⑤ 육임1년신수비결 2010개편본(좌정용) 1·6·60권 35만원
⑥ 육임래정비법 2010개편본(휴대용·좌정용) 1·6·60권 50만원
⑦ 도사에게 물어봐 2010증보판 육임길흉성부상담지침록(휴대용) 10만원
⑧ 육임사주감정법 2010개편본(좌정용) 20만원
⑨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좌정용) 12만원
⑩ 효사숙 사주(CD전용) ⑪ 성명학(CD전용) ⑫ 매화역수(CD전용)
⑬ 월영도(CD전용) ⑭ 부적보감(CD전용) ⑮ 동의보감(CD전용)

4. 육임학습서
① 효사육임강론 2010개편 증보 제 8판본 상권 종합학습편 1800쪽
② 하권 활용편 1800쪽 사과 삼전표·천지반표·과·격 체출법 및 각 상의·국수 해설·24개 항목별 단정 및 대별 교체 적시함

구입 승인 교환 안내 011-9795-1773 담당 양광표 / 계좌번호 : 농협 356-0340-6628-13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총재 고복자 효사 배상 www.taotemple.net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절감
심야전기 대비
1/2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세계평화 인류화합 "G20 세계정상회의 개최 성공기원"

세계불교법왕의날 선포식 및 세계평화통일 기원 대법회



- 행사명 : 세계평화 인류화합을 기원하는 대법회
- 주 최 : (재)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담화문화재단
- 주 관 : 법왕청 승가단, 일붕법왕종, 불교통합종단협의회
- 장 소 : 청원 법왕청 제 2청사
- 후 원 : 법왕청신문, 불교TV, 현대불교신문, 경기매일, 월간 노인건강복지, 불교일보, 영문 외교저널, 연합불교방송, 교계신문

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평화재단 담화 이존영 이사장은 세계불교초대법왕 일붕 '서경보존자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일붕법왕문도의 날을 세계불교법왕의날로 재정 선포하기 위하여 오는 10월 9일~10일까지 2일간 세계평화 인류화합을 기원하고 G20 세계정상회의 개최 성공을 기원하는 3000배 철야 기도 정진 및 세계평화 기원 대법회를 봉행 한다고 밝혔다.

1. 세계불교초대법왕을 역임하신 일붕 서경보존자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세계불교법왕의날 행사가 오는 2010년 10월 9~10일까지 충북 청원군 미원면 쌍이리 산7-1번지 법왕청 제2청사에서 "G20 세계정상회의 개최 성공을 기원하는 3000배 철야 기도정진 및 세계평화 인류화합을 기원하는 대법회를 봉행한다.

2. 이번 9일에 열리는 철야 3000배 기도정진을 통하여 의장국으로서의 G20 정상회의 개최를 성공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개최한 역대 국제회의 중에서 최대 규모이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우리나라의 국격 및 국가브랜드를 홍보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본 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3. 또한 10일 당일 우리의 큰 스승이신 일붕존자님의 동상제막식을 봉행하고 2부 법회에서는 고승대덕큰스님 문도 및 신도, 내외귀빈 등 총 3000여명이 참가하여 세계인류 평화와 인류 화합을 기원하고 G20 정상회의 개최 성공을 기원하는 세계불교 법왕의 날 선포식과 함께 법회를 봉행한다.

4. 당일 법회에 동참하시는 불자님들께는 무료로 중식제공 및 T셔츠를 지급 하고 추첨을 통해 TV와 냉장고, 기타 전자제품 및 생활필수품 제공은 물론 가수초청 공연도 함께 할 예정이다.

5. 9일 전야제에 참석하여 3000배 철야 정진기도를 마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상장 및 3000배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6. 본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시는 사찰 및 문.형제들은 02)3216-3216(법왕청) 또는 02)3417-1010(일붕법왕문도회), 국번없이 1644-3668(일붕법왕종총무원)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7. 또한 일붕법왕 동상 제작에 있어 동상에 이름을 새길 경우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사찰에서 명단을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비는 1인당 1구좌 5만원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첫째날

- 일 시 : 2010년 10월 9일
- 전 시 : **오전 9시**
  6.25전쟁 60주년기념 UN에 보관중인 6,25 사진전 및 일붕법왕의 발길따라 사진전 및 백두산 풍경 사진 전시회 (1개월간)
- 기 도 : **오후 3시 부터**
  (G20 세계정상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3000배 철야정진기도 봉행)

둘째날

- 일 시 : 2010년 10월 10일 (일붕법왕문도회)
  - 1부 행사 : **오전 10시 30분** 초대법왕 일붕 큰스님 동상 제막식
  - 2부 법회 : **오전 11시 부터** 세계평화 인류화합을 위한 G20 정상회의 개최성공을 기원하기 위한 세계불교 법 왕의날 기념 대법회 봉행
  - 3부 행사 : 시상식 및 어르신 초청 가수공연 및 경연대회
  - 4부 행사 : 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님의 초상화 전달식은 담화이사장에 의해 현재 옻칠 문화재 청목 선생님이 천연 옻칠을 사용하여 제작한 다음 판화를 제작하여 필요한 사찰에 무료로 보급하는 시간입니다.

■ 봉행위원

혜륭, 정각, 혜운, 원각, 지공, 공심, 법광, 운송, 법상, 보문, 동봉, 범홍, 청암, 법장, 법열, 공심, 원산, 법선, 법성, 아산, 혜광, 법공, 지허, 보리, 유심, 혜도, 해월, 해문, 도현, 효천, 혜선, 수원, 법성, 혜도, 무심, 혜성, 혜광, 혜원, 도현, 진산, 혜경, 지승, 보광, 혜정, 도성, 도일, 보리, 도우, 혜인, 법진, 일월, 무무 덕산, 청타, 지원, 법천, 법성화, 운각, 법광, 법선, 보문, 해명, 성경, 성수, 성범, 대덕화 법은, 도해, 자광, 혜등, 고담, 법상, 보현, 성각, 현인, 지흘, 지은, 지현, 정률, 정수, 경란 령산, 법우, 혜공, 문학, 지성, 일현, 일선, 보향, 보명, 보련화, 도휘, 보명, 법수, 원명, 현우, 영인, 보명, 원경, 일현, 정암, 무공, 보경, 지연, 묘정, 혜지, 소보, 법연심, 도진 보면, 혜인, 도선, 혜법, 법연, 봉선, 도철, 도심, 도안, 법성화, 천자, 도법, 혜화, 영은 법정, 홍련, 청산, 청암, 은곡, 혜천, 마정, 법안, 성허, 관행, 지광

■ 참가종단

대승불교여래종 세계승왕 인왕, 일붕법왕종 총무원장 원각, 세계불교 세심종 총무원장 범홍, 세계불교 법사종 종정 청하, 국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도천, 세계불교 일화종 종정 황정, 한국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일웅, 대한불교 대원종 종정 신풍, 호국불교 효예종 종정 법진, 대승불교 달마종 총무원장 해광, 총남불교 조계종 종정 청암, 대한불교 서각종 총무원장 원각, 한국불교 정토종 종정 월호, 대한불교 자비종 총무원장 도경, 대한불교 소림선종 총무원장 연화, 세계불교 지장선종 종정 혜봉, 대한불교 대원종 비구니회장 대광, 한국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성, 전통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태함, 사단법인 국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천, 대한불교 조계종성불회 회장 만공, 용화세계미륵종 종정 월단, (사)세계불교평화연맹 이사장 정철, 사단법인 세계평화연합법인회 법왕자, (사)대한불교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은곡, 종단세계선불교 총무원장 안심, 현대불교미륵종 총무원장 원공, 한국불교자비종 총무원장 해광, 대한불교여래조계종 총무원장 해덕 월명,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법정, 대한불교천인종 종정대행 청산, 대한불교 도생 조계종 종정 청오 사불, 한국불교지장조계종 총무원장 대천, 대한불교불광종 종정 청원, 대한불교 활법종 총사 활인, 대한불교 무속종 총사 대도, 대한불교 용화조계종 총무원장 해운, (사)한국노인복지봉사회 회장 정치호, (사)세계평화미술대전조직위원회 이사장 구미숙, (사)한국옻나무협회 회장 청목, (사)한국옻칠공예협회 회장 김인섭, (사) 신세대문화예술교류단, 단장 김주동, (사)나라사랑 이사장 민기붕, (사)한국공예예술가협회 회장 이칠용, (사)한국자애인유권자연맹 이사장 최봉실,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봉, 통합불교아미타종 이기욱,(사)한국교육문화원 원장 조규호, 한국불교 대승조계종 총무원장 법광,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장 능인, 대한불교유가종 총무원장 혜수,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현불 - 무순 -

추후 참가종단 및 봉행위원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접수처 : 02)3216-3216 / 011-399-3113에서 접수함.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